

자료 안내

1. 본 자료는 ‘현자의 돌 생활과 윤리 킬러적중 EBS수능특강 변형 문제집 (2018년)’ 구매자분들을 위해 제작된 무료 학습 자료입니다.



(2019학년도 6평에서 20문항 중 12문항을 적중한 고퀄 문제집♡)

2. 본 자료의 구성은 ‘2019학년도 수능 대비 수능특강 제시문’과 ‘2019학년도 6평을 포함한, 역대 수능 및 평가원이 출제한 제시문’ 중 킬러 주제로 출제될 수 있는 단일 제시문을 선별한 자료입니다.

3. 학습법:

① 수록된 제시문을 1회독 하시면서, 생소한 지문을 체크해둡니다. 2회독 부터는 체크한 ‘생소한 지문’과 자신이 약한 단원을 중점적으로 읽습니다.

② 생활과 윤리 개념은 원전에서 발췌된 ‘제시문’을 통해서 익힐 수 있습니다. 또한 수능에서는 기출이나 EBS의 ‘제시문’에 나왔던 내용이 킬러 선지로 출제될 수도 있으니, 제시문에 서술된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하거나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현자의 돌이 작성한 개념 칼럼들도 몇 편 넣었습니다.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cf) 출력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신이 취약한 단일만 출력해서 공부하셔도 됩니다.

4. 본 자료는 경제적 불평등이 교육의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제적 어려움이 삶의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돕고자, ‘교육 평등의 가치 실현’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5. 본 자료는 비 상업적 목적에 한정하여 자유롭게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친구분들과 file을 공유하거나, 학교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등)

6. 본 자료에 수록된 수능특강과 기출 제시문의 저작권은 EBS와 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각종 학습 칼럼, 코멘트, 밑줄 등의 편집 및 저작권은 저자 임수민에게 있습니다. 상업적 목적을 위한 불법 복제를 금합니다.

7. 자료 정오표: <https://blog.naver.com/cucuzz/221292411664>

1강. 응용 윤리와 윤리 문제의 탐구

- 단원 소개 및 학습 가이드

생활과 윤리의 기본 중에서도 기본인 단원입니다. '윤리학의 분류'를 응용 윤리 개념과 혼합한 문제들이 종종 나오니 주의해야 합니다. '윤리적 탐구의 과정'은 수능과 평가원에서는 단독 문항으로 출제된 바가 없으나 고2~3 교육청 문제로는 가끔 출제됩니다.

- 2019학년도 EBS 수능특강 1강의 특징

- ① 기술 윤리학에 대한 심화적인 내용 강조

우선 수능 기본 문제 2번에서 '문화 상대주의' 입장(갑)이 '절대적인 도덕규범, 보편적인 도덕규범'을 부정하는 내용이 출제되었습니다. 이는 수능과 평가원에서 기출된 적 없는 신개념입니다. 문화 상대주의는 문화 인류학에서 견지하는 입장 중 하나입니다. 이는 기술 윤리학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능 기본 문제 6번의 '갑'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입장입니다. 갑은 인간의 본성을 이기주의로 파악하는 입장에서 도덕적 행위에 대해 논합니다. 인간은 이기적 존재이므로, 도덕적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이기주의를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② 메타 윤리학의 심화 내용 추가 출제 X

최근 수능과 평가원에서는 메타 윤리학 내용을 심층적으로 다루었다. 그러나 이번 수능특강 문항들에서는 메타 윤리학 문항들이 무난한 수준~수능 출제 수준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반면, 기술 윤리학 관련 문항들은 수능에 기출된 내용이 아닌 생소한 내용들도 출제되었습니다.)

한편, 수능 실전 문제 3번에서는 도덕적 행위를 형이상학적 근거로부터 도출하지 않고, '다윈주의', '진화론'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입장(갑)이 출제되었다. 다윈주의로 윤리를 설명하는 입장이 문항으로 출제된 것은 상당히 독특하다. '진화윤리학'은 도덕의 성격을 진화심리학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다. 인간이 도덕에 대해서 이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진화윤리학은 규범 윤리학과 메타 윤리학 모두에 적용이 가능하다.

을은 이론 윤리학(메타 윤리학)의 입장에서 '사실-가치' 문제, '존재-당위'의 문제를 논한다.

선지 ①, ⑤는 진화윤리학(다윈주의, 진화론)의 입장을 포함한 선지가 출제되었다.

선지 ②, ③, ④는 메타 윤리학의 심화 내용(수능에 나온 수준)을 포함하고 있다.

메타 윤리학의 심화 개념을 아직 충분히 학습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 심화적인 내용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

③ 규범 윤리학 내용은 무난.

이론 규범 윤리학과 응용 규범 윤리학은 쉽게 출제된 편이다.

규범 윤리학 관련해서는 크게 주목할 문제는 없다.

1) 이론 규범 윤리학

- 이론 규범 윤리학은 특정 공동체를 넘어서서 보편적인 도덕률을 탐구한다.
[2019 수특 14p 1번]
- 사회 문화적 상황이 서로 다르다고 해도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덕규범은 변하지 않아. 따라서 도덕규범은 모든 사람에게 구속력을 지니므로 이러한 도덕규범의 보편성과 절대성을 탐구하는 것이 필요해.
[2019 수특 14p 2번]
- [비판형: 이론 규범 윤리학▶메타 윤리학] 윤리학자는 '선(善)이라는 언어의 의미 분석이 아닌 선의 본성 그 자체를 탐구해야 한다. 또한 '무제약적으로 선한 것'이라고 불릴 수 있는 가치를 지닌 것은 무엇인지를 탐구함으로써 선 자체의 변호자이자 지지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어떤 윤리학자는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선'이라는 언어의 정확한 의미를 분석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그 사용에 관한 어떤 정당화도 필요 없다고 본다. 나는 이와 같은 그의 주장이 도덕적 행위를 이끌어 주는 실천적 사유를 정당화하는 보편적 원리의 탐구가 필요함을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019 수특 15p 7번]
- [비판형: 이론 규범 윤리학▶기술 윤리학] 윤리학은 도덕적 관행 조사와 도덕적 개념 분석에 집중하기보다 윤리적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도덕 규칙의 근거인 도덕 원리를 정립해야 한다.
[2019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 저는 “이론 없는 실천은 맹목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윤리학의 본질은 어떤 원리가 도덕적 실천을 위한 근본 원리로 성립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데 있습니다.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 윤리학은 당위에 관한 학문이라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객관적 도덕 원리를 정립함으로써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다.
[2016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 너는 윤리학이 당위에 관한 학문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어. 우리는 객관적 도덕 원리를 정립함으로써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어.

[2016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 도덕성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정당화를 다룬다. <예> 덕 윤리, 의무론적 윤리, 목적론적 윤리 등.

[2014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2) 응용 규범 윤리학

- [비판형: 응용 규범 윤리학▶기술 윤리학] 나는 윤리학의 근본 과제가 현실에서 적용 가능한 도덕적 규범이나 원칙을 탐구하여 이를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현실적 도덕이 삶에 대한 경험의 일부이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연구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윤리학의 근본 과제가 어떤 문화나 사회의 도덕적 현상을 가치 판단 없이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라고 본다. 나는 이러한 입장이 실천적 규범을 통한 도덕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경시한다고 생각한다.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윤리학의 근본 과제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위를 판단하기 위한 기본 원리와 토대를 제공하고 일반화하는 데 있다. 그런데 오늘날 과학 기술의 급격한 발달은 기존의 이론 중심 윤리학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도덕적 문제 상황들을 초래하였고, 그 결과 실제 생활과 관련하여 논쟁이 되는 윤리적 과제들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윤리적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 윤리학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 윤리학은 도덕규범의 현실적인 적용과 구체적인 대안의 실천을 강조한다.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저는 “실천 없는 이론은 공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윤리학은 도덕 원리를 실천적 문제에 적용하여 현대 사회의 다양한 도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 ‘거짓말은 나쁜가?’와 같은 도덕 문제에 답하려면 관련된 문제들에 답해야 한다. 어떤 학자[이론 규범 윤리학자]들은 ‘선악을 구분하는 도덕 원리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유용성, 정언명령 등의 답을 제시하였다. 다른 학자들은[메타 윤리학자] ‘나쁘다’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대해 금지, 혐오 등의 답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위와 같은 대답들은 현실에서 제기되는 도덕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 지침을 제시하지 못한다. 따라서 ‘취재원 보호를 위한 기자의 거짓말이 언론 윤리에 위배되는가?’와 같은 물음에 답하는 윤리학의 분야가 필요하다.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나도 을[이론 규범 윤리학]의 입장에 동의해. 하지만 낙태와 같은 도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의학 정보를 고려하면서 도덕규범을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해.

[2016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 도덕 언어의 분석이나 기존의 도덕 이론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도덕 문제들이 제기 되었다. 그래서 안락사, 임신 중절 등과 같은 현실적 삶에 등장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윤리학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윤리학은 도덕 원리를 응용하여 실천적 도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주요 탐구 과제로 삼는다.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갑: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윤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윤리학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을: 윤리 문제는 ‘ 좋음’, ‘ 옳음’ 등과 같은 도덕 언어의 분석, 도덕규범에 관한 지식만으로 해결할 수 없어.

갑: 네 의견에 동의해. 다양한 가치들이 공존하는 현대 사회 에서 보편적 도덕규범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해서 새로운 윤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야.

을: 그렇지. 생명 윤리 문제, 정보 윤리 문제 등과 같은 실천적인 삶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윤리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오늘날 윤리학은
구체적 도덕 문제에 도덕규범을 적용하여 해결책을 찾아야 해.

[2015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 오늘날 삶의 실천적인 영역에서 새로운 윤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어. 따라서 윤리학은 생태 윤리 문제, 정보 윤리 문제 등에 대한 윤리적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해. 즉, 윤리학은 이론 지향적이 아니라 실천 지향적이어야 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윤리학은 이제 ‘하늘의 별’[추상적인 이론]을 고찰할 것이 아니라 ‘발밑의 문제’[실생활의 윤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즉, 생명 윤리, 성 윤리, 생태 윤리, 정보 윤리 등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 해결 방법을 탐구해야 한다.

[2014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3) 메타 윤리학

- 메타 윤리학은 도덕적 용어들의 개념을 분석하고, 도덕 판단의 타당성을 입증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을 윤리학의 주요 과제로 삼는다. 이러한 메타 윤리학의 대표적인 입장들에는 “도덕적 진리는 인식될 수 있으며, 도덕적 진술은 참이거나 거짓이다.”라고 주장하는 인지주의와 “인식될 수 있는 도덕적 진리는 없으며, 도덕적 진술은 참도 거짓도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비(非)인지주의 등이 있다. 이러한 메타 윤리학은 현실의 도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된 관심을 두지 않으므로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탐구에 그칠 뿐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2019 수특 9p 개념플러스]

- 윤리학은 도덕적 정당화의 기준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학적 명제에 관한 것을 주장해야 한다. 따라서 특정 행위에 대한 도덕 판단을 하기보다 이에 사용된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해 독립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2019 수특 14p 3번]

- 윤리학은 도덕 언어의 의미와 도덕 명제의 논리적 타당성 분석에 집중해야 합니다. 안락사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가치 판단이 아니라, 안락사를 선이나 악으로 규정할 때 선과 악의 의미는 무엇인지, 판단 논리에 모순이 없는지를 분석하는 일입니다.

[2019 수특 16p 2번]

- [비판형: 메타 윤리학▶진화 윤리학] 인간의 진화 과정이라는 경험적 사실은 존재(being)의 자연적 역사일 뿐이다. 이는 당위의 자연사(自然史)가 아니다. 경험적 사실로부터는 어떠한 당위로서의 도덕규범도 추론할 수 없다. 따라서 도덕이 생물학적 진화라는 경험적 사실로 환원될 수 있다고 보는 진화윤리학의 주장은 당위로서의 도덕규범이 경험적으로 도출되는 것이 아님을 간과하고 있다.

[2019 수특 17p 3번 제시문 변형]

- 윤리학에서 일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실천적 원리들에 관한 철학적 해석이 아니라 실천적 언어의 구조와 기능의 분석이다. 이를 위해 윤리학은 실천적 언어가 결합된 도덕적 명제의 논리적 타당성을 규명하고 그 속에 포함된 도덕적 행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가치중립적 입장에서 실제 사용된 언어들의 의미를 탐구하고자 한다.

- [비판형: 메타 윤리학▶규범 윤리학(특히 응용 규범 윤리학)] 나는 윤리학의 문제가 올바른 대답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언어 분석으로 ‘해소’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따라서 윤리학의 주된 과제는 도덕 이론을 전개하거나 도덕적 신념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와 진술들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과학 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치, 경제, 의료, 환경 등 현대인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윤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윤리학이 등장하였다. 나는 이러한 윤리학이 도덕 이론의 적용보다 도덕 언어의 분석이 중요함을 간과한다고 생각한다.

[2018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 20세기 중반에 논리 실증주의의 영향을 받아 도덕 언어의 논리적 명료화에 주력하는 새로운 윤리학이 등장하였다. 당시 윤리학은 도덕 판단이 단지 감정의 표현이나 명령일 뿐이므로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기도 하였다.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 “낙태는 나쁘다.”라는 진술은 낙태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불과해. 왜냐하면, 그러한 진술은 논리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야.

[2016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3) 메타 윤리학

- 20세기 들어 ‘윤리학이 학문적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를 밝히기 위해 언어의 의미 분석에 몰두하는 윤리학이 등장하였다. 이 윤리학은 도덕 추론의 논증 가능성과 논리적 타당성을 규명하는 것을 주요 탐구 과제로 설정하였다.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나는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따라서 윤리학은 ‘선한 삶이란 무엇인가?’를 묻지 말고, ‘선하다’는 말이 참, 거짓의 여부를 알 수 있는 과학적 명제처럼 검증 가능한 성질의 것인지를 물어야 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윤리학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당위가 학문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라는 문제를 규명해야 한다. 즉,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에 대해 엄밀히 탐구해야 한다.

[2014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4) 기술 윤리학

- 기술 윤리학은 도덕적인 현상과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하고 기술된 현상들 간의 인과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기술 윤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 사회 집단의 구체적인 도덕적 관행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도덕적 관행들을 그 나라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옷을 입는지에 관한 사실들과 같은 문화적 ‘사실’로 본다. 이 점에서 기술 윤리학은 규범 윤리학이나 메타 윤리학과 다르다.

[2019 수특 9p 개념플러스]

- 기술 윤리학은 주로 특정 공동체의 사실적 행위 방식과 행동 방식을 서술하고자 한다.

[2019 수특 14p 1번]

- (엄밀하게 기술 윤리학은 아니지만, 문화 상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윤리적 상대주의) 도덕규범은 사회 문화적 상황에 따라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무조건적 구속력을 지니는 하나의 보편타당한 규범을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해. 따라서 각각의 도덕규범을 인정해야 해.

[2019 수특 14p 1번]

- 윤리학은 도덕 현상을 연구하는 사실 과학이다. 도덕은 사회적 관습에서 비롯되므로 윤리학은 도덕 현상을 사회 현상으로 보고 사실적, 경험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2019 수특 16p 1번]

- 윤리학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문제보다 개인의 생활, 사회의 구조와 기능 속에 존재해 온 도덕적 관행들을 역사적, 문화적, 인류학적으로 접근하여 서술해야 한다.

[2019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5) 규범 윤리학의 기술 윤리학에 대한 비판

- 나는 윤리학의 근본 과제가 현실에서 적용 가능한 도덕적 규범이나 원칙을 탐구하여 이를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현실적 도덕이 삶에 대한 경험의 일부이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연구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윤리학의 근본 과제가 어떤 문화나 사회의 도덕적 현상을 가치 판단 없이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라고 본다. 나는 이러한 입장이 실천적 규범을 통한 도덕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경시한다고 생각한다.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윤리학은 사회과학과는 달리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한 것인가?’, 혹은 ‘생태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옳은 방안은 무엇인가?’와 같은 규범적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근대 이후 다양한 문화에 대한 사회과학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도덕규범과 관련된 문화적 사실들을 명확히 기술하고 그러한 사실들 간의 인과 관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윤리학이 등장하였다. 나는 이러한 윤리학이 도덕 관행에 대한 기술보다 삶의 문제 해결이 중요함을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016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6) 토론에 대한 사상가들의 입장

□ 밀: 한 사람을 제외한 인류 전체가 동일한 의견을 갖더라도, 그 한 사람이 권력을 잡고 인류를 침묵시키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듯이, 인류가 그 한 사람을 침묵시키는 것도 정당화될 수 없다. 어떤 의견을 거짓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의견을 듣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자신의 확실성을 결코 오류가 없는 절대적 확실성으로 가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의견이 표현되는 것을 침묵시키는 해악은 그 의견을 지지하는 사람뿐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까지 포함한 인류 전체의 기본권을 강탈하는 것이다.

[2019 수특 15p 8번]

□ 밀: 침묵을 강요받는 어떤 의견이 참일지도 모르며 진리는 반대 의견들과의 충돌에 의해 제공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하는 사람은 결코 자신이 오류가 없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또한, 다수가 받아들인 의견이 참이며 진리라고 하더라도 활발하게 논쟁 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합리적 근거를 파악하지 못한 채 어떤 편견의 형태로 이를 지지하게 될 것이다.

[2019 수특 17p 4번]

□ 사회자: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공리의 관점으로 설명하셨는데요, 진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밀: 당연히 존중해야 합니다. 그 소수 의견이 옳을 경우 인류는 오류를 수정할 기회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회자: 하지만 그 소수 의견이 옳지 않다면 불필요한 일이 아닐까요?

밀: 설령 그 의견이 옳지 않다고 할지라도 논쟁을 펼치는 과정에서, 인류는 기존의 진리가 지닌 가치와 의의를 재확인하게 됩니다.

[2016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 밀: 의견 발표를 억압하는 것은 그 의견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사람 모두에게 손해를 끼친다. 한 사람 이외의 모든 인류가 동일한 의견이고,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는다 해도, 인류에게는 그 한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2015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 칼 포퍼: 자기 스스로 무지함을 알고 있을 때 진리에 보다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며, 오류 가능성을 시인하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어떤 이론이나 신념에 집착하면서 이를 수정하려는 의지를 부정한다면 그는 지적으로 발전하는 데 한계를 가지게 된다. 자신이 틀릴 수 있고 상대방이 옳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함께 노력할 때 진리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다. [2019 수특 17p 4번]

2강. 윤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

- 단원 소개 및 학습 가이드

생활과 윤리 전반에 걸쳐서 응용되는 ‘이론 규범 윤리학’ 내용입니다. 앞으로 3~15강서 적용해볼 기회가 많습니다. 윤리 이론을 깊게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능에 단독으로 1문항이 출제된다. 문항 난이도는 쉽습니다.

cf) 단, 2019학년도 6평에서 일부 학생들은 ‘배려 윤리’를 공부하지 않아서, 아주 쉬운 문항을 틀리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공부해두세요.

- 2019학년도 EBS 수능특강 2강의 특징

- ① 개념이나 문항에서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 ② 제시문 위주로 반복해서 보면 됩니다.

1) 의무론적 접근 中 칸트의 의무론적 접근

□ 보편화 정식: “네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인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2019 수특 20p]

□ 인간성 정식: “너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성)을 단지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말고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라.” [2019 수특 20p]

□ 자연의 사물은 모두 자연의 법칙에 따라 작용한다. 오직 이성적 존재만이 원리에 따라 행위하는 능력과 의지가 있다. 법칙으로부터 행위를 이끌어 내는 데에는 이성이 요구되므로, 의지는 실천 이성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따라서 의지란 이성이 경향성에 독립해서 실천적으로 필연적이라고, 다시 말해 선하다고 인식하는 것만을 선택하는 능력이다.

[칸트, “윤리 형이상학 정초”, 2019 수특 20p]

□ 칸트는 선의지를 가지고 도덕 법칙을 자율적으로 따르려는 의무 의식에서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칸트는 선의지는 행위의 결과를 고려하는 마음이나 경향성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옳은 행동을 오직 그것이 옳다는 이유만으로 행하려는 자유 의지이므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무조건 적으로 선한 것은 선의지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2019 수특 20p]

□ 선의지가 그 자체로 선한 것은 어떤 결과를 낳아서가 아니다. 선의지는 비록 본래 의도를 실현할 힘이 부족하다 해도 또한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를 낼 수 없다 해도 그 자체로 충분한 가치를 지닌 보석처럼 빛날 것이다.

[2019 수특 27p]

□ 칸트는 보편화 가능한 도덕적 법칙에 근거한 의무를 실천해야만 한다고 이야기한다.

[2018학년도 EBS 수능완성 11p 연계]

1) 의무론적 접근 中 칸트의 의무론적 접근

- 빈약한 먹을거리나 특별한 불운 때문에 선의지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힘을 결여하고 있더라도, 그래서 최대한 노력해도 성취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선의지만은 그 자체로 완전한 가치를 갖는다. 이에 어떤 무익함도 덧붙여질 수 없고 그 가치에 어떤 것도 더하거나 뺄 수 없다. 그런데 어떤 사상가는 도덕적 행위에서 중요한 것은 선을 행하려는 의지가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결과라고 주장한다. 행위의 결과가 많은 사람들에게 쾌락을 줄 수 있을 때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나는 그 사상가의 주장이 도덕적 행위는 정언 명령의 형식에 부합되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019 수특 29p]

- 정의로운 상태는 준칙에 따른 행위가 보편적인 법칙과 규칙에 따라서 자유와 공존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법칙이란 유한한 이성적 존재의 의지에게는 의무에 해당한다.

[2018학년도 EBS수능완성 15p 연계]

- 너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을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한낱 수단으로만 대하지 않도록 행위하라.

[2018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2) 의무론적 접근 中 자연법 윤리(아퀴나스)

- 신(神)의 이성의 영원한 법은 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가 아니더라도 이미 계시를 통해서나 우리의 이성 작용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알려져 있다. 자연법은 영원한 법이 이성적인 피조물에 관여한 것이므로, 자신의 선한 면을 보존하고 자연이 모든 동물에게 가르쳐 준 욕구를 채우며 신에 관한 지식을 추구하는 등 인간이 분명하게 정립할 수 있는 교훈들로 이루어져 있다.

[아퀴나스, “신학대전”, 2019 수특 21p]

- 아퀴나스는 자연법의 궁극적 근거가 우주에 질서를 부여하는 신의 지혜, 즉 영원법이며, 인간이 영원법에 참여하는 것이 다름 아닌 자연법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이 영원법을 파악할 수 있는 한 그것은 인간에게 자연법으로 인식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아퀴나스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해야 한다.”라는 자연법의 원리로부터 구체적인 도덕 규칙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보았다.

[2019 수특 21p]

3) 공리주의적 접근 中 벤담 공리주의

□ 도덕과 입법의 원리: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 행위는 행복을 증진시키는 경향을 지니고 있는 정도에 비례하여 옳으며, 행복에 반대되는 것을 증진시키는 경향을 지니고 있는 정도에 비례하여 그름.

[2019 수특 21p]

□ 양적 공리주의: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 같다는 가정하에 쾌락의 양적인 차이를 중시하였으며, 쾌락을 계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생산성, 순수성, 범위)을 제시함. → “인간은 쾌락의 총량을 최대화하고 고통의 총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동한다. 행위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은 행위에 의해 생겨날 쾌락과 고통의 양이다.”

[2019 수특 21p]

□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주인의 지배를 받도록 하였다.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지시하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고통과 쾌락뿐이다. 한편으로는 옳음과 그름의 기준이, 또 한편으로는 원인과 결과의 사슬이 두 주인의 왕좌에 고정되어 있다. 공리의 원리는 이런 복종 관계를 인식 시켜 준다. ...중략... 공리의 원리란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의 행복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정도에 따라서 어떤 행위를 허가하거나 불허하는 원리를 뜻한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행위를 증진하거나 반대하는 것에 따라서 각각의 모든 행위를 승인하거나 부인하는 원리를 뜻한다.

[2019 수특 22p]

□ 벤담은 ‘공리의 원리’를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 제시하였다. 즉, 쾌락을 산출하고 고통을 피하는 결과를 낳는 행위가 선이며, 공동체는 개인의 총합에 불과하므로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보았다.

[2019 수특 22p]

□ 유용성(공리)의 원리

행위는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경향을 지니고 있는 정도에 비례하여 옳으며, 행복에 반대되는 것, 즉 고통을 증진시키는 경향을 지니고 있는 정도에 비례하여 그르다는 공리주의의 기본 원리.

[2019 수특 22p]

3) 공리주의적 접근 中 벤담 공리주의

□ 어떤 행동의 도덕적 정당화의 기준은 다음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먼저 한 행위가 +1000의 행복과 -500의 불행을 낳는 반면, 다른 행위는 +700의 행복과 -100의 불행을 낳는다면, 두 번째 행위가 첫 번째보다 낫다. 또한 한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행복의 총합이 A, B, C에게 +100, +300, -300이고 다른 행위는 +100, -400, +500이라면, 역시 두 번째 행위가 첫 번째보다 낫다. 한편 A, B, C의 행복의 총합에서 단위의 크기는 동일해야 한다. 심지어 A와 B가 자유인이고 C가 노예일지라도 A 또는 B의 +100과 C의 +100은 똑같이 취급됨으로써 모든 사람의 행복은 동등하게 계산되어야 한다. [2019 수특 27p]

□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 제시한다. [2018학년도 EBS 수능완성 11p 연계]

□ 인간은 쾌락을 극대화하고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행위한다.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행위에 따라 생산되는 쾌락과 고통의 양이다. [2018학년도 EBS 수능특강 28p 연계]

□ 강하다, 길다, 확실하다, 빠르다, 효과적이다, 순수하다-쾌락과 고통 속에서 이런 특징들을 지속시켜라. 만약 사적인 쾌락이 너의 목적이라면, 그런 쾌락을 추구하라. 만약 공적인 쾌락이 너의 목적이라면, 그런 쾌락을 확대하라. [2018학년도 수학능력시험]

4) 공리주의적 접근 中 밀의 질적 공리주의

□ 질적 공리주의: 쾌락의 양만이 아니라 그 질적인 차이도 고려해야 함. →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쾌락보다 더 바람직하고 더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유용성의 원리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 다른 모든 것을 평가할 때에는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하면서, 쾌락을 평가 할 때에는 양에만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2019 수특 22p]

□ 밀은 벤담과 달리 쾌락의 질적인 차이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감각적 쾌락보다는 정신적 쾌락이 질적으로 더 수준 높은 쾌락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정상적 인간이라면 누구나 질적으로 수준 높은 고상한 쾌락을 원할 것이라고 보았다. [2019 수특 22p]

4) 공리주의적 접근 中 밀의 질적 공리주의

- 만약 두 가지 쾌락 중, 이 둘 모두를 충분히 경험해 본 그런 사람들에게 의해서, 하나가 다른 것보다 훨씬 중시된다면, 설령 이러한 선택이 엄청난 양의 불만족을 수반한다는 것을 안다고 해도, 그들은 그것을 선호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본성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쾌락의 양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적은 정도의 가치를 표현하는 더 큰 양에 비하여 그 선호된 즐거움에 질적 우월성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밀, “공리주의”, 2019 수특 22p, 33p]

- 다른 것을 평가할 때에는 양과 질 모두를 고려하면서, 쾌락을 평가할 때에 만 오직 양만 따져야 한다고 말한다면 설득력이 없다. [2018학년도 EBS 수능특강 28p 연계]

5) 공리주의적 접근 中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

- 행위 공리주의에 의하면 우리에게 가능한 모든 대안적 행위들에 효용의 원리를 직접 적용하여, 그 가운데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가 옳은 행위가 된다. 즉, 어느 상황에서도 최대의 기대 효용을 갖고서 실제로 효용을 극대화하는 행위가 행해야 할 옳은 행위로 확정된다. 반면에 규칙 공리주의는 어떤 행위가 최선의 결과인지를 찾지 않고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줄 규칙을 찾는다. 즉, 규칙 공리주의는 효용의 원리를 행위가 아닌 대안이 되는 규칙들에 적용하여 최대의 기대 효용을 갖는 공리주의적 규칙을 산출한 다음, 개별 행위가 그 규칙에 따를 때 옳은 행위가 된다고 본다. [2019 수특 23p]

- 규칙 공리주의: 어떤 행위가 타당한 행위 규칙에 일치하면 옳고 그 규칙을 위반하면 그르다. 행위 규칙의 타당성을 결정하는 척도는 유용성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 모든 규칙 중에 진정으로 사람들을 규제하는 규칙은 일반적으로 그것을 따를 때가 다른 어떤 규칙을 따를 때보다 다수의 사람에게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주어야 하는 것이다. [2019 수특 28p]

- 규칙 공리주의: 어떤 행위는 타당한 행위 규칙에 일치하면 옳고, 그 규칙을 위반하면 그르다. 행위 규칙의 타당성을 결정하는 척도는 유용성이다. 윤리적 의사 결정은 더 큰 유용성을 산출하는 규칙에 근거해야 한다. [2018학년도 수능능력시험]

- 규칙 공리주의: 어떤 행위가 가능한 다른 대안들보다 사회에 더 큰 선을 산출하는 규칙들의 집합에 속하는 규칙에 의해 요구되는 행위일 때, 그리고 오직 그때에만 그 행위는 옳다.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6) 덕 윤리

- 나는 윤리학의 근본 과제가 좋은 삶이란 무엇이고 그것을 구체적인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라고 본다. 도덕적 삶에서 중요한 것은 유덕한 품성을 갖추는 것이다. 따라서 윤리학은 덕을 함양한 사람의 도덕적 판단과 실천에 주목해야 한다. 그런데 의무론이나 공리주의와 같은 윤리학 이론들은 보편적인 도덕 규칙이나 원리만을 강조하여 도덕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나는 이러한 윤리학 이론들이 도덕 행위자 내면의 도덕성과 인성이 중요함을 간과하였다고 생각한다.

[2018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7) 덕 윤리적 접근 中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윤리

- 도덕적 덕은 본성적으로 생겨나는 것도 아니요, 본성에 반하여 생겨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본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습관을 통하여 완성한다. 그러므로 정의로운 일들을 행함으로써 우리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며, 절제 있는 일들을 행함으로써 절제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2019 수특 23p]

- 덕 윤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덕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을 지적인 덕과 도덕적인 덕으로 나누었다. 도덕적인 덕은 욕망과 욕구의 측면이 이성에게 귀를 기울이고 이성의 명령에 따르면 얻게 되는 것으로, 반복적인 행위에 의해 습관화됨으로써 완성될 수 있다.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적 전통을 이어받은 덕 윤리는 의무론과 공리주의를 비판하면서 도덕적 행동에서 행위자의 덕성을 중시한다.

[2019 수특 23p]

- 도덕적 실천에서는 단지 아는 것뿐만 아니라 잘 행동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구체적 상황에서 가장 알맞은 것, 즉 중용의 덕을 발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일관된 연습을 해야 한다.

[2019 수특 27p]

- 우리는 다른 사람과 어울리며 하는 행위들에 의해 올바른 사람이 되거나 옳지 못한 사람이 된다. 또한 위협에 당면해 무서워하거나 태연한 마음을 지니는 태도에 따라 비겁한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결국 도덕적 덕은 본성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된 습관의 결과로 생긴다.

[2019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8) 덕 윤리적 접근 中 매킨타이어의 덕 윤리

- 고대, 중세에서 인간 공동체- 가계, 도시, 국가 -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내가 규정한 의미에서의 실천이다. 그러므로 실천의 의미는 넓다. 공동체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 모두가 그 개념에 포함된다. 모든 실천은 그것에 참가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요구한다.
- 실천한다는 것은 탁월성의 기준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평가한 대로 나 자신의 행위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우리는 실천을 규정하는 기준에 나 자신의 태도, 선택, 선호, 취향을 종속시키게 된다.
- 덕은 습득된 인간의 자질로서, 그것을 소유하고 실행하면 우리는 실천에 내재된 선들을 성취할 수 있고,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그런 선을 성취하는 것이 제지된다. 핵심적인 덕성들이 없으면 우리가 실천에 내재된 선으로 다가가는 것이 봉쇄된다.

[매킨타이어, “덕의 상실”, 2019 수특 24p]

- 매킨타이어는 덕은 사회적 실천 또는 관행에 내재한 선을 성취하는 데 유용한 인간의 성품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공동체와 그 공동체의 전통과 역사를 중시해 역사적 시간과 사회적 공간에서 펼쳐지는 삶의 구체적 모습도 도덕적 판단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2019 수특 24p]

9) 배려 윤리적 접근

- 여성이 가진 도덕적 관심의 본질은 남성과 다르다. 여성은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배려의 의무를 기꺼이 짊어지려는 특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자신과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의 견해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관점뿐만 아니라 다른 관점들까지 포함하여 판단한다. 여성이 지니는 이러한 도덕적 장점은 여성들이 인간관계와 배려의 의무에 커다란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과 떼어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길리건, “다른 목소리로”, 2019 수특 24p]

- 길리건은 남성과 구분되는 여성의 특징을 바탕으로 배려 윤리를 제시하였다. 길리건은 도덕 판단에서 남성과 여성이 중시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책임과 인간관계의 맥락에서 사랑, 공감, 동정심, 존중, 상호 의존성, 유대 등 여성의 도덕적 특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배려 윤리를 주장하였다.

[2019 수특 24p]

- 자연적 배려의 관계는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선(good)’이라고 지각하는 인간의 상태와 동일시될 것이다. 우리가 열망하고 얻으려고 애쓰는 것은 그 상태이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도덕적으로 되려는 동기를 주는 것은 배려, 즉 그 특수한 관계 속에 있으려는 우리의 열망이다. 우리는 배려 관계 속에 남아 있고 배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이상을 고양하기 위해 도덕적으로 되기를 원한다.

[나딩스, “배려”, 2019 수특 25p]

- 덕 윤리와 배려 윤리의 공통점

- 인간관계와 구체적 맥락에 주목: 당면한 윤리 문제의 구체적인 맥락과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 → 현실에서 발생하는 도덕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효과적임
- 도덕적 실천의 효과: 인간의 내적 특성, 감정 등을 고려함으로써 도덕적 행위를 일으킴.

[2019 수특 25p]

- 오늘날 윤리학에서 중시해야 할 배려의 강조점은 도덕적 갈등 상황 속에서의 의사 결정이나 그에 대한 정당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것, 즉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며 고양하는 것에 놓여 있다. 이는 이성 중심의 윤리학이 가지고 있던 많은 전제들에 대한 도전으로서, 도덕적 결정에 도달하는 데 사용되는 추론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지속시키는 데 필요한 태도와 기능의 계발 그리고 열망의 유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2019 수특 28p]

- 배려하는 자로서 나는 나의 행동에 대해 정당화하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에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므로 내가 시도하는 것은 배려받는 입장에 있는 상대방에게서 완성된다. 또한 나는 배려받는 자가 역할을 바꾸어 배려하는 자로서 행동하기를 바란다. 따라서 나는 스스로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의 삶과 내가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의 삶 속에서 실현되고 완성되는 것이다.

[2019 수특 30p]

- 도덕적 딜레마를 설명하는 여성들의 방식을 살펴보면 남성과는 다른 도덕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도덕 언어가 존재한다는 것은 남성의 도덕 발달 과정과는 다른 또 하나의 도덕 발달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여성들에게 도덕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규정되는 것은 남을 해하지 말고 보살피야 한다는 윤리 의식이다.

[2019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10) 책임 윤리적 접근 中 요나스의 책임 윤리

*관련 교과서 서술

“요나스가 책임 윤리에서 말하는 책임의 특징은 인과적(因果的)인 ‘과거 책임’을 넘어서는 당위적인 ‘미래 책임’의 성격을 가진다. 하지만 ‘미래 책임’이 미래에 져야 할 책임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미래를 고려하는 현재의 책임을 뜻하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미래 책임’이어야만 기술 시대의 생태학적 윤리 문제에 대처하여 자연과 미래 세대에 책임을 지는 윤리를 실천할 수 있다고 본다. 인간의 생존이 지구와 그 미래를 돌보는 인간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너의 행위의 결과가 지구상에서 참된 인간 삶의 지속과 조화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라는 책임의 정언 명법을 제시

하였다.” (교학사 『생활과 윤리 교과서』 P.44)

“요나스는 과거 지향적인 인과적 책임보다는 미래 세대와 자연에 대해 책임지는 ‘미래를 위한 책임 윤리’에 주안점을 둔다. (중략) 요나스는 전통 윤리가 인간 행위의 새로운 조건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그 대안으로 “네 행위의 결과가 인간의 진정한 삶과 영원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행위하라.”라는 책임의 명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책임의 범위를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 그리고 자연까지 확대할 것을 주장하였다.” (비상교육 『생활과 윤리 교과서』 P.41)

“현대 과학 기술 문명이 초래한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책임 윤리를 제창한 사람은 요나스이다. 그는 기존의 윤리가 인간 삶의 전 지구적 조건과 미래, 즉 인류의 존속이라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고 비판하며 과학 기술의 발달과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윤리와의 간극을 ‘윤리적 공백’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전통 윤리로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윤리로서 책임 윤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요나스는 인간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보면서 인간이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는 것 자체로 책임을 져야만 한다는 의무로 연결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는 인류의 존속이라는 무조건적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자연과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제시한다.” (미래엔 『생활과 윤리 교과서』 P.41)

“독일 철학자 요나스는 과학 기술 시대에 책임 윤리를 새롭게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책임의 범위를 현세대로 한정하는 기존의 전통적 윤리관으로는 과학 기술 시대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윤리적 책임의 범위를 확대해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까지 고려해야 한다. 즉 우리에게서 과학 기술이 인간의 생존과 다른 생명체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서 생명체를 보존해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내재적이고 본질적인 가치를 지니는 모든 생명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요나스는 행동하기 전에 행동의 결과에 대하여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하는 ‘예견적 책임’을 강조한다. 과학 기술의 발전이 먼 미래에 끼치게 될 결과를 예측하여 생명에 대하여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과학 기술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예측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보전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왜 보전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 준다.” (미래엔 『생활과 윤리 교과서』 P.116)

□ 미래 지향적인 책임의 윤리는 이미 행해진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배려와 예방입니다. 즉, 우리에게 행위할 것을 요구하는 책임 대상에 대한 배려와 그 대상이 처할 수 있는 사태의 예방에 대한 책임입니다. 따라서 책임 대상이 지닌 고유한 미래성은 책임의 가장 본래적 모습을 보여 줍니다. 자기를 넘어서서 범위를 확대해 보면 책임은 한 시적 존재인 우리의 존재론적 성격에 대한 도덕적 보완입니다.

[2019 수특 28p]

□ 이제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힘을 과학을 통해 부여받아 마침내 사슬로부터 풀려난 프로메테우스는 자신의 권력이 인간에게 불행이 되지 않도록 자발적인 통제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하나의 윤리학을 요청한다.

□ 인류는 지구상에 계속 존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이 요청된다. 전통적 윤리는 인간적 삶의 전 지구적 조건과 종(種)의 먼 미래와 실존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자연에 대한 책임, 미래 지향적 책임, 미래 세대의 삶의 조건에 대한 책임까지 숙고해야 한다. 이러한 책임은 단순히 상호적 권리와 의무로만 설명될 수 없다. 우리에게 요청되는 책임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처럼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책임이다.

[요나스, “책임의 원칙”, 2019 수특 26p]

□ 요나스: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만 한다.’는 것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는 것, 그 자체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인간이 미래의 위험을 예견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명령으로 표현된다.

칸트 : ‘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은 의무를 의식하기 때문에 정언명령을 따라 행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언명령은 보편화 정식으로 표현된다.

[2019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 우리에게는 악의 인식이 선의 인식보다 무한히 쉽다. 선은 눈에 띄지 않게 존재하며 반성을 하지 않으면 인식될 수 없지만, 악의 현존은 우리에게 인식을 강요한다.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를 알아내기 위해 새로운 윤리학은 공포를 논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인간 행위의 새로운 유형에 적합하고 새로운 유형의 행위 주체를 지향하는 명법은 다음과 같다. “너의 행위의 효과가 지상에서의 진정한 인간적 삶의 지속과 조화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인간은 행위하는 존재이므로 윤리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행위는 인과적 파급 효과를 산출하기 때문에 행위의 힘이 커질수록 윤리적 책임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따라서 과학기술로 인해 인간이 갖게 되는 새로운 행위 능력을 규제할 새로운 윤리가 요청되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윤리 없이는 기술 능력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압력으로 인해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2018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11) 답론 윤리적 접근 中 하버마스의 윤리 사상

- 하버마스. “의사소통 행위 이론”
 - 대화 상대를 동등한 인격의 소유자로 대하고 판단력과 지각이 있는 주체로 대한다.
 - 어떤 상황에서든 본인이나 다른 대화 상대자를 기만하거나 속일 의도를 가쳐서는 안 된다.
 - 모든 대화 참가자는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들의 물음에 개방적으로 답변하고 토론에 임한다.
 - 인종 또는 계급적 편견이나 지위가 대화 상대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막기 위한 억압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 대화 중에 제기된 물음이나 질문에는 그 어떤 금기도 적용되지 않으며, 누구도 질문에서 벗어나는 특권을 누릴 수 없다.

[하버마스. “의사소통 행위 이론”, 2019 수특 26p]

- 하버마스는 의사소통 과정에서도 지켜야할 규범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누구나 평등하게 의사소통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어떤 주장이든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어야 하며, 의사소통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참되고 옳고 진실하며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2019 수특 26p]

- 이상적 담화 상황의 구현을 위해서는 담화 참가자들 간에 상호 인격적 관계를 바탕으로 정당한 담화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며, 말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과의 소통을 위해 참된 진술을 해야 하고 자신의 견해와 의도, 감정과 희망 등을 솔직하게 표현해야 하며, 담화 참가자들 모두가 이해 가능한 언어를 선택하여 구사해야 한다.

[2019 수특 28p]

- 어떤 행위 규범은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평등한 담론을 통해 동의할 수 있는 것이어야 정당화될 수 있다. 규범적으로 정당한 실천적 담론은 의사소통의 일반적 전제조건들에 근거해야 한다.

[2018학년도 수학능력시험]

□ 어떤 규범이 타당한 것은 관련 당사자들이 일반적으로 그것을 준수했을 때 개개인의 이익의 충족과 관련하여 발생할 결과 및 부작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이다. 또한 가능한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실천적 담론의 참여자로서 동의하는 규범들만이 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

[2019 수특 27p]

□ 오늘날 시민들은 공적 장소에서 토론할 기회를 제대로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공적 토론이 시민들에게 권장되지도 않는다. 시민들 간의 합리적 의사소통이 없으면 건강한 민주 사회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에 의해 공적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과 토론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민주적 공론장에서 이성적인 시민들이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논증의 형태로 대화에 참가하고, 그 토론의 결과가 법체계에 반영된다면 현대 사회의 다양한 정치적·윤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018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 사회자: 선생님께서는 행정체계, 경제체계, 생활세계의 힘의 균형을 통해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하버마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행정 및 경제체계의 영향력이 과도해져서 시민의 의사가 공적 결정에 올바르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돈과 권력의 힘이 생활세계에서 진리, 올바름, 진실성이라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조건이 작동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말씀이죠?

하버마스: 그렇습니다. 이를 해소하려면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공론장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공론장에서

- ① 기업과 정부가 시민의 의견을 경청해야,
- ② 공정한 담론 절차를 준수한 합의의 결과를 수용해야,
- ③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의 개방성을 유지해야,
- ④ 공론장에서 정확하고 이해 가능하며 진실한 말로 주장해야 합니다.

[2018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 과학 기술의 비약적 발전 과정에서 우리는 이성의 도구적 측면만을 중시하고 의사소통적 측면을 간과하였다. 의사소통적 이성은 사회 집단이 자신들의 생활을 규제하는 규범을 새롭게 구축하는 과정에서 요구된다. 즉 그것은 '담론'의 상황에서 작동되는데, 이른바 '공론장'에서 논증의 형태로 나타난다.

[2016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 토론에 참가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도덕적 규범은 보편화 가능성과 관련이 있다. 이는 규범의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규범을 지킬 때의 결과와 부작용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2018학년도 EBS 수능완성 18p 연계]

3강

- 단원 소개 및 학습 가이드

죽음관은 어렵지 않고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단원이죠. 하이데거 등은 깊게 들어가면 어려운 학자지만, 아직까지 수능과 평가원에 출제된 적이 없는 학자이기 때문에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 없이 교과서와 EBS에서 다루는 정도만 익히면 됩니다. 오히려 어렵게 출제될 수 있는 사상은 '동양의 죽음관'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동양의 죽음관이 출제되어서, 앞으로는 더 심화된 내용이 출제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죠. ^^

- 2019학년도 EBS 수능특강 3강의 특징

아직까지는 수능과 평가원에서 에피쿠로스를 제외한 서양 사상가들의 죽음관을 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플라톤이나 실존주의의 죽음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2. 중요 문항& 해설지 분석

이번 칼럼에서는 동서양의 죽음관 출제 패턴을 분석해볼 것입니다. 그리고 플라톤의 원전을 통해서 플라톤의 죽음관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갈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평가원 시험 또는 수능에서 플라톤과 불교의 죽음관의 공통점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의 죽음관으로 출제될 수 있는 모든 내용과 약간 심화적인 부분을 함께 적었으니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학습하시고, 교육과정 외적인 심화 내용은 플라톤 죽음관을 이해하기 위해서 참고만 하세요 ^^.

(1) 학습해야 할 포인트 체크

‘3강 삶과 죽음의 윤리’에서 중요한 내용은 동양과 서양 사상가의 죽음에 대한 입장뿐이다. ‘죽음관’은 이론적인 내용을 충분히 학습해야 한다.

‘낙태, 생식보조술, 자살, 안락사, 뇌사’ 등은 어렵게 출제되지 않는다. 수능특강에 실린 정도의 개념만 알고 있다면, 관련 문제가 수능에 나와도 독해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게 출제된다.

(2) 죽음관 출제 경향 분석

‘죽음관’은 생활과 윤리 첫 해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출제되고 있는 주제다. 출제 주제는 다음과 같다.

연도	번호	주제
2014학년도 9월	15번	에피쿠로스
2016학년도 9월	16번	유교
2016학년도 수능	10번	도가, 불교
2017학년도 6월	4번	도가, 유교
2017학년도 9월	6번	도가, 불교
2017학년도 수능	6번	도가, 유교
2018학년도 6월	8번	도가, 에피쿠로스
2018학년도 9월	4번	도가, 유교
2018학년도 수능	4번	도가, 불교

동양: 유가(,유교) 4회 + 도가 7회 + 불교 3회 = 14회

서양: 에피쿠로스 2회

압도적으로 동양의 죽음관이 많이 출제되었다.

개정 전 교육과정에서는 동양의 죽음관이 부각된 것은 사실이나, 2013 개정 생활과 윤리 교육과정에서는 ‘플라톤, 야스퍼스, 하이데거’도 부각되어 동서양 죽음관의 균형이 맞춰졌다. 그러나 개정 이후 실제 평가원과 수능 기출 문제에서는 동양의 죽음관이 주로 출제되었다.

이는 대부분의 응용 윤리학 주제들이 서양 사상가 중심이기 때문에 죽음관에서서나마 동양 사상을 출제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생활과 윤리’ 과목에 대한 윤리 교육학계의 논문을 보면 ‘한국 윤리, 동양 윤리’의 낮은 비중을 비판하며,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평가원 시험에서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플라톤, 야스퍼스, 하이데거’의 죽음관이 올 해 평가원 또는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수능이나 평가원에 처음 출제되는 사상가의 경우 심화/지엽적인 내용이 아니라 EBS와 교과서에 실려있는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출제되기 때문이다. 기존의 ‘동양 사상의 죽음관’과 비교하는 정도의 문항 까지도 출제가 가능하다. 이 비교도 기본적인 수준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3) 출제 1순위 주제: 플라톤 & 불교 죽음관 공통점

출제 1순위의 주제는 플라톤의 죽음관과 불교의 죽음관 사이의 공통점이다.

플라톤의 죽음관: “육체에 간혀 있는 영혼이 죽음을 통해 영원불변하는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감” (『수능특강』 34p)

불교: “죽음은 현실의 세계로부터 벗어나 또 다른 세계로 윤회하게 됨을 의미함” (『수능특강』 35p)

▶ 실제로 이 둘을 비교하는 내용이 『수능특강』 42p 2번 문항의 선지 “⑤죽음을 끝이 아니라 내세로 이어지는 한 과정으로 보았다. (플라톤& 불교의 공통점)”으로 출제되었다.

실전 문제 2번 문항을 꼭 풀어볼 것.

참고로 내세란 죽음 이후에 올(來) after life를 말한다.

*교육과정 外) 플라톤은 영혼의 수련을 지속적으로 한 사람이 죽을 경우 이데아의 세계로 올라가 신과 불멸의 영혼들을 만나고 이데아(형상)를 직접적으로 조우하게 된다고 본다. 그러나 영혼의 수련을 게을리 하고, 욕망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죽을 경우 영혼이 이데아의 세계로 가지 못하고, 다른 육체로 환생한다고 본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와 유사한 개념이다. 그러나 플라톤의 ‘윤회’는 교과서와 EBS 『수능특강』에 실려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수능에 출제되기는 어렵다. 만약 학교 선생님께서 관련 내용을 가르쳐주신다면, 내신 시험에 출제될 수는 있으니 주의하자.

▶ 죽음 이후에 참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가? (플라톤: O) (『수능특강』 34p 2번 보기 ㄱ.)

cf) 플라톤의 윤회 묘사 설명은 다음 서적을 참고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셸리 케이건) 114p

(4) 플라톤 교과서 서술과 출제될 수 있는 플라톤 『변명』, 『파이돈』 원전

플라톤이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 어떻게 서술되어있는지 인용하고 요약했다. 그리고 나아가 플라톤의 원전을 인용했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 『소크라테스의 변명』, 『파이돈』 등에서 자신의 죽음관을 설명한다. 현자의 돌 본인이 직접 원전을 읽고 출제 가능한 제시문과 플라톤의 죽음관을 이해할 수 있는 문단을 선별하여 제공한다. 1 회차에서 제공한 EBS 수능특강의 제시문들을 먼저 학습하자. 그리고 나서 플라톤의 ‘원전’에 나와 있는 내용도 참고해도 좋을 것이다.

[생활과윤리 교과서]

플라톤은 죽음을 육체로부터 영혼이 해방되는 것으로 보면서 이성적 지혜를 키우는 삶을 권하였다. 『교학사 생활과 윤리 교과서』 53p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은 육체에 갇혀 있는 영혼이 죽음을 통해 영원불변한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주장하였다. 『비상교육 생활과 윤리 교과서』 50p

[플라톤 원전]

이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탐구하는 애지자(지혜를 사랑하는 자)의 사명을 수행하도록 내게 명령한 때 죽음이나 다른 것에 대한 공포 때문에 내 자리를 포기한다면, 나의 행위는 참으로 이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현명하지 않으면서도 현명한 체하며 신탁에 복종하지 않았다면, 나는 신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죄목으로 법정에서 소환당해도 마땅할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지혜로움을 가장하는 것이지 진정한 지혜로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체하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최대의 선인지 아닌지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두려운 나머지 죽음을 최대의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무지는 부끄러운 것이 아닐까요?

『소크라테스의 변명』

▶ 출제 가능한 제시문은 아니다. 그렇지만, 플라톤의 죽음관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시문이다.

내가 무슨 말은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이 사건에 대해서 신탁은 전혀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침묵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나는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그것은 내게 일어난 일은 좋은 일이며, 죽음을 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암시입니다. 내가 악을 행하려 하고 그것이 좋은 일이 아니었다면, 예의 신탁은 분명히 내게 반대했을 테니까요.

『소크라테스의 변명』

▶ 출제될 수 있는 제시문은 아니다. 그렇지만 플라톤의 죽음관을 이해하는 중요한 원전이므로 인용한다. 위 글에도 나와있듯 플라톤은 죽음을 악이라고 보지 않았다. 오히려 죽음은 ‘좋은(善) 일’이다.

『수능특강』 40p 수능 기본 문제 2번의 보기 나.에는 “죽음은 인간이 피해야 할 고통스러운 것인가?”라는 선지가 제시되어 있다. 플라톤의 입장에서 부정할 질문이다. 왜냐하면 플라톤은 죽음을 좋은 일이라고 보았고, 악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플라톤은 죽음을 통해서 육체에 갇혀있는 영혼이 해방되고, 영원불변하는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았다.(『수능 특강』 34p)

죽음이 선(善)이라는 희망에는 유력한 이유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순례자가 저승에 도착해서 (...) 일생을 올바르게 산 신의 다른 아들들을 발견한다면, 이러한 순례는 분명히 보람 있는 일일 것입니다. 오르페우스, 무사이오스, 헤시오도스, 호메로스 등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어떤 대가인들 못치르겠습니까? 아니 이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몇 번이라도 죽고 싶습니다. (...) 무엇보다도 나는 참된 지식과 거짓 지식에 대한 탐구를 계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거기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질문을 한다면 무한한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 그들은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명』

▶ 출제될 수 있는 제시문은 아니다. 그렇지만 플라톤의 죽음관을 이해하는 중요한 원전이므로 인용한다. 위 글에도 나와있듯 플라톤은 죽음을 좋음, 선(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플라톤은 죽음이후의 내세를 믿으며, 내세(이데아의 세계)에서 진리를 추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플라톤은 죽은 사람이 이데아의 세계에 들어가게되면 영원히 산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서 플라톤이 영혼 불멸설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관련 EBS 선지:

“⑤죽음을 끝이 아니라 내세로 이어지는 한 과정으로 보았다.”(플라톤: O) (『수능특강』 42p 2번 문항의 선지 ⑤)

“죽음 이후에 참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가?” (플라톤: O) (『수능특강』 34p 2번 보기 가.)

재판관 여러분, 죽음을 흔쾌히 여기고 착한 사람에게는 생전에도 사후에도 나쁜 일은 생길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착한 사람과 그가 한 일은 신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또한 나의 다가오는 최후도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나는 죽어서 고통에서 해방될 좋은 때가 왔다고 확신합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명』

▶ 출제될 수 있는 제시문은 아니다. 그렇지만 플라톤의 죽음관을 이해하는 중요한 원전이므로 인용한다. 플라톤은 죽음을 통해 육체의 감옥에서, 육체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보았다.

교육과정 外) 참고로 플라톤의 입장인 ‘신체는 영혼의 감옥’은 오르페우스 교단의 입장에서 차용한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참된 철학자는 항상 죽음과 죽어가는 것을 추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일생 동안 죽음을 갈망해왔다면 그가 대망하던 시간이 닥쳤을 때 어째서 그가 한결같이 추구하고 갈망하던 일을 한탄할 것인가?

『파이돈』

▶ 『파이돈』은 출제 가능한 제시문이다. 플라톤은 인간을 ‘육체라는 감옥에 갇힌 영혼’으로 파악했다. 그는 육체라는 감옥에서 벗어난 영혼만이 진리를 가장 순수하게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플라톤은 철학자를 ‘죽음’을 연습하고, 죽음을 갈망하는 자로 보았다. 따라서 죽음은 한탄할(슬퍼할) 일이 아닌 것이다.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가 아닌가? 그리고 죽는다는 것은 이러한 분리의 완성인 것이야. 영혼이 독립해 있어서 육체에서 해방되고 육체가 영혼에서 해방될 때, 이것이 바로 죽음이 아닌가?

『파이돈』

▶ 『파이돈』은 출제 가능한 제시문이다. 보통 플라톤은 ‘영혼이 육체에서 해방된다’고 본다고 알려져있다. 그렇지만 원전의 full sentence에는 ‘영혼이 육체에서 해방되고, 육체가 영혼에서 해방되는’것이 죽음이라고 적혀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문장은 저 full sentence의 반쪽일 뿐이다. 아직 플라톤의 죽음관이 수능과 평가원에 출제되지 않은 바, 이 내용까지 출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두고 가면 될 것 같다.

“영혼은 언제 진리를 획득하는가? 육체와 함께 무엇을 고찰하려고 하면 영혼은 속지 않을 수 없을테데?”

“참된 존재가 드러난다고 할 때, 그것은 사유를 통해서 영혼에 드러나야 하겠지?”

“그리고 정신이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서 소리나 시각이나 고통이나 쾌락 따위가 정신을 괴롭히지 못할 때, 즉 정신이 육신에서 떠나서 가능한 한 육신과 관계하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정신이 육체적 감각이나 욕망을 갖지 않고, 오직 참된 존재만을 갈망할 때, 사유는 최상의 것이 되겠지?”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철학자는 육체를 경멸하고, 그의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나 홀로 독립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닐까?”

『파이돈』

▶ 『파이돈』은 출제 가능한 제시문이다. 플라톤은 ① 영혼이 육체의 영향을 받을 때에는 참된 진리를 획득할 수 없다고 본다. ② 참된 존재(이데아)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정신이 육

체적 감각이나 욕망에서 벗어나서, 오직 참된 존재를 갈망할 때 가능하다. ③ 따라서 철학자는 참된 인식을 방해하는 욕체를 경멸하고, 영혼이 욕체에서 벗어나서 홀로 독립하는 ‘죽음’을 긍정한다.

우리가 한가한 시간이 생겨서 사색에 잠기려고 하더라도 언제나 욕체가 끼어들어 우리의 탐구에 동요와 혼란을 일으켜서 놀랍게도 우리가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순수한 지식을 가지려면 욕체에서 벗어나야만 한다는 경험에 의해서도 입증되고 있는 일이다. 영혼 자체만이 사물 자체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때에만 우리는, 우리가 갈구하며 우리의 애인이라고 부르는 지혜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야 도달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욕체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영혼의 순수한 지식을 가질 수 없다면 다음 두 경우 중 하나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 죽은 다음에야 비로소 영혼은 욕체를 떠나 홀로 있게 되기 때문이다. 현세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욕체와 관계를 갖거나 사귀지 않고, 또 욕체의 본성에 전염되지 않고, 신이 우리를 해방해주는 시각까지 우리 자신을 깨끗이 지킬 때 우리는 지식에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욕체의 어리석음에서 풀려날 때 우리는 순수하게 될 것이며, 순수한 것과 사귄 것이며, 스스로 도처에서 밝은 빛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빛은 바로 진리의 빛이다.

『파이돈』

▶ 『파이돈』은 출제 가능한 제시문이다. 물론 수능 제시문으로 출제될 경우 위 문단을 더 가다듬어서 출제될 것이다.

참된 철학자들은 항상 죽음을 연습하고 있으며, 따라서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 참된 애지자이며 저승에서만 지혜를 보람있게 터득할 수 있다는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 죽음을 한탄하겠는가? 그는 기쁜 마음으로 떠날 것이 아닌가? 오, 나의 친구여, 그가 진정한 철학자라면 그는 기쁜 마음으로 떠날 것이 분명해. 그는 거기에서, 오직 거기에서만 순수한 형태로 지혜를 찾아낼 수 있다는 부동의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야. 따라서 이것이 진리라면, 내가 말한 것처럼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야.

『파이돈』

▶ 플라톤은 죽음 이후 저승, 천국, 내세: ‘이데아의 세계’에서만 순수한 형태의 지혜를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참된 철학자들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며, 항상 죽음을 연습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는 다시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있고, 살아 있는 것은 죽은 것에서 생기고, 죽은 자의 영혼은 생존하며, 착한 영혼은 악한 영혼보다 좋은 운명을 맞이한다는 것을 확신하네.

『파이돈』

▶ 플라톤은 영혼의 윤회를 믿었다.

(순수한 영혼이) 신적이며 불멸이고 이성적인 세계로 떠나가고 그 세계에 닿으면 영혼은 더없는 행복을 얻게 되어 인간의 과오와 어리석음, 두려움과 거친 정열, 그리고 다른 모든 인간의 악에서 풀려나고 영원히 신과 함께 사는 거야.

그러나 더럽혀진 영혼, 떠날 때에 순수하지 못한 영혼, 항상 육체의 벗이고 노예이며 육체와 육체의 욕망 및 쾌락을 사랑하고 매혹당한 영혼, 그래서 결국 진리는 만지고 보고 맛보는 등 이러한 욕욕에 이용할 수 있는 육체적 형태로서만 존재한다고 믿게 된 영혼, 다시 말하면 육체의 눈에는 어두워서 보이지 않고 오직 철학으로만 도달할 수 있는 지성적 원리를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피해온 영혼, 자네는 이러한 영혼이 깨끗하게 떠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나? (...) 이러한 영혼은 늘 육체와 관계하고 육체를 돌봄으로써 마침내 육체적인 것이 그 본성에 섞이게 되어 육체적인 것에 속박 당하고 말거야. (...) 이 육체적인 요소는 무겁고 둔하며 세속적인 것이고 영혼을 내리눌러서 다시 가시적인 세계로 끌어내리는 시각적 요소야. 이러한 영혼은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저승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지. 이 영혼은 무덤가를 배회하게 되고 따라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덤 근처에서는 영혼의 유령 같은 형상을 볼 수 있는데 이 영혼은 떠날 때 순수하지 못했고 오히려 시각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야.

이런 영혼은 좋은 영혼이 아니라 나쁜 영혼임에 틀림이 없어. 이러한 영혼은 기왕의 악한 생활에 대한 벌을 받기 위해 그런 곳을 배회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영혼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는 육체적인 것을 갈망한 나머지 결국은 다른 육체에 갇히게 될 때까지 이 영혼은 방황을 멈추지 않게 되네. 그리고 전생에서 가졌던 것과 똑같은 성질을 가진 감옥을 다시 찾아낸다고 생각할 수 있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음식을 탐내고 방탕하고 술을 좋아해서 이러한 것을 피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들은 나귀나 그러한 종류의 짐승이 된다는 것이야.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그리고 부정이나 독재나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리나 독수리나 술개가 될 거야.

철학을 연구하지 않은 까닭에 전적으로 순수하지 못한 영혼은 육체를 떠나서 신과 함께 있지 못하며, 오직 애지자만이 신과 함께 있을 것을 허락받네.

『파이돈』

▶ 플라톤의 윤회에 대한 관점은 수능과 평가원에 출제될 확률은 낮다. 그렇지만, 플라톤이 영혼과 육체가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 어떤 견해를 보였는지 확인하는 의미에서 인용한다. 그리고 플라톤은 모든 인간이 죽은 뒤 이데아의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했던 철학자(지혜를 사랑하는 애지자)만이 이데아의 세계에서 진리를 깨닫게 된다고 본다.

태어나기 전에 영혼이 존재했을 뿐 아니라, 어떤 영혼은 살아남아서 죽은 다음에도 계속 존재할 것이며, 다시 태어났다 다시 죽을 것이며, 영혼에는 여러 번 다시 태어나는 것을 견뎌낼 만한 자연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

영혼의 불멸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영혼의 불멸을 설명할 수 없다면 인간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

『파이돈』

- ▶ 플라톤의 영혼 불멸설과 태어나기 이전에 '이데아의 세계'에 있던 영혼이 태어난 이후에 육체라는 감옥에 갇힌다는 죽음관은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육과정 수준 内の 개념이다. 확인해둘 것.

3-3. 심화 분석 특강

상례는 어려운 주제는 전혀 아니에요. 다만 개정 교육과정에서 소홀하게 다뤄지던 주제여서 따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주제죠.

그래서 많이 낯설 수는 있어요. 간단한 내용이니깐 같이 딱 한 번만 공부하면 수능까지 걱정 없을 것이에요. 같이 공부해봐요~^^.

개정 전 교육과정인 ‘2011년 교육부 검정’ 생활과 윤리에서는 관혼상제라는 전통 예식이 모두 문항으로 출제되었다. 그러나 ‘2013 교육부 검정’ 생활과 윤리에서는 관혼상제의 비중이 대폭 줄어들었다. 혼례와 상례의 서술 비중이 줄어들었고, 관례나 제례 등은 교육과정에서 삭제되었다.

마더텅 기출문제집 등 대부분의 기출 문제집들에서는 관례, 상례, 제례와 관련된 기출 문항들을 ‘구교육과정’이라고 하여 교재에 신지 않았다. 덕분에 현재 수험생들은 관례, 상례, 제례를 공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상례는 현 교육과정에 존재하며, 2019학년도 대비 생활과 윤리 『수능특강』에도 출제되었다. 수능이나 평가원에 상례가 출제된다고 해도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겠지만, 상례가 무엇인지 알고는 있어야 한다. 또한 예전에 출제 당시에 은근히 학생들이 낡이곤하는 낡시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었다. 따라서 수능 전에 1번 정도 정리하면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 칼럼을 1번 읽고 확인하는 정도면 충분하다. 이 이상으로 공부할 필요는 없다.

[교과서와 EBS에서 다루는 ‘상례’]

‘모든 문화권에서는 다양한 상례를 통해 죽음 사람을 애도한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이 삶의 마지막 순간인 죽음의 과정에서도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다. (...)’
『미래엔 생활과 윤리 교과서』 49p

34p 왼쪽 날개의 상례의 정의

상례: 사람이 마지막으로 통과하는 관문인 죽음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의식
『수능 특강 생활과 윤리』 34p

-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한 사람이 유명을 달리하면 마을 구성원 모두가 가족을 잃은 슬픔을 함께 나누며 죽은 사람을 추모하는 상례를 치렀습니다.
- 제 1부: 조문(정성을 다해 위로하다.)은 상주의 슬픔을 달래고 고인의 명복을 비는 일이다. 망자와의 이별을 슬퍼하면서 용서와 화해를 하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
- 제 2부: 발인(슬픔을 나누어 짊어지다.)은 망자를 생전 살던 집에서 묘소로 모시는 과정이다. 망자의 길을 배웅하고 상주의 슬픔을 나눈다.
- 삶의 가치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는 의식이다.
- 인간에 대한 존중을 죽음 이후까지 표현하는 의식이다.
- 다양한 의식을 통해 죽은 자와 산 자 모두를 위로하는 의식이다.
- (해설) 상례는 죽은 사람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떠나보내는 의식이다.
- (해설) 상례는 사람이 태어나서 마지막으로 통과하는 관문인 죽음을 정중히 모시는 의식이다.
- (해설) 상례는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여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의식이다.
- (해설) 상례는 죽은 사람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의식이다.
- (해설) 상례는 죽은 사람의 명복(저승에서의 복)을 기원하고 산 사람의 슬픔을 달래 주는 의식이다.
- (해설) 상례는 죽은 자를 추모하는 의식으로 혈연 관계의 연장이며, 가족을 잃은 슬픔을 공동체가 함께하는 사회적 의식이다.

『수능 특강 생활과 윤리』 42p, 해설지 15p

[상례의 낚시 포인트]

수특 42p의 오답 선지: ㄴ. 죽은 자와의 관계를 **끝맺는(X) 개인적인(X)** 의식이다.

상례에서 낚시에 걸릴만한 포인트는 두 가지다.

- ①. 상례는 산 자와 죽은 자의 관계를 이어나가는 의식이다. 상례를 한다고 해서 남은 가족과 돌아가신 분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
- ②. 상례는 가족과 이웃, 지인 등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의식이다. 개인적인 의식이 아니다.

[개정 전 교과서에서 다룬 상례]: 제례 부분은 무시하면 된다.

효는 부모에 대한 자식의 공경을 기초로 하며,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정신적으로 부모의 뜻을 계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부모나 조상이 돌아가셨더라도, 상례와 제례를 통하여 자식과 자손에 의해 추모됨으로써 부모나 조상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이어지며, 자손과 후손을 통하여 지속된다. (...)

상례와 제례는 죽은 사람과 살아 있는 사람과의 관계맺음의 대표적인 의식이다. 상례와 제례 의식을 통하여 후손은 자신의 삶을 보다 도덕적으로 만드는 공부를 한다. 돌아가신 조상이 남겨 준 정신적 유산을 계승하고, 돌아가신 조상에게 형욕에 대한 바른 사랑의 예를 치름으로써, 타인에 대한 바른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한 덕을 수양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 공자는 “살아 계시면 예로써 모시고, 돌아가시면 장사 지내고, 예로써 제사 지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귀신을 잘 섬기고자 하고 죽음을 알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상례나 제례조차도 귀신과 죽음의 문제가 아닌 삶의 문제이며 살아 있는 사람의 사랑과 도덕의 문제로 여긴 것이다.

『천재교육 생활과 윤리 교과서』 98p~ 99p

[개정 전 교육과정 기출 문제에서 다루는 상례 +해설]

상례 문제

*2015학년도 9월 평가원

다음 가상 편지에 제시된 전통 의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00에게

자네 부친의 부고(訃告)를 접하고 눈앞이 캄캄했다네. 자네는 성복(成服)하기 전에 곡읍(哭泣)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기진(氣盡)하면 아랫사람에게 대신 곡을 하도록 하게나. 장사 지내기 전에는 정해진 때가 없이 곡을 하고, 졸곡(卒哭)한 뒤에는 아침과 저녁 두 번만 곡을 해도 된다네,...(후략)...

- ①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종적인 혈연관계가 소멸되는 의례이다.
- ② 자기 존재의 근원인 시조(始祖)를 추모하고 보은하는 의례이다.
- ③ 기성 사회로 통합되어 성인으로서의 권리를 부여받는 의례이다.
- ④ 자신에게 생명을 부여한 존재에게 효(孝)를 표현하는 의례이다.
- ⑤ 남녀가 서로 결합하여 가계(家系)를 잇겠다고 서약하는 의례이다.

*2014학년도 10월 교육청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제: 우리의 전통 의례

1. ㉠: 죽은 조상을 추모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기일(忌日)에 삼가고 절제하는 자세로 정성과 예를 다하는 의례임. (개정 전 교육과정 내용으로, '제례(제사 예식)'다.이건 무시면 됨.)
2. ㉡: 돌아가신 분을 떠나보내는 슬픔을 절도 있게 드러내는 것으로,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면서 근신하며 정성을 다해 기리는 의례임.
 - ① ㉠은 성인으로서의 의무과 권한을 부여하는 의례이다.
 - ② ㉠은 사람이 생을 마치는 상황에서 치르는 통과 의례이다.
 - ③ ㉡은 생명의 근원인 자연에 감사를 표현하는 의례이다.
 - ④ ㉡은 ㉠의 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치르게 된다.
 - ⑤ ㉠, ㉡은 삶을 도덕적으로 성찰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해설)

*2015학년도 9월 평가원

정답: ④

- ①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종적인 혈연관계가 소멸되는 의례이다. →상례를 치른 후에도 혈연 관계가 소멸되지 않아요. 상례에 대한 전형적인 낡시입니다.
- ② 자기 존재의 근원인 시조(始祖)를 추모하고 보은하는 의례이다. →(이전 교육과정에서 다룬 제례입니다. 요즘도 큰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 있죠?) 선지에서 시조(始祖)는 가문을 처음 여신 1대 조상님을 말해요. 설마 부친이 성씨의 첫 조상님은 아니겠죠? 제시문을 잘 읽어봐야 합니다.
- ③ 기성 사회로 통합되어 성인으로서의 권리를 부여받는 의례이다. →이전 교육과정에서 다룬 관례예요. 전통 사회의 성인식입니다.
- ④ 자신에게 생명을 부여한 존재에게 효(孝)를 표현하는 의례이다. →이게 정답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슬퍼하고 장례, 상례를 지내는 것은 부모님에 대한 효(孝)의 표시죠.
- ⑤ 남녀가 서로 결합하여 가계(家系)를 잇겠다고 서약하는 의례이다. → 혼례입니다. 아직 교육과정에 혼례(결혼 예식)은 남아 있어요~

*2014학년도 10월 교육청

정답: ⑤

- ㉠은 이전 교육과정인 제례예요. 제례는 현 교육과정에는 빠져있지만, 다음 교육과정에 다시 생활과 윤리 내용으로 들어옵니다. 종가집, 큰집 등에서 지내는 조상에 대한 제사 예식을 말합니다.
- ㉡은 현 교육과정에도 있는 상례입니다. 이 문항을 보는 이유죠.
- ① ㉠은 성인으로서의 의무과 권한을 부여하는 의례이다. → 관례에 대한 설명입니다.
 - ② ㉠은 사람이 생을 마치는 상황에서 치르는 통과 의례이다. → ㉡상례에 대한 설명입니다.
 - ③ ㉡은 생명의 근원인 자연에 감사를 표현하는 의례이다. → 이건 어떤 예식인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례와 무관하구요.
 - ④ ㉡은 ㉠의 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치르게 된다. → 가족의 구성원이 사망하

면 ㉔ 상례를 치룹니다. 그런데 ㉑은 예전에 돌아가신 조상님께 치르는 예식이죠. 제사를 먼저 드리고 나서 상을 치르는 건 아닙니다.(말이 안 됩니다.)

물론 어린 나이에 부모보다 먼저 죽은 죽은 자녀는 상례를 치르지 않았다는 말도 있지만,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현행 생활과 윤리 교육과정과 무관한 내용이니까 무시하면 됩니다.

㉑, ㉔은 삶을 도덕적으로 성찰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 상례와 제례의 공통점입니다. 위에 EBS 문항에서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 라는 내용이 제시문으로 출제되었죠. 참고하세요.

1) 죽음의 윤리적 의미 中 서양 사상가들의 죽음에 대한 입장

- 플라톤: 육체에 갇혀 있는 영혼이 죽음을 통해 영원불변하는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감.
- 에피쿠로스: 죽음은 경험할 수 없으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
- 하이데거: 죽음에 대한 자각을 통해 삶을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음.
- 야스퍼스: 죽음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한계 상황임.

[2019 수특 34p]

- 에피쿠로스: 가장 두려운 악인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며, 죽음이 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죽음은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 모두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산 사람에게는 아직 죽음이 오지 않았고, 죽은 사람은 이미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에피쿠로스, “쾌락”, 2019 수특 34p]

- 에피쿠로스: 죽음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에 익숙해져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좋고 나쁨은 감각에 의한 것인데, 죽으면 감각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죽음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게 되면 불멸에 대한 갈망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2019 수특 40p]

- 에피쿠로스: 현자(賢者)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삶이 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죽음도 악으로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긴 삶이 아니라 즐거운 시간을 향유하려고 노력한다.

[2018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 에피쿠로스: 삶의 목적은 절제된 생활을 통해 정신적 쾌락을 추구 하는 것입니다. 이때 쾌락이란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혼란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며, 죽은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감각을 잃어버린 상태이므로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2014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 에피쿠로스: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에 익숙해져라. 왜냐하면 모든 좋고 나쁨은 감각에 달려 있는데, 죽음은 감각의 상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죽음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올바르게 알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즐겁게 된다. 이것은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무한한 시간의 삶을 보태어 주기 때문이 아니라, 불멸에 대한 갈망을 제거해 주기 때문이다.

[메노이케우스에게 보내는 편지(2018학년도 EBS 수능완성 21p에 인용)]

- 에피쿠로스: 현자(賢者)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삶이 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죽음도 악으로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긴 삶이 아니라 즐거운 시간을 향유하려고 노력한다.

[2018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평가]

-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플라톤과 에피쿠로스는 죽음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다. 플라톤 죽음을 통해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참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에피쿠로스는 죽음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이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한편 실존주의 철학자인 하이데거는 인간은 죽음에 대한 사유를 통해 자신의 고유성을 자각하게 된다고 보았다.

[2019 수특 35p]

- 플라톤: 사유에 있어 이성의 활동에 감각을 끌어들이지 않고, 정신 자체의 밝은 빛만으로 각각의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만이 이성의 탐구 대상을 가장 순수하게 인식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즉 신체는 영혼이 진리와 인식을 얻는 것을 방해한다고 보고, 가능한 한 신체적인 것에서 벗어난 사람이야말로 참 존재의 인식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플라톤, “파이돈”, 2019 수특 34p]

- 플라톤: 사유하는 데 있어 이성의 활동에 감각을 끌어들이지 않고, 정신 자체의 밝은 빛만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만이 탐구 대상을 가장 순수하게 인식하게 된다. 즉 신체가 영혼과 관련되면 영혼이 진리와 인식을 얻는 것을 방해하므로, 신체에서 벗어난 사람이야말로 참존재의 인식에 도달할 수 있다.

[2019 수특 40p]

- 플라톤: 죽음은 육체로부터 영혼이 분리되고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영혼이 육체와 함께 있는 동안은 순수한 인식을 가질 수 없으므로, 죽음 이후에나 순수하게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2019 수특 42p]

- 하이데거의 죽음관: 죽음은 현존재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이다. 죽음이야말로 우리를 우리답게 존재하도록 만드는 것임을 뜻한다, 우리는 자신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자로 경험한다는 사실에서 여타의 동물들과 구별된다. 인간의 삶의 본성과 인간의 죽음의 본성은 서로 분리할 수 없게 얽혀 있다.

[마크 래틀, “How To Read 하이데거”, 2019 수특 35p]

- 하이데거: 죽음은 그때마다 현존재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의 존재 가능성이다. 현존재 자신은 죽음과 함께 자기의 가장 독자적 존재 가능성에 있어서 자기에게 다급하게 다가선다. 현존재의 죽음은 ‘더 이상 현존재일 수 없다’는 가능성이다. 현존재가 자기 자신의 이런 가능성으로서 자신에게 다급하게 다가설 때, 그에게는 다른 현존재에 대한 모든 교섭이 단절된다. 가장 독자적이고 몰교섭적인 이 가능성은 동시에 가장 극단적 가능성이다. 현존재는 존재 가능성으로서 죽음의 가능성을 뛰어넘을 수 없다. 그리하여 죽음은 가장 독자적이고, 몰교섭적이고, 뛰어넘을 수 없는 가능성으로서 드러난다.

[2019 수특 40p]

- 하이데거: 죽음 앞에서 인간은 어떤 다른 특정 가능성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능성 자체를 생각하게 된다. 죽음을 자기 자신의 가장 고유한 자기만의 가능성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 현존재는 본래적인 자기의 모습으로 실존할 수 있는 능력을 자각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죽음에 대한 인식과 각성이 이루어지는 순간에야 비로소 인간은 스스로 그동안 얼마나 비본래적이었는 지를 깨닫게 된다.

[2018학년도 EBS 수능완성 25p 연계]

2) 죽음의 윤리적 의미 中 동양 사상의 죽음에 대한 입장

□ 유교

- 죽음을 자연의 과정으로 여기면서도 애도(哀悼)하는 것을 마땅한 일로 여김.
- 공자: 죽음보다는 도덕적으로 실천하는 삶에 더 관심을 가짐 → 죽음이 아쉽지 않도록 도덕적으로 충실하게 살아야 함.

□ 공자: 귀신을 섬기기보다 사람을 섬겨야 하듯, 죽음에 대해 알려고 하기 보다는 현세의 삶을 잘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019 수특 41p]

□ 유교: 삶도 내가 원하고 의로움 또한 내가 원한다. 이 둘을 함께 얻을 수 없다면, 의로움을 취하지 어찌 구차하게 살겠는가. 죽음도 내가 싫어하는 것이지만 죽음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죽음조차 피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2019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 유교: 아직 삶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겠는가? 일찍 죽고 오래 사는 것도 이상한 게 아니라네. 사람으로서 올바른 도리를 다하고,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마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네.

[2018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 유교: 삶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새가 죽을 때는 울음소리가 애처롭고, 사람이 죽을 때는 하는 말이 착한 법이라네. 지사(志士)는 삶을 영위하되 인(仁)을 해침이 없고,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인을 이룬다네.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유교: 사람도 잘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귀신 섬기는 일을 할 수 있겠으며, 삶도 아직 알지 못하거늘 어떻게 죽음을 알 수 있겠는가? 백성이 의롭게 되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귀신을 공경하되 멀리하는 것이 지혜로움이라고 할 수 있다.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 유교: 사람을 제대로 섬길 줄 모르면서 어떻게 귀신을 섬길 수 있으며, 삶에 대해서도 아직 제대로 모르면서 어떻게 죽음에 대해 알려하는가?

[2016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 도가

- 삶과 죽음을 기(氣)가 모이고 흩어지는 것으로 보면서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과정으로 이해함
- 장자: 삶과 죽음은 차별이 없으므로 죽음 앞에서 슬퍼할 필요가 없고, 죽음에 초연해야 함.
- 도교: 자연을 따르는 수련을 통해서 불로장생(不老長生)을 추구함.

[2019 수특 35p]

□ 도가: 진인(眞人)은 분별심으로 도를 버리지 않고, 인위로 자연을 돕지 않는다. 자연은 삶을 주어 수고하게 하고, 죽음을 주어 쉬게 한다.

[2018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 도가: 삶과 죽음은 인간의 운명[命]이니, 진인(眞人)은 삶을 기뻐하지도 죽음을 미워하지도 않네. 본래 생명도 형체도 기(氣)도 없었고, 혼돈 속에서 기가 생겨 그것이 변하여 형체가 되고 생명이 되고 죽음이 된 것이라네.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도가: 삶을 죽이고 초월하려는 자에게 죽음은 없고, 삶을 살려고 탐하는 자에게 삶은 없다. 태어나기 전의 근원을 보면 원래 삶도 형태도 기(氣)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기가 생겨서 변해 형체가 되고 삶이 되었다가 변하여 죽어 가는 것이다.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 도가: 삶과 죽음은 차별이 없는데, 어찌 그것을 근심하겠는가? 만물은 하나이나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을 신기하다 하고 추악한 것을 썩어 냄새난다고 한다. 썩어 냄새나는 것이 신기한 것이 되고 신기한 것이 다시 썩어 냄새나는 것이 되는 법이다.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 도가: 삶과 죽음은 마치 사계절의 변화와 같다. 삶을 좋아함은 미혹(迷惑)이고, 죽음을 싫어함은 타향에 안주하여 고향에 돌아갈 줄 모르는 사람과 같다.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불교

- 죽음은 생·노·병과 더불어 대표적인 고통이며, 현실의 세계로부터 벗어나 또 다른 세계로 윤회하게 됨을 의미함.
- 윤회과정에서 인간의 선행과 악행은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함.

[2019 수특 35p]

- 불교의 죽음에 대한 관점: 중생의 무리로부터 떨어짐, 오온(五蘊)의 부서짐, 생명의 끊어짐을 죽음이라 한다. 태어남이 있을 때에만 죽음이 있다. 삶의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이슬 같고 그림자 같고 번개와 같으니 그대, 마땅히 그렇게 바라보아야 한다.

[2019 수특 35p]

- 불교에서는 인간이 색(色), 수(受), 상(想), 행(行), 식(識)의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죽음은 생·노·병과 더불어 인간이 겪는 네 가지 고통의 하나이자 오온의 해체이다. 그러나 오온이 해체된다고 해서 삶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윤회의 굴레를 통해 다음 생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불교에서는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집착을 버리고 깨달음을 얻을 것을 강조한다.

[2019 수특 35p]

- 불교: 죽음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네 가지 고통은 즉 생로병사(生老病死) 중 하나이다. 그렇다고 죽음이 삶의 끝은 아니며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죽음을 통해 다른 생으로 연결된다면 생사에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현재의 삶이 이후의 삶을 결정하므로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

[2019 수특 42p]

- 불교: 이것(이)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이 있다. 이를 일컬어 인연법(因緣法)이라고 한다. 삶이 있으므로 늙음과 죽음이 있고, 삶을 떠나서는 늙음과 죽음도 없다.

[2017학년도 수학능력시험]

- 불교: 중생들의 무리로부터 떨어짐, 오온(五蘊)의 부서짐, 생명의 끊어짐을 죽음이라 한다. 태어남이 있을 때에만 죽음이 있다. 삶의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이슬 같고 그림자 같고 번개와 같으니 그대, 마땅히 그렇게 바라보아야[觀] 한다.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 불교: 무명(無明)에 가려진 중생들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서로 오가는 것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四聖諦]를 모르기 때문이다.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장자: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태어날 때를 만났기 때문이며, 이 세상을 떠난 것은 떠나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늘(자연)이 정해준 때를 마음 편히 여기고 운명에 순응하면 슬픔과 즐거움이 끼어들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경지를 옛사람들은 천제(天帝)가 준 생사의 고(苦)에서 벗어난다고 하였다.

[장자, “장자”, 2019 수특 35p]

- 장자는 죽음을 자연의 한 순환 과정으로 보았으며, 그러한 자연의 본성에 순응하고 삶을 달관할 때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하였다.

[2019 수특 35p]

- 장자: 기(氣)가 변해서 형체가 되고, 형체가 변해서 생명이 됩니다. 죽음은 이러한 기의 흐름과 변화의 과정입니다.

[2019 수특 41p]

- 장자: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 슬픈 일인가? 생명이란 본래 자연에서 빌린 것이니 마치 티끌과 같고, 삶과 죽음의 이치는 밤낮의 변화와 같다. 이제 우리는 그 자연스런 변화를 바라보노니, 그것이 내게 왔다고 해서 어찌 싫어하겠는가.

[2019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 장자: 지인(至人)은 무위(無爲)하다. 도(道)에는 시작도 끝도 없지만 만물에는 죽음도 있고 삶도 있다. 근본에서 보자면 삶이란 기(氣)가 모인 것이다.

[2018학년도 수능능력시험]

- 장자: 삶과 죽음은 춘하추동 사계절의 운행과 같다네. 태어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죽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니 자연을 따라가고 따라올 뿐이네. 이 경지에 있는 사람을 진인(眞人)이라하네.

[2018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 장자: 진인(眞人)은 분별심으로 도를 버리지 않고, 인위로 자연을 돕지 않는다. 자연은 삶을 주어 수고하게 하고, 죽음을 주어 쉬게 한다.

[2018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4강 생명 과학과 윤리

- 단원 소개 및 학습 가이드

개념을 깊게 공부할 필요가 없는 단원입니다. 동물 실험 관련 내용만 빠르게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 2019학년도 EBS 수능특강 n강의 특징

4-2. 피터 싱어 동물 실험

이 자료는 작년 현자의 돌 모의고사 시즌1로 출제 했던 문항과 해설입니다.

작년 수능 전까지만 해도 생활과 윤리에서 동물 실험 문항이 깊이있게 출제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동물 실험 문항이 수능에 출제되었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레건과 싱어의 동물 실험에 대한 견해가 출제될 수 있으므로 탄탄하게 대비 하길 바랍니다.

(1) 싱어의 동물 윤리 입장을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동물 실험 문제가 수준있게 출제될 경우 레건과 싱어의 환경 윤리 단위에서의 동물 윤리 입장을 올바르게 알아야 풀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문항과 해설을 꼼꼼하게 검토해보자.

<문항>

7.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동물 실험은 종차별주의의 결과다. 인간 혹은 다른 동물의 중요한 이익을 증진시킬 가망이 없는 실험들이 동물에게 가혹한 고통을 야기한다. 동물에게 실행되는 실험을 동물과 동일한 지적 수준의 뇌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가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긴급하지 않은 동물 실험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독성에 관한 모든 실험의 적절한 대안을 찾는 것은 오래 걸릴 수 있으나 가능한 일이다.



- ① 고통을 느끼는 동물에 대한 실험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 ② 모든 동물 실험을 즉각적으로 금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 ③ 확실하고 믿을 만한 대안을 찾을 수 없으므로 동물 실험은 정당하다.
- ④ 인간의 편리를 위해 동물을 희생시키는 일은 이익 평등 고려 원칙에 어긋난다.
- ⑤ 동물 실험을 통해 얻은 이익은 인간과 동물에게 동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해설>

7번 동물 실험(피터 싱어) 답: ④

출제 의도: 2013년 유럽 연합(EU)은 동물 실험을 통해 만든 화장품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인간의 이익을 위한 동물의 희생을 막으려 했다. 진보된 과학 기술로 인하여 동물 실험이 아닌 인공 조직, 인공 피부 등을 사용하여 화장품의 안정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동물을 대상으로 한 의료적, 상업적 목적의 실험을 여전히 시행하고 있다.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에서는 동물 실험의 유효성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대비하는 제시문이 출제되었다. 반면 동물 실험을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생활과 윤리’에서는 동물 실험 문항이 평가원과 수능에서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다.

2018학년도 EBS 『수능 특강』 49p에서는 싱어의 저작 『동물 해방』을 인용하여 동물 실험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 제시되었고, 52p, 53p에서는 동물 실험에 대한 비판적 관점의 문항이 출제되었다(두 문항은 쉬운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싱어의 관점과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반면, 55p에는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싱어의 입장과 동물 실험을 찬성하는 입장을 서로 비교하는 문항이 출제되었다. 동물 실험의 유용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고 찬반양론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따라서 맹목적인 ‘동물 실험에 대한 비판’은 지양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므로 양쪽 입장을 복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생활과 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학자 중 하나인 ‘피터 싱어’의 동물 실험 비판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 그 이후 2018학년도 수능에서는 레건의 입장에 가까운 입장에서 동물 실험을 비판하는 문항이 출제되었다. (정답은 칼럼의 최하단에 있습니다.)

19.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동물 실험은 꼭 필요합니다. 인간과 동물은 생물학적으로 유사하며, 동물 실험의 확실한 대안은 없습니다. 따라서 동물 실험은 정당합니다.
을: 저는 당신이 제시한 논증의 모든 전제에 대해 찬성하지만 결론에는 반대합니다. 논증에 등장하는 ‘동물’을 모두 ‘인간’으로 바꿔 보세요. 당신이 제시한 논증을 이용하면 인간 실험마저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갑: 인간 실험은 부당합니다. 하지만 인간과 달리 동물은 기본적인 권리를 갖지 않습니다. 당신의 비판은 동물도 기본적인 권리를 갖는다는 선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을: 인간은 물론 동물도 삶의 주체이므로 기본적인 권리를 갖습니다. 인간 실험과 마찬가지로 동물 실험도 부당합니다. 당신이야말로 동물의 기본적인 권리를 단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 ① 동물 실험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필요한가?
- ② 동물 실험의 대안 중 확실한 것이 존재하는가?
- ③ 인간과 달리 동물은 기본적인 권리를 갖는가?
- ④ 인간 실험과 달리 동물 실험은 정당한가?
- ⑤ 인간과 동물은 생물학적으로 유사한가?

제시문 해설

그림의 강연자는 피터 싱어로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고통 받는 동물의 해방을 주장하는 학자다. 싱어는 제시문에 서술되어 있듯, 많은 동물 실험이 ‘인간이나 다른 동물의 중요한 이익’이 아닌 상업적인 용도,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용도로 시행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러한 실험은 동물에게 과도한 고통을 가하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도 시행할 수 있다. 가

령 살아있는 동물에게 직접 실험하지 않고 그 동물의 세포 일부를 채취하여 실험한다거나 하는 대체의 방법도 있다. 따라서 제시문은 긴급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닌,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동물 실험들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피터 싱어는 긴급한 목적에 따른 동물 실험은 허용할 수도 있다고 본다. 반면 레건은 삶의 주체인 동물을 동물 실험의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에 반대한다.

제시문 출제 근거

● 피터 싱어 『동물 해방』 81p, 87p, 121p, 133p, 153p에 수록된 싱어의 주요 주장을 반영.

● 2018학년도 EBS 『수능 특강』 49p, 52p, 53p에 수록된 내용을 포괄.

● 피터 싱어 『동물 해방』 153p. 요약

만약 실험자들이 동물 사용을 정당화할 정도로 실험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동물 실험을 정당화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한다. “실험 대상 동물과 동일한 지적 수준의 뇌 장애가 있는 인간을 실험에 사용할 용의가 있는가?” (중략) 만약 실험의 중요성으로 동물 대상 실험이 정당화 된다면, 동일한 지적 수준에 있는 인간에게 고통을 야기하는 실험에도 동일한 논리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에 반대할 것이다. 왜인가? 동물과 뇌 장애 인간의 차이는 무엇인가? 한쪽은 우리 종이고, 다른 쪽은 우리 종이 아니어서인가? 그러한 차이에 근거하여 동물 실험을 옹호하는 것은 ‘종차별주의’이고, 옹호될 수 없는 편견이다.

[선지 해설]

① (X) 제시문은 ‘우리는 긴급한 목적에 필요하지 않은 동물 실험을 야 한다.’라고 말한다. 이로부터 ‘긴급한 목적에 필요한 경우 동물 실험을 허용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는 선지 ①에서 ‘동물 실험이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의 반례가 된다.

싱어는 공리주의자(18)로서 ‘절대적, 무조건적’으로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제시문은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을 할 수 있다면, 동물에게도 실험할 수 있다고 본다. 심지어 싱어는 인간에 대한 실험도 극히 드문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싱어는 공리(유용성)의 원칙에 따라 동물 실험을 일부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 싱어는 “인간의 이익이 그로 인해 생기는 동물의 손해보다 클 때에만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을 허락”(피터 싱어, 『실천 윤리학 3판』, 106p)하며, “실제 실험에서 얻는 이익이 충분히 크다면, 그러한 이익을 얻을 개연성이 충분히 높고 동물들이 겪을 고통이 충분히 작다면, 공리주의자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피터 싱어, 『실천 윤리학 3판』, 115p)라고 말한다.

선지 출제 근거

● 피터 싱어 『동물 해방』, 157p 요약

싱어는 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만약 한 사람의 희생으로 여러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이 없다면, 실험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말한다.

● 피터 싱어, 『실천 윤리학 3판』, 106p, 115p 요약

싱어는 동물 실험을 통해 생기는 인간의 이익이 그로 인해 생기는 동물의 손해보다 클 때에만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고 본다.

싱어는 동물 실험을 통해 얻는 이익이 실제로 충분히 크다면, 그리고 동물이 겪을 고통이 충분히 작다면, 공리주의자들은 동물 실험을 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② (X) 제시문에서 말하는 ‘즉각 중단’해야 하는 동물 실험은 화장품 실험과 같은 ‘긴급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실험’이다. 피터 싱어는 일부 동물 실험을 긴급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안이 없는 경우 등 몇 가지 조건에 한정하여 인정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특히 ‘동물 실험의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중단’을 주장하는 것은 일반 대중들의 정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주장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①, ② 두 선지의 해설을 통합해서 이해해보자.

선지 출제 근거

● 피터 싱어 『동물 해방』, 159p, 인용 생략

③ (X) 제시문은 ‘독성에 대한 모든 실험의 적절한 대안을 찾는 것은 오래 걸리겠지만 가능한 일’이라고 말한다. 싱어는 모든 실험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언젠가는 찾을 수 있다는 입장임을 추론할 수 있다. 이는 선지 ③에서 ‘대안을 찾을 수 없으므로’의 반례가 된다.

피터 싱어는 『동물 해방』과 『실천 윤리학』에서 도덕적 문제를 문제삼지 않고 신뢰도만 생각한다면, 동물 실험보다 확실하고 믿을 만한 대안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라고 말한다. 2017학년도 EBS 수능 특강 52p에 소개된 사례에 따르면 “탈리도마이드라는 약물은 동물 실험 결과 안전한 물질로 판명되었으나, 임신부에게 치명적인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1만여 명의 기형아를 태어나게 했다.” 실험의 대상이 된 동물과 인간은 다른 종이므로, 동물에게 안전한 것이 항상 인간에게도 안전한 것은 아니다. 만약 인간을 대상으로 그 약물을 실험 했다면, 1만여 명의 기형아 출산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실험을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실험으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왜 그러한 실험을 동물에게는 시행하는가? 제시문의 입장에 따르면 인간에게 실행할 수 없는 실험을 동물에게 적용하는 일은 ‘종차별주의’에 근거한 비도덕적인 일이다. 동물 실험보다 확실하고 믿을 만한 대안인 ‘인간 실험’이 있지만 그것이 허락되지 않는 이유와 동일하게 동물 실험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필자의 견해가 아니라 피터 싱어가 본인 저작에서 펼친 논증을 쉽게 요약한 것이다.)

선지 출제 근거

- 2018학년도 EBS 수능 특강 49p 자료 플러스의 원전 피터 싱어 『동물 해방』, 153p, 인용 생략
- 2018학년도 EBS 수능 특강 53p 7번 제시문

④ (O) 제시문은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동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동물 실험을 종차별주의의 결과라고 본다. 종차별주의란 인간의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쾌고 감수 능력)과 동물의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차별하는 것이다. 싱어는 인간과 동물의 쾌고 감수 능력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는 곧 인간과 동물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하는 것으로서, '이익 평등 고려 원칙'이라 한다.

선지 출제 근거

- 2018학년도 EBS 수능 특강 49p 변형
- 개념: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생명체를 인간의 이익, 편리를 위해서 희생시키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 자료 플러스: 싱어의 동물 실험 비판 논리는 동물의 이익을 인간의 이익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즉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을 그 근본 전제로 삼고 있다.

⑤ (X) 동물 실험을 통해 얻은 이익을 동물에게 분배한다고 해서 동물 실험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싱어는 이익을 인간과 동물이 동등하게 분배받아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참고로 싱어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이란 인간과 동물을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한다(가령, 당신이 맛있는 밥을 먹는다고 해서, 어떤 동물도 그 맛있는 밥을 먹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이란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인간과 동물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하라는 입장이다. (가령, 인간이 10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동물에게 100의 고통을 가할 경우 이는 공리주의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이 될 것이다. 종에 따른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하므로 그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선지 출제 근거

- 2018학년도 EBS 수능 특강 55p 4번 문항 선지 ④ 동물 실험 확산을 통한 이익을 인간과 동물이 동일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X)

(2) 작년 수능 오답률 2위 적중 ‘개념’

이 문항의 선지 ⑤와 그 해설에 주목해주세요.

2018학년도 생활과 윤리 오답률 2위 킬러 문항의 킬러 선지(ㄱ. A: 평등의 원리에 따라 인간과 모든 동물을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를 적중한 문항과 해설 자료입니다.

오답률 베스트

유형선택	사회탐구	생활과윤리	정답률 전체보기 +				
순위	문항	오답률	1	2	3	4	5
1	9	42%	3%	58%	15%	4%	17%
2	11	39%	6%	61%	6%	13%	12%
3	19	33%	5%	1%	24%	67%	0%
4	14	28%	12%	3%	6%	72%	4%
5	12	27%	2%	2%	5%	15%	73%

<현자의 돌 생활과 윤리 모의고사 시즌1 해설지>

⑤ (X) 동물 실험을 통해 얻은 이익을 동물에게 분배한다고 해서 동물 실험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싱어는 이익을 인간과 동물이 동등하게 분배받아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참고로 싱어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이란 인간과 동물을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한다(가령, 당신이 맛있는 밥을 먹는다고 해서, 어떤 동물도 그 맛있는 밥을 먹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이란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인간과 동물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하라는 입장이다. (가령, 인간이 10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동물에게 100의 고통을 가할 경우 이는 공리주의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이 될 것이다. 종에 따른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하므로 그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선지 출제 근거

- EBS 수능 특강 55p 4번 문항 선지 ④ 동물 실험 확산을 통한 이익을 인간과 동물이 동일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X)

▶ 현돌모 시즌1 해설지에서는 ⑤번 선지에서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이 인간과 동물을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님을 밝혔다.
이 내용이 작년 수능 오답률 2위 문항의 킬러 선지로 출제되었다.

ㄱ. A: 평등의 원리에 따라 인간과 모든 동물을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 (X) (2018학년도 수능 11번, 오답률 2위의 정답과 오답을 가른 선지)

☆ 일부 학생의 경우 위 선지에서 '모든'이 틀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쾌고감수능력이 없는 동물도 존재하므로)

그러나 해당 선지는 '모든'을 빼도 틀린 선지다.

해당 선지에서는 결정적으로 '동일하게 대우'가 틀렸다.

싱어에게 인간과 동물의 쾌고감수능력을 '평등하게 고려'하라는 것과 인간과 동물을 '동일하게 대우'하라는 것은 싱어의 윤리학에서 서로 다른 의미다.

평등 ≠ 동일 ▶ 가령, 남학생과 여학생을 평등한 존재로 대우하는 것은 맞지만 서로 '동일한 존재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

인간과 동물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 ≠ 인간과 동물을 동일하게 대우 ▶ 인간과 동물의 이익관심을 차별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인간과 동물이 같다는 것은 아니다.

(3) 나가는 글

위에서 본 것처럼, 동물 실험 문항 곧 환경 윤리의 동물 중심주의 학자 레건과 싱어의 핵심 개념을 이해하는 것과 직결된다. 따라서 동물 실험에 관한 레건과 싱어의 입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으면, 환경 윤리에 레건과 싱어가 출제되었을 때 큰 도움이 된다. 물론 반대로 환경 윤리 단원의 레건과 싱어의 입장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동물 실험 윤리 문항을 맞추는 데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위 문항, 해설, 기출 문항 등을 자세히 읽어보도록 하자.

cf) 이 칼럼을 학습한 뒤 EBS 수능특강의 56p 5번 피터 싱어의 문제를 풀어보자.

*작년 수능 19번 정답: ④

4-3. 우생학 비판(요나스)

*‘요나스의 생명 윤리’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시도를 우생학이라 합니다. 이 내용은 기출 문제에 주로 ‘제시문 독해’ 문항으로 출제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19학년도 대비 EBS 『수능특강』 52p 3번 문항과 57p 7번 문항(갑)에는 이론 규범 윤리 학자 中 책임 윤리의 ‘요나스’가 유전자 조작을 비판한 내용이 출제되었습니다. 두 문항을 조합하면 2016학년도 수능 3번 문항에서 하버마스가 우생학을 비판한 것과 매우 유사한 문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버마스 문항에서는 치료 목적 우생학이 아니라 유전자 개량을 위한 적극적 우생학을 비판하는 내용이 출제된 반면, 요나스 문항으로 볼 수 있는 『수능특강』 57p 7번 문항에서는 ‘유전자 조작’ 자체를 반대하며, 어떤 경우에도 인간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변형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유전자 조작’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본 후, 요나스의 유전자 조작 입장을 요나스 원전 『기술, 의학, 윤리』를 인용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교과서와 수능특강, 기출 문제의 ‘우생학 비판’

가. 우생학(하버마스X)

(1) EBS 『수능특강』 51p 우생학의 구분:

우생학은 '향상된 양육을 통해 인간의 유전체를 개선하는 학문', '사회적 통제하에 다음 세대 인류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저하시키는 작인에 대한 연구'

(가) 소극적 우생학

① 나쁜 형질의 유전을 최소화하는 노력

(나) 적극적 우생학

① 좋은 형질의 유전을 극대화하려는 노력

(2) EBS 『수능특강』 55p 기본문제 4번

(가) 유전자 조작 기술의 발달로 태어날 아이가 부모의 뜻에 따라 우수한 체형과 두뇌를 지니도록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신체나 두뇌를 부모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 조작 결과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3) EBS 『수능특강』 57p 실전문제 7번

(가) 갑:(요나스로 볼 수 있는 입장_유전자 조작 전적으로 반대) 과학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인간 유전자 조작을 통한 질병의 예방과 종의 개선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인간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변형하는 것을 허용하면 안 된다. 유전자의 조작과 변형은 미래 세대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며 개입의 결과가 미래 세대에게 이익이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나) 을(적극적 우생학만 반대) 인간 유전자 조작에서 예방적 조작과 개량적 조작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 한 개체를 본질적으로 뒤바꾸는 개량적 조작, 즉 완벽한 외모나 뛰어난 두뇌 등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소극적으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작은 미래 세대에 대한 권리 침해가 아니라 복지 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허용되어야 한다.

나. 비상교육 72~73p

(1) 유전자 조작 식품(GMO)

(가) 유전자 조작 농산물이 인간의 건강과 생명에 안전한지에 대한 우려 제기: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나) 유전자 조작 생물은 환경과 생태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내성 해충 잡초 출현 가능성, 생태계 교란)

(다) 유전자를 조작한 생물에 대한 특허, 독점권, 거대 자본을 가진 국가나 기업의 독점,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식량 안보 위협 가능

다. 미래엔 65~66p

(1) 복제 인간

(가) 복제 인간은 존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만들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을 도구로 전락시킨다.

(2) 유전자 조작 식품(GMO)

(가) 생태계 질서 근본적으로 파괴: 유전자 조작으로 특정 유전자만 가진 개체만 남고 그 외 다른 개체가 사라지면 생태계의 순환과 생물의 상호 의존성, 생물의 다양성 등이 파괴될 수 있다.

라. 교학사 73p

(1) 인간 유전자

(가) 인간 유전자에 관한 정보를 투자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인간을 수단으로 간주하는 풍토를 확산시킬 수 있다.

(나) 유전자 조작을 통해 인간 개체를 변형시켰을 때 정체성의 혼란도 우려된다.

마. 하버마스 기출

하버마스 수능 기출 문제 제시문:

유전자 조작의 허용에 대한 논쟁에서 그동안 간과한 것은, 치료 목적이 아닌 의도적인 유전자 개입이 인간을 도구화할 뿐만 아니라 자율적 삶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약한다는 점입니다. 기계를 마음대로 조작하듯이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하게 되면, 그렇게 통제되어 태어날 인격체는 다른 자율적 인격체와 달리 원초적으로 동등하지 못한 채로 공론장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적극적 우생학이 지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담론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만 합니다.

하버마스 옳은 선지:

(1) 유전자 조작의 문제점을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2) 치료 목적 외의 유전자 개입은 잠재적 담론자의 평등을 제한한다.

(3) 적극적 우생학은 인간관계를 기계적 인과관계로 왜곡 시킨다.

(4) 적극적 우생학을 위한 연구는 인간관계를 기계적인 인과관계로 왜곡시킨다.

2. 요나스의 사상

요나스는 미래 세대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보는 학자입니다. 그는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 변형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생명 희생은 비윤리적: 유전자 조작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생명이 희생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유전자 조작 기술을 개발 과정에서는 인간의 생식세포, 배아 등이 수없이 희생됩니다. 요나스는 살아있는 생명(특히 인간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실험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허용될 수 없으며, 지속되지 않는 것이 좋으며, 거부할 수 있다고** 봅니다.

② 미래 세대 권리 침해: 미래 세대가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날지를 현세대의 인간이 미리 결정한다면, 그 결정에 **미래 세대는 참여할 수 없으므로 미래 세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좋은 유전자'를 현세대의 기준으로 정하는 것도 미래 세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어떤 유전자가 좋은 유전자일지는 한 세대 내의 선호에 따라 결정되는 요소가 있으므로)

③ 미래의 예측 불가능성과 불가역성: 생물학은 과학 기술자들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유전자의 발현과 진화에 대한 지식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지'의 영역을 무시한 채로 유전자 조작 실험을 할 경우 그 결과는 미지수로 남습니다. 불확실한 예측은 일종의 도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작, 변형한 인간의 **유전자는 '불가역성'을 지닙니다.** 한 번 조작, 변형한 유전자는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유전자 조작, 변형의 결과가 안 좋을 경우 수정할 수 없습니다. 요나스의 '공포의 발견술'에 따르면 우리는 **유전자 조작, 변형이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전자 조작, 변형은 옹호될 수 없습니다.

④ 인류 존속 위협: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쓸모없어 보이는 유전자들이 집단의 유전자풀에 들어 있는 것, 즉 **'생물학적(유전적) 다양성'**을 지키는 것이 인간 종의 번성과 존속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유전자 조작, 변형'을 통한 **유전자의 획일화**는 인류의 존속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절대 용납될 수 없을 것입니다.

3. 요나스의 우생학 비판 문항 분석

갑:(요나스로 볼 수 있는 입장_유전자 조작 전적으로 반대) 과학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인간 유전자 조작을 통한 질병의 예방과 종의 개선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인간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변형하는 것을 허용하면 안 된다. 유전자의 조작과 변형은 미래 세대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며 개입의 결과가 미래 세대에게 이익이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 제시문의 내용은 다음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 ① 유전자 조작 허용X: 인간의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작, 변형하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
- ② 미래 세대 권리(자유) 침해: 인간의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작, 변형하는 것은 미래 세대의 자유에 대한 침해다.
- ③ 예측 불가능성: 인간의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작, 변형할 경우 그 결과가 미래 세대에게 이익이 될지 알 수 없다.

4. 요나스의 『기술, 의학, 윤리』 원전 선별 읽기

이번에는 위 3.에서 정리한 요나스의 입장들을 요나스의 원전 『기술, 의학, 윤리』를 인용하여 생생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위 3.의 내용을 이해했다면, 앞으로 나올 제시문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편하게 읽으면 됩니다.

인간에 대한 생물학적 통제라는 특수한 경우와 관련하여 이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능력을 능숙하게 발휘하기 전에 그것의 사용을 검토해 보라는 명령을 내린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예측 가능한 결과는 인간이 일단 소유하게 된 능력의 극단적 타락 가능성을 고려하여 특정 능력은 아예 발휘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러한 능력을 지향하는 연구들은 지속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충고를 우리에게 해준다.

(...) 이 능력은 오직 살아있는 ‘재료’를 대상으로 한 진짜 실험을 통해서만 획득되는 것이라면, (...) 그러한 능력의 사용은 아예 허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줄지도 모른다. (...) 우리는, 설사 어떤 생물학적 기술에서 기대되는 열매가 긍정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의 획득을 충분히 거부할 수 있다.

▶ 살아있는 생명체를 대상으로 한 실험을 통해서만 인간에 대한 유전자 조작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기술은 극단적 타락 가능성, 즉 인류에 큰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은 발휘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연구를 지속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그러한 기술은 허용될 수 없으며, 거부할 수 있다.

예측 가능성의 문제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 생물학 '기술자'에게는 전체 계획이 미지수로 남는다. 왜냐하면 그는 기존의, 부분적으로 숨겨져 있는 유전자의 자기활동성을 '아무런 검토도 거치지 않고' 받아들여야만 하기 때문이다. '계획'의 대부분은 자기 자신에 의해 수립된 것이 아니며, 따라서 미지의 무규정적 영역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생물학적 기술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할을 이러한 미지의 X에 전적으로 맡기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전체로서의 그것이 가지고 있는 운명에 대한 예측은 어렵짐작으로 제한되고, 대부분의 계획은 일종의 도박을 의미하게 된다. (...)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나타나는 그러한 실험의 최종 결과는 일반적으로 실험자 자신에 의한 확인을 떠나 있다.

▶ 요나스는 생물학적 조작, 유전자 조작은 과학 기술자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책임질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고 본다. 따라서 유전자 조작에 반대한다

이 때 실험의 시작과 끝 사이에 놓여 있는 것은 개인 혹은 전체 인류의 생명이다. (...) 여기서 우리는 유기체적 과정을 기계적 과정과 구별되게 해주는 불가역성이라는 속성을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다. 기계적 구성에서는 모든 것이 가역적이다. 그러나 유기체의 구조 변경은 불가역적이다. (...) 생물학적 행위는 매 단계마다 확정적이다. 그 결과가 가시화되었을 때 수정하는 것은 이미 늦다.

▶ 요나스는 유전자 조작 기술은 전체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기술이라고 비판한다. 특히 유전자 조작 등 생물학적 조작 기술은 기술이 적용되어 유기체의 구조가 변경된 이후 다시 되돌리거나 수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가역성'의 문제를 가져온다.

이 권력은 분명히 장차 태어날 자들에 대한 권력이다. 이들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계획과 결정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대상이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이면에는 먼 훗날의, 죽은 자들에 대한 산 자들의 예측이 놓여 있다. 여기서 행해지는 권력은 극히 일방적이다. 권력에 노출된 인간 주체들 쪽에서의 힘의 대응은 전혀 없다. 왜냐하면 이들은 다름 아닌 이 권력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권력의 산물로서의 인간 주체들의 모든 행위는 그것을 다스리는 권력이 부과한 규칙을 따를 뿐이다. (...) 일단 행사된 권력은 주인의 손을 떠나 자기의 고유한, 계산 불가능한 길을 걸어 간다. 완벽한 분석과 예측을 거부하는 생명체의 복잡한 미로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 제기되는 물음은 미래의 인간을 이런 식으로 미리 결정할 권리를 도대체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 현세대가 미래 세대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는 없다. 유전자 조작 기술로 이미 결정된 운명속에서 살 미래 세대는 이미 벌어진 되돌릴 수도 없는 일이므로(불가역성), 이전에 벌어진 유전자 조작에 대응할 수도 없다. 요나스는 유전자 조작은 곧 현세대가 죽은 이후에도 미래에 산 사람들을 예측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한다.

소극적 우생학

(...) 윤리학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 열등 유전자를 제거하려 드는 시도는 이미 유전자의 성분 전체에 대한 조작과 변형을 수반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작과 변형은 종에 대한 영향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개체에 대한 포기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 생물학적 과학 기술을 이용하여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제거하려는 소극적 우생학도 ‘바람직하지 못한 유전자’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생물학적, 의학적, 윤리적 문제들을 지니므로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적극적 우생학

종의 개선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계획적으로 인간을 선별하는 **적극적 우생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으로부터 오래지 않은 과거에 독일에서 행해진 끔찍한 실험에 대해 짚막하게나마 언급해 볼 필요가 있다. (...) 실제로는 개별 표현형의 우수한 특성에 매달릴 뿐이다. 유전자 안에 비가시적으로 숨어있는 까닭에 기껏해야 **불투명한 예감**을 통한 연구가 가능할 뿐인 모든 것은, 아무런 검토도 거치지 않은 채 수용될 수밖에 없다. **먼 후대에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취향의 변화로 인하여 어떤 표현형이 새롭게 선택될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다. 낱알의 유전자 ‘지도’를 그려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연구의 절차는 **주관적 환상과 맹목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없게 된다.** (...) 도 대체 **누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표본의 우수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문제로 남게 된다.

▶ 요나스에 따르면 적극적 우생학 연구는 ‘불투명한 예감’에 좌우되는 것으로, ‘전혀 알지 못하며’, ‘환상과 맹목’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적극적 우생학 연구’는 어떠한 유전자를 ‘우수한 유전자’로 판단하여 남기고, 어떤 유전자를 ‘열등한 유전자’로 판단하여 제거할지를 판단할 합당한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

cf) 어떤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그 유전자의 특성이 모두 발현되는 것은 아니다. 한 개체가 지닌 유전자의 일부가 발현되고, 그것을 ‘유전자의 표현형’이라고 한다. 어떤 조건에서 어떤 유전자들이 있어야 어떤 표현형이 발현되는지는 현대 과학으로 밝혀내지 못한 미지의 영역이다. 그런데 불완전한 지식을 기반으로 인간의 유전자를 선택하고, 제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요나스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표준화, 종의 유전적 다양성

표준화 자체가 과연 바람직한가? (...) 생물학자들은 한 집단의 유전적 다양성의 확보가 지니는 생물학적 장점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한다.(유전적 다양성의 확보는 현재 ‘쓸모없는’ 특성들이 미래에는 새로운 선별조건을 통해 적응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표준화는 일시적 선호에 따른 성급한 규정을 통해, 규정되지 않은 미지의 영역을 제거해 나갈 것이다 (...) 그것[표준화, 적극적 우생학]은 필경 **근시안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근시안적 성격은 (...) 대개의 경우 위험을 그 대가로 지불하고야 만다. (...) 인간을 사육하려는 시도는 오만불손할 뿐만 아니라, 멍청하고 **무책임한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시도는 기껏해야 웃음거리가 되거나, **잘못될 경우에는 큰 불행을 초래**하게 된다. (...) 이처럼 적극적으로 유전적 완벽함을 지향하는 가운데 계획되지 않은 것을 계획된 것으로 바꿔치려는 모든 시도는 우리에게 어떠한 안전도 보장해 주지 않는다.

▶ 요나스는 적극적 우생학 기술은 근시안적인 것이며, 무책임하고, 큰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본다. 따라서 적극적 우생학을 비판하고 반대한다.

1) 동물 실험에 비판적인 관점의 사상적 근거

□ 싱어: 만약 어떤 존재가 고통을 느낀다면, 그와 같은 고통을 고려하지 않으려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평등의 원리는 그 존재가 어떤 특성을 갖건 그 존재의 고통을 다른 존재의 동일한 고통과 동등하게 취급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어떤 존재가 고통을 느낄 수 없거나 즐거움이나 행복을 누릴 수 없다면, 거기에서 고려해야 할 바는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꽤 고 감수 능력은 다른 존재들의 이익에 관심을 가질지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우리가 옹호할 수 있는 유일한 경계가 되는 것이다.

[싱어, “동물 해방”, 2019 수특 50p]

□ 싱어: 사람들은 동물 실험이 중요한 의학적 목표에 기여하고 있으며, 실험이 만들어 내는 고통보다 덜어 주는 고통이 더욱 크기 때문에 실험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동물들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뇌가 손상된 인간들은 가지고 있는 도덕적 특성은 없다. 따라서 동물과 동등하거나 더 낮은 감정, 의식, 감수성 등을 갖는 인간을 실험에 사용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에 동물에게 실험을 하는 것은 언제나 자기 종족의 선호라는 편견을 드러내는 것이다.

□ 불교의 역지사지는 인간 종뿐만 아니라 인간 이외의 종도 포함한 모든 생명체, 즉 감각을 느낄 수 있어서 고통을 회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모든 생명체에게 예외없이 적용된다. 일차적으로는 고통에 대하여 어떤 종보다도 섬세하게 반응하는 인간 종, 다음으로는 인간과 거의 같은 정도로 육체적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동물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원칙적으로 식물 또한 역지사지의 대상일 수 있다. 그들 또한 성장 욕구를 갖는다고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붓보다는 풀 나무뿐만 아니라 씨앗에 이르기까지 상해하지 말라고 한다.

[안옥선, “불교의 선악설”, 2019 수특 50p]

□ 오랫동안 동물 실험은 인체 실험을 대신해 시행되어 왔으며 오늘날도 시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동물도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하며 동물을 도덕적 고려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9 수특 50p]

5강 성과 사랑의 윤리

- 단원 소개 및 학습 가이드

'성과 사랑의 윤리' 단원에서는 킬러 문제가 출제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프롬, 보부아르, 밀 등 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각 학자들의 주장을 EBS 제시문을 통해서 확인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의 제시문 선별 자료를 2~3번 정도 반복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 에리히 프롬

□ 사랑의 의미

-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 에리히 프롬: “사랑은 적극적인 과정이자 끊임없이 학습하고 노력하여 개발되는 기술” → 진정한 사랑은 보호, 책임, 존경, 지식의 가치를 포함해야 함

[2019 수특 58p]

- 서로 전혀 모르고 지냈던 두 사람이 그들 사이에 놓여 있던 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하게 될 때, 이러한 합일의 순간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유쾌하고 흥미 있는 경험 중의 하나일 것이다.

특히 고립되어 사랑 없이 지내던 사람들에게는 더욱 멋지고 기적적인 경험이 될 것이다. 갑자기 친밀해지는 이 기적은 특히 성적 매력과 성적 결합에 의해 주도되고 이와 결합될 때 더욱 촉진되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사랑은 그 성격상 지속적이지 못하다. 두 사람이 점차 친숙해지면 그들의 친밀감으로 인해 발생했던 사랑의 기적적인 특성은 서서히 사라지게 되고, 마침내 서로에 대한 적대감과 실망감, 그리고 권태감으로 인해서 최초의 흥분은 흔적조차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처음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

사랑의 실패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실패의 원인을 살펴보고 사랑의 의미를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 때 해야 할 첫 번째 작업은 삶이 하나의 기술이듯 사랑도 기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중략)... 사랑의 능동적인 성격은 사랑이 모든 형태의 사랑에 공통되는 기본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요소들은 보호, 책임, 존경, 지식이다. 이 네 가지 요소는 상호 의존적이며 자신의 내적인 힘에 바탕을 둔 겸손을 깨우친 성숙한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일련의 태도이다.

[에리히 프롬. “사랑의 기술”, 2019 수특 59p에 인용]

- 프롬은 성적 매력과 성적 결합에 의해 주도된 사랑은 지속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는 사랑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사랑의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은 삶이 일종의 기술인 것처럼 사랑도 기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기술을 배울 때 거쳐야 하는 과정을 이론의 습득, 실천의 습득으로 나누었다. 그는 사랑의 이론 과정에서는 보호, 책임, 존경, 지식을 제시하였고, 사랑의 기술 실천 과정에서는 훈련, 정신 집중, 기술 습득에 대한 최고의 관심, 인내를 제시하였다.

[2019 수특 59p]

□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의미

- 보호: 사랑하는 존재의 생명과 성장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보호하는 것
- 책임: 사랑하는 존재의 정신적 요구에 대한 나의 반응(배려)으로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 존경: 사랑하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 존재가 자기 자신의 방식대로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바라는 관심을 갖는 것
- 지식: 사랑하는 존재에 대해 잘 아는 것. 보호와 책임은 지식에 의해 인도되지 않으면 맹목적인 것이 되기 쉬움

[2019 수특 59p]

- 사랑의 실패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실패의 원인을 살펴보고 사랑의 의미를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때 해야 할 첫 번째 작업은 삶이 하나의 기술이듯 사랑도 기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랑의 기술에는 보호, 책임, 존경, 지식이 있다. 이 네 가지 요소는 상호 의존적이며 자신의 내적인 힘에 바탕을 둔 겸손을 깨우친 성숙한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일련의 태도이다.

[2019 수특 64p]

- 서로 모르고 지냈던 두 사람이 하나가 된 순간은 유쾌한 경험 중 하나일 것입니다. 특히 이 경험은 성적 매력에 의해 결합될 때 더욱 촉진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사랑은 그 성격상 지속적이지 못합니다. 두 사람이 점차 친숙해지면 권태감으로 인해 최초의 흥분은 흔적조차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포기할 수 없기에 우리는 삶이 하나의 기술이듯 사랑도 기술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사랑의 능동적인 성격은, 사랑이 모든 형태의 사랑에 공통되는 기본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보호, 책임, 존경, 지식으로, 우리는 성숙한 사람에게서 그것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19 수특 65p]

- 사랑은 본래 ‘주는 것’이다. 시장형 성격의 사람은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한 교환의 의미로만 주어야 한다고 본다. 비생산적인 성격의 사람은 주는 것을 가난해지는 것으로 생각해서 대부분은 주려고 하지 않는다. 다만 어떤 사람은 환희의 경험보다 고통을 감수하는 희생이라는 의미에서 사랑을 주는 것을 덕으로 삼는다. 그들은 모두 사랑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 생산적인 성격의 사람은 사랑을 주는 것이 잠재적인 능력의 최고 표현이며 생산적인 활동이라고 본다. 이것은 상대방의 생명과 성장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책임지는 것이며, 착취 없이 존경 하는 것이다.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삶이 일종의 기술인 것처럼 사랑도 기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사랑은 상대에게 응답할 수 있고 응답할 준비가 갖추어져 있다는 뜻이다. 사랑은 인간 존재를 타인과 결합시키는 능동적인 능력으로, 인간의 고립감을 극복하게 하면서도 각자 자신의 통합성을 유지시킨다. 따라서 사랑에 있어서 두 존재는 하나로 되면서도 둘로 남아있다.

[2016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4) 보부아르 제2의 성

- 여성은 남성의 권위를 받아들이도록 배웠다. 그러므로 그녀는 자신을 위하여 비판하고 검토하고 판단하는 것을 단념하고 있다. 그녀는 자신보다도 우월한 계급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다. 그래서 남성의 세계는 여성에게 초월적 현실, 하나의 절대처럼 보인다. 프레이저가 말하고 있듯이, “남성은 신(神)들을 만들고, 여성은 그 신들을 숭배한다.” 남성들은 자기들이 만든 우상 앞에서라도 전적인 확신을 가지고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여성들은 길에서 거대한 조상(彫像)들을 만날 때, 그녀들은 그것들이 어떠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공손히 옆드려 머리를 조아린다. [시몬 드 보부아르 “제2의성”, 2019 수특 60p에 인용]

- 아주 어렸을 적부터 여자아이가 남자 형제들과 같은 요구, 같은 존경, 같은 엄격성, 같은 자유로 양육되고, 같은 공부, 같은 유희에 참여하고, 그녀가 보기에 명백히 평등하게 생각되는 그런 여자와 남자에게 둘러싸여 있었다면, ‘거세 콤플렉스’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의미는 근본적으로 수정될 것이다. 어머니가 부부 생활의 물질적·정신적 책임을 아버지와 똑같은 자격으로 감당한다면 어머니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에 대하여 영속적인 권위를 가질 것이다. 아이는 어머니의 주위에서 남성적 세계가 아니라, 남녀 양성적 세계를 느낄 것이다.

[시몬 드 보부아르 “제2의성”, 2019 수특 60p에 인용]

- 여자는 모든 인간과 마찬가지로 자주적이고 자유로운 존재이면서도, 남자들이 여자들로 하여금 타자로서 살도록 강제하는 세계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여자의 비극이란, 부단히 본질적인 것으로서 자기를 확립하려는 모든 주체의 기본적인 욕구와, 여자를 비본질적인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상황의 요청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다.

[시몬 드 보부아르 “제2의 성” (2018학년도 EBS 수능특강 60p에 인용)]

- 보부아르가 살던 당시 여성들은 단순한 성적 대상 또는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취급받았다. 남성은 '주체'이자 '절대'이지만 여성은 '객체' 또는 '타자'로 인식되어,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남성들의 시각과 가치에 따라 살아가야만 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보부아르는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말을 통해 여성 역시 자유롭고 주체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남성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2019 수특 60p]

- 아주 어렸을 적부터 여자아이가 남자 형제들과 같은 요구, 같은 존경, 같은 엄격성, 같은 자유로 양육되고, 같은 공부, 같은 유희에 참여하고, 그녀가 보기에 명백히 평등하게 생각되는 그런 여자와 남자에게 둘러싸여 있었다면, '거세 콤플렉스'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의미는 근본적으로 수정될 것이다. ... (중략) ... 사내아이에게 '우월 콤플렉스'를 불어넣어 주지 않고, 여자를 남자와 동일시하는 습관을 심어 준다면 그는 자발적으로 우월감을 갖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자아이는 나르시시즘이나 꿈속에서 보람 없는 보상을 찾지도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기를 주어진 운명적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기가 '하는' 것에 흥미를 가질 것이며, 자기의 기획(企劃)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2019 수특 64p]

- 남성에게 부양되고 있는 여성은 수중에 투표용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남성에게서 해방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풍습이 여성에게 옛날만큼은 구속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런 소극적인 허용으로는 여성의 처지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는 것이다. 여성이 남성과의 거리를 대폭적으로 뛰어넘는 것은 노동에 의해서이다. 여성에게 구체적인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도 노동 외에는 없다. 여성이 남성에게 의존하며 살아가지 않게 되면 여성의 의존성을 토대로 하여 세워진 제도는 붕괴되며, 여성과 세계 사이에 남성의 매개가 더는 필요치 않게 된다. 종속자로서의 여성은 나르시시즘이나 사랑이나 종교를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절망적으로 추구하려 하지만, 생산적이며 활동적인 여성은 자기의 초월을 다시 회복한다. [2019 수특 67p]

5) 양성평등에 대한 밀의 입장

- 지금까지 남성은 순종이 여성의 본성이라고 여성에게 가르쳐 왔지만 누구도 남녀의 본성을 알 수는 없습니다. 남성과 여성 간 지성의 차이는 사회 환경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습니다. 남성에 의한 여성의 법적 예속은 본질적으로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인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고 다양한 직업으로의 진출을 방해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능 활용 기회를 가로막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불공평하고 사회적으로는 손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여성이든 남성이든 개인의 선택은 전적으로 그 자신에게 맡겨야 합니다.

[존 스튜어트 밀, "여성의 예속", 2019 수특 61p에 인용]

- 밀은 여성 해방을 주장하며 남성에 의한 여성의 예속은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만일 여성의 본성이 남성의 본성처럼 자유롭게 성장하도록 내버려 두어진다면 남녀의 성격과 능력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누구도 한마디로 단언할 수 없다고 보고, 남녀의 차이는 자연적 능력의 차이가 아닌 사회적 환경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2019 수특 61p]

- 약한 성(性)을 강한 성에게 전적으로 예속시키고 있는 현 제도를 옹호하는 견해는 단지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론 이외의 것으로 행해진 심판은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불평등 제도의 선택은 결코 심사숙고나 미래에 대한 고려나 어떤 사회사상의 결과가 아니며, 인간의 이익이나 사회의 선한 질서에 이로운 것에 관한 관념의 결과도 아니다. 그 관습은 인간 사회의 여명기에서부터 근육의 힘에 있어서 열등한 모든 여성이 남성들이 여성에게 부여한 가치 때문에 생겨난 것일 뿐이다.

[2019 수특 66p]

- 지금까지 남성은 순종이 여성의 본성이라고 여성에게 가르쳐 왔지만 누구도 남녀의 본성을 알 수는 없습니다. 남성과 여성 간 지성의 차이는 사회 환경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습니다. 남성에 의한 여성의 법적 예속은 본질적으로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인류의 발전을 저해 하는 것입니다.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고 다양한 직업으로의 진출을 방해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능 활용 기회를 가로막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불공평하고 사회적으로는 손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여성이든 남성이든 개인의 선택은 전적으로 그 자신에게 맡겨야 합니다.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 성 상품화에 대한 칸트의 입장

- 성(性)을 이윤 추구에 이용하는 것은 인간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2014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7강 과학 기술과 윤리

- 단원 소개 및 학습 가이드

요나스의 책임 윤리를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개념을 깊게 공부할 필요가 없는 단원입니다. 요나스 관련 내용만 빠르게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 논란 빠르게 정리하기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 가치 개입성’은 개념이 복잡하지 않다. 기출 문제도 많고 연습해 보면 금방 마스터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개념을 아직 잘 모르고, 문제도 안 풀어봤다면 어려울 수도 있다.

우선 이 칼럼에 나온 개념과 선지 OX를 통해서 가치 중립/개입 논란을 빠르게 정리하자.

이 칼럼에는 삼단논법의 신 유형인 ‘대전제 추론’ 해결 방법과 연습 문제도 넣어 놓았으니 꼭 프린트해서 직접 풀어보길 바란다.

그리고 지난 번 7-1에서 베버 제시문이 약간 배열이 잘못 된 부분이 있었는데,

새롭게 제시문을 정리하여 이 칼럼에 실어놓았으니, 이 칼럼 자료를 통해서 다시 보자.

1. 기본 개념

(1)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 인정 (EBS 수능특강 80p)

- 과학 기술 그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님
- 과학 기술은 객관적 관찰과 실험에 근거하기 때문에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수 없음
- 과학 기술은 가치와 무관한 사실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윤리적 규제나 평가의 대상이 아님
- 과학 기술은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과학 기술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과학 기술을 실제로 활용한 사람들의 몫임

(2)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 부정(= 과학 기술의 가치 개입 인정) (EBS 수능특강 80p)

- 과학 기술도 가치 판단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윤리적 검토가 필요함
- 과학 기술자가 연구 대상을 설정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는 과정은 가치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음
- 과학 기술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 실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윤리적 목적에 기여해야 함
- 오늘날 과학 기술이 인간과 자연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으므로 과학 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함

2. 선지 OX

1. 가치중립 : 과학 기술을 인간 사회와 분리된 별개의 활동으로 간주해야 한다. [수특 86p 3번]
2. 가치중립 : 과학 기술은 윤리적 관점에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수특 87p 5번]
3. 가치중립 :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의 활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 [수특 87p 5번]

4. 가치중립 : 과학자의 연구 활동은 사회의 요구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수특 88p 1번]
5. 가치중립 : 과학자에게 자신의 연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수특 88p 1번]
6. 가치중립 : 과학자는 연구 대상 설정 단계에서부터 가치 판단을 배제해야 한다. [수특 88p 1번]
7. 가치중립 : 과학자의 연구 성과를 도덕적 가치만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다. [수특 88p 2번]
8. 가치중립 : 과학자로서 자신의 연구 활동이 사회에 미칠 영향력을 인식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수특 88p 2번]
9. 가치중립 : 과학 기술의 활용이 부정적 결과를 낳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연구 결과를 실제로 이용한 사람들의 책임이다. [수특 88p 2번]
10. 가치중립 : 과학자는 과학 기술의 연구 개발 과정에서 도덕적 가치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수특 89p 3번]
11. 가치개입 : 과학 기술인은 사회적 책임과 윤리 의식을 지녀야 한다. [수특 86p 3번]
12. 가치개입 : 과학 기술은 인간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사회적 활동이다. [수특 86p 3번]
13. 가치개입 : 과학 기술은 윤리적 관점에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수특 87p 5번]
14. 가치개입 : 과학 기술이 가져올 부작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수특 87p 5번]
15. 가치개입 : 과학자의 연구 활동은 사회의 요구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수특 88p 1번]
16. 가치개입 : 과학자는 연구 대상 설정 단계에서부터 가치 판단을 배제해야 한다. [수특 88p 1번]
17. 가치개입 : 과학자의 연구 성과를 도덕적 가치만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다. [수특 88p 2번]
18. 가치개입 : 과학자는 과학의 활용에 관한 문제를 가치중립적 관점으로만 파악해서는 안 된다. [수특 89p 3번]
19. 가치개입 : 과학자는 과학 기술의 연구 개발 과정에서 도덕적 가치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수특 89p 3번]
20. 가치개입 : 과학자들은 자신의 연구가 초래할 사회적 영향력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수특 91p 7번]

3. 2017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를 통해 보는 대전제 추론 및 반론의 근거

(1) 일반적인 소전제 추론 및 반론의 근거

일반적인 삼단 논법 문제는 ‘소전제’를 추론하고 그에 대한 반론, 반론의 근거를 제시하는 문항이 출제된다. 소전제를 추론해보자.

대전제: 과일은 맛있다.

소전제: _____ ㉠ _____

결론: 딸기는 맛있다.

Step1) 대전제와 결론의 주어 부분과 술어 부분을 나눈다.

대전제: 과일은 // 맛있다.

소전제: _____ ㉠ _____

결론: 딸기는 // 맛있다.

Step2) 소전제 추론:

대전제의 주어부를 소전제의 술어부로 넣는다.

대전제: 과일은 // 맛있다.

소전제: _____ // **과일이다.**

결론: 딸기는 // 맛있다.

결론의 주어부를 소전제의 주어부로 넣는다.

대전제: 과일은 // 맛있다.

소전제: **딸기는** // 과일이다.

결론: 딸기는 // 맛있다.

따라서 소전제는 ‘딸기는 과일이다.’다.

(2)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과 반론의 근거

그런데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는 대전제를 추론하는 문항이 나왔다.

(가)의 주장을 (나)그림으로 나타낼 때, ㉠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과학 기술은 객관적 지식, 즉 객관적인 방법으로 발견한 자연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과 그 지식을 활용하여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과학 기술에는 주관적 가치가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	전제①	과학 기술은 객관적인 지식과 그 활용 과정이다.	+	전제② _____ ㉠ _____
			↓	
	결론	과학 기술에는 주관적 가치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위 (나)를 분석해보면

대전제: _____ ㉠ _____

소전제: 과학 기술은 객관적인 지식과 그 활용 과정이다.

결론: 과학 기술에는 주관적 가치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으로 분석된다. 대전제가 빠졌는지는 어떻게 알았냐면, 삼단 논법에서 소전제와 결론은 주

어 부분이 같다는 점을 알면 쉽게 알 수 있다.

대전제는 어떻게 추론하는가?

소전제 추론 과정을 응용하면 된다.

Step 1) 소전제와 결론의 주어 부분과 술어 부분을 나눈다.

대전제: _____ ㉠ _____

소전제: 과학 기술은 // 객관적인 지식과 그 활용 과정이다.

결론: 과학 기술에는 // 주관적 가치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Step 2) 대전제 추론

소전제의 술어 부분을 대전제의 주어 부분으로 넣는다.

대전제: **객관적인 지식과 그 활용 과정은** //

소전제: 과학 기술은 // 객관적인 지식과 그 활용 과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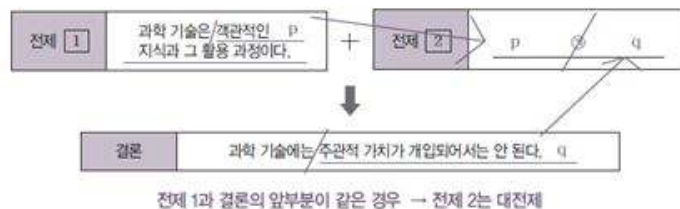
결론: 과학 기술에는 // 주관적 가치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결론의 술어 부분을 대전제의 술어 부분으로 넣는다.

대전제: 객관적인 지식과 그 활용 과정은 // **주관적 가치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소전제: 과학 기술은 // 객관적인 지식과 그 활용 과정이다.

결론: 과학 기술에는 // 주관적 가치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위와 같이 대전제 1(소전제)의 뒷부분을 잘라서 대전제 2(대전제)의 앞부분에 넣고, 결론 뒷부분을 잘라서 대전제 2(대전제)의 뒷부분에 넣으면 된다.

4. 연습해보자.

Q. 다음 기출 변형 문항들의 대전제 ㉠을 추론하고, 반론의 근거를 적어보시오.

● 2016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5번

- 대전제 : ㉠

- 소전제 : 출생을 조작하거나 통제하는 인간 복제는 인간만이 갖는 존재의 자유를 본질적

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 결론 : 출생을 조작하거나 통제하는 인간 복제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 2015학년도 수능 4번

- 대전제 : ㉠

- 소전제 : 인체 실험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실험이다.

- 결론 : 인체 실험은 바람직하지 않다.

● 2015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4번

- 대전제 : ㉠

- 소전제 : 인간 배아 복제 실험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다.

- 결론 : 인간 배아 복제 실험은 바람직하지 않다.

● 2015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18번

- 대전제 : ㉠

- 소전제 : 자발적 안락사는 인간을 죽이는 것이다.

- 결론 : 자발적 안락사는 옳지 않다.

● 2014학년도 수능 5번

- 대전제 : ㉠

- 소전제 : 과학 기술의 연구 개발은 가치중립적인 것이다.

- 결론 : 과학 기술의 연구 개발은 도덕적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 2014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2번

- 대전제 : ㉠

- 소전제 : 낙태는 인간 존재를 죽이는 것이다.

- 결론 : 낙태는 옳지 않다.

정답 및 해설

● 2016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5번

- 대전제 : 인간만이 갖는 존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 2015학년도 수능 4번

- 대전제 :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실험은 바람직하지 않다.

● 2015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4번

- 대전제 :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은 바람직하지 않다.

● 2015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18번
- 대전제 : 인간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 2014학년도 수능 5번
- 대전제 : 가치중립적인 것은 도덕적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 2014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2번
- 대전제 : 인간 존재를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5. 베버의 발견의 맥락과 정당화 맥락 읽기 자료 독해

베버의 발견의 맥락과 정당화 맥락은 '가치 개입, 가치 중립'이 종합된 견해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베버 제시문들을 가치 개입, 가치 중립으로 나누어 놓았으니 한번 읽어보는 정도면 충분하다.

베버의 발견의 맥락 = 가치 개입성.

베버의 정당화 맥락 = 가치 중립성.

*연구 대상 선정과 연구 결과 활용은 발견의 맥락에 속함.

(1) 정당화 맥락 = 가치 중립성

과학 기술은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지식이나 원리로 인정받는 과정을 거쳐야 함 [2019 수특 81p]

관찰과 실험의 과정에서는 연구자 개인의 취향이나 가치 판단이 들어가면 그 이론 자체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가치중립성을 지녀야 함 [2019 수특 81p]

과학적 진실은 진리를 탐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타당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연구한 내용을 사용할 때 연구자는 사교의 규칙이라 불리는 것들에 의해서 제약받는다. [2018학년도 EBS 수능특강 81p 연계]

연구의 대상을 선택하고 끝없는 인과의 망 속에서 어느 정도까지 깊이 천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에는 연구자 및 그의 시대를 지배하는 평가적 관념들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연구의 방법에 있어서는 연구를 이끌어 가는 관점이 그 연구에서 사용될 개념적 틀의 구성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발견의 맥락). [2019 수특 81p]

과학 기술은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지식이나 원리로 인정받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때에는 가치중립성을 지녀야 한다. 왜냐하면 관찰과 실험의 과정에서는 연구자 개인의 취향이나 가치 판단이 들어가면 그 이론 자체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발견의 맥락). [2019 수특 87p]

(2) 발견의 맥락: 가치 개입성

과학 기술자가 연구 대상을 선정하고 결과를 활용하는 과정은 가치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음 [2019 수특 81p]

개인의 가치관, 기업의 이익, 사회적 필요, 정치적 목적 등 다양한 이유로 과학 기술이 발견되고 활용됨 [2019 수특 81p]

인간의 필요에 따라 발견되고 활용되는 과학 기술은 가치와 깊은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음 [2019 수특 81p]

과학 기술이 잘못된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과학 기술의 정당화 맥락과 발견 및 활용의 맥락을 구분해야 함 [2019 수특 81p]

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연구자는 다른 모든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사고의 규칙들에 의해 명백하게 제약받는다. 왜냐하면 과학적 진실이란 진리를 탐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타당한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정당화의 맥락). [2019 수특 81p]

6. 선지 OX 정답 및 해설

해설은 위 '1. 기본 개념' 내용의 재언급이다. 개념 자체는 간단하다.

기출 문제 풀이를 통해서 선지를 여러 번 판단해보면 익숙해질 것이다.

1. O, “과학 기술은 객관적 관찰과 실험에 근거하기 때문에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수 없음” (수특 80p)

2. O, “과학 기술은 가치와 무관한 사실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윤리적 규제나 평가의 대상이 아님” (수특 80p)

3. X, “과학 기술은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과학 기술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과학 기술을 실제로 활용한 사람들의 몫임” (수특 80p)

4. O, “과학 기술은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과학 기술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과학 기술을 실제로 활용한 사람들의 몫임” (수특 80p)

5. X, “과학 기술은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과학 기술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과학 기술을 실제로 활용한 사람들의 몫임” (수특 80p)

6. O, “여기서 가치 판단은 주관적 가치 개입을 말함. “과학 기술은 객관적 관찰과 실험에 근거하기 때문에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수 없음” (수특 80p)

7. O, “도덕적 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판단, 진리 판단을 해야 한다.” (수특 80p)

8. X, “과학 기술은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과학 기술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과학 기술을 실제로 활용한 사람들의 몫임” (수특 80p)

9. O, “과학 기술은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과학 기술의 결과에 대한 책임

은 과학 기술을 실제로 활용한 사람들의 몫임” (수특 80p)

10. O, “과학 기술은 객관적 관찰과 실험에 근거하기 때문에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수 없음” (수특 80p)
11. O, “과학 기술도 가치 판단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윤리적 검토가 필요함” (수특 80p)
12. O, “오늘날 과학 기술이 인간과 자연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으므로 과학 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함” (수특 80p)
13. X, “과학 기술도 가치 판단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윤리적 검토가 필요함” (수특 80p)
14. O, “오늘날 과학 기술이 인간과 자연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으므로 과학 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함” (수특 80p)
15. X, “오늘날 과학 기술이 인간과 자연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으므로 과학 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함” (수특 80p)
16. X, “과학 기술자가 연구 대상을 설정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는 과정은 가치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음” (수특 80p)
17. O, “도덕적 가치 ‘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과학 기술은 사실적 진리의 영역이다. 사실 판단과 도덕적 가치 판단 모두 수행되어야 한다.” (수특 80p)
18. O, “과학 기술도 가치 판단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윤리적 검토가 필요함” (수특 80p)
19. X, “과학 기술자가 연구 대상을 설정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는 과정은 가치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음” (수특 80p)
20. X, “오늘날 과학 기술이 인간과 자연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으므로 과학 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함” (수특 80p)

■출제예감■ 요나스는 베이컨(과학 지상주의)을 비판한다

요나스의 책임 윤리는 매 년 평가원과 수능에서 오답률 top5에 들어가는 어려운 주제다. 작년 수능에서도 20문항 중 오답률 4위에 랭크되었다. 요나스가 어려운 이유는 요나스의 사상을 올바르게 배우지 않기 때문이다.

요나스의 사상을 견훤기식으로 공부하고, 이미 평가원과 수능에 출제된 내용만을 답습하기 때문이다.

물론 요나스의 철학은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요나스의 사상을 깊이있게 올바르게 가르치는 일은 쉽지 않다.

방대한 내용 중 어떤 내용이 수능에 출제될지 파악하여 선별해야 하는데, 그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필자는 요나스 사상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를 토대로 올 해 수능에 나올 주제를 예측할 수 있었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선정하여 여러분께 칼럼을 통해 제공하려 한다.

본 칼럼에서 다루는 내용은 어디에서도 쉽게 배울 수 없는 내용이므로 학생들은 집중하여 공부하도록 하자.

0. 시작에 앞서. ‘인간 중심주의 사상가’를 변호함. (*이 0.은 굳이 읽지 않아도 된다.)

7장 과학 기술과 윤리, 8장 환경윤리 단원은 ‘인간 중심주의’로 규정된 ‘아리스토텔레스, 아퀴나스, 데카르트, 베이컨, 칸트’를 현대의 ‘과학 기술에 의한 문제’와 ‘자연 환경 파괴’라는 윤리적 문제 상황을 불러온 근원 사상이라고 비판적으로 서술한다.

그러한 비판은 20C 전에 태어났다는 시대적 한계 때문에 미래에 지구 온난화와 같은 전지구적 환경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아리스토텔레스, 아퀴나스, 데카르트, 베이컨, 칸트’ 등 사상가에게는 억울한 규정일 수 있다.

또한 그 사상가들이 저작에서 자연을 ‘대상’으로 삼은 문구들도 있지만 동시에 자연을 존중하는 사상들도 썼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그 사상가들을 ‘환경 파괴를 불러온 인간 중심주의 사상가’로 매도하는 것은 학문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그 학자들을 심도있게 전공하고 공부하는 학자들은 ‘베이컨’의 자연 정복론이 단지 그 시대에 통용되었던 문학적, 비유적 표현에 불과했다고 지적하거나, 칸트의 ‘생태 철학’을 온건한 입장으로 해석하는 등 ‘환경 파괴의 근원적 사상을 제시한 인간 중심주의자’라는 딱지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비판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현대의 환경 윤리학자, 생태 철학자 등이 예전의 사상가들을 지나치게 일반화하여 ‘환경 파괴를 불러 일으킨 사상범’이라는 부당한 주홍글씨를 새긴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학문적 부당성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부하는 생활과 윤리 교육과정에서는 그 사상가들을 ‘인간 중심주의’라고 규정하며 현대의 환경 문제를 불러일으

킨 사상적 근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학문적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쨌든 우리는 수험생으로서 현재 생활과 윤리 교육과정과 수능, 평가원 기출문제,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의 일관된 서술 방식에 따라야 한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수준에서 배우는 환경 윤리 답론은 단순화된 내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나중에 학문적으로 깊게 공부하게 되면, 이에 대한 반론과 비판적 접근은 충분히 할 수 있으니 적어도 생활과 윤리 환경 윤리를 공부할 때에는 ‘나의 아리스토텔레스는/아퀴나스는/베이컨은/데카르트는/칸트는 그렇지 않아! 억울해!’ 라는 생각은 일단 접어두자.

앞으로 내가 서술할 7, 8 강의 내용은 환경 철학자들의 입장에서 본+생활과 윤리 교과서에서 본+ 평가원 기출 문제의 관점에서 본 + EBS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에서 본 ‘아리스토텔레스, 아퀴나스, 베이컨, 데카르트, 칸트’의 입장이라는 점을 명심하자.

1. 베이컨의 과학 기술 지상주의& 인간 중심주의 사상

요나스 등 환경 철학자는 베이컨은 ‘과학 기술 지상주의’의 근원 사상으로 비판한다.

EBS 수능특강 교재에 제시된 베이컨의 과학 기술 지상주의, 인간 중심주의 사상을 살펴보자.

(1) 인간 중심주의 사상 (EBS 8강)

베이컨 : “방황하고 있는 자연을 사냥해서 노예로 만들어 인간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해야 한다.”, “지식은 힘이다.”

- 자연을 정복해 인간의 물질적 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을 과학의 목적으로 파악함

(2) 과학 기술 지상주의 (EBS 7강)

과학 기술 지상주의

● 입장

: 과학 기술의 유용성이라는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과학 기술이 인류가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봄

● 문제점

- 과학 기술이 가져다줄 미래에 대한 맹목적 환상을 가지게 함

- 합리성과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도덕적 숙고와 반성적 사고 능력을 훼손함

우리에게는 천연의 우물이나 분수를 모방해서 만든 인공 우물이나 분수도 있습니다. 황산이나 황, 강철, 청동, 납, 초석을 비롯한 기타 광물질이 섞인 온천도 있습니다. 많은 물질들을 주입해서 실험하기 위한 자그마한 우물도 있습니다. 여기에 물질을 넣으면 그릇에 담긴 것에 비해서 물의 반응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이러한 실험 결과 우리는 천국의 물이라고 불리는 물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 물을 마시면 건강이 증진되고 생명이 연장됩니다.

- 베이컨, “뉴아틀란티스” -

우리에게는 천연의 우물이나 분수를 모방해서 만든 인공 우물이나 분수도 있습니다. 황산이나 황, 강철, 청동, 납, 초석을 비롯한 기타 광물질이 섞인 온천도 있습니다. 많은 물질들을 주입해서 실험하기 위한 자그마한 우물도 있습니다. 여기에 물질을 넣으면 그릇에 담긴 것에 비해서 물의 반응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이러한 실험 결과 우리는 천국의 물이라고 불리는 물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 물을 마시면 건강이 증진되고 생명이 연장됩니다. (...중략...) 우리는 유성의 체계와 운동을 모방한 거대한 건물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눈과 비, 우박 등을 인공적으로 내리게 할 수 있으며, 천둥과 번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개구리, 파리 등 다양한 생물체를 번식시킬 수도 있습니다.

<보기>

- ㄱ. 과학 기술이 인류의 행복과 번영을 보장할 것이다.
- ㄴ. 과학 기술은 인간이 자연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요나스가 생각하는 베이컨의 '과학 기술 지상주의'의 문제점

(1) 기독교적 세계관: 자연은 불가침적 성격을 지닌다.

베이컨 시대에는 인간이 자연을 변형하고 이용하더라도, 자연은 본질적으로 상처받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이는 기독교 성경에 근거를 둔 사고다. 그 시대 사람들은 기독교 신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였고, 인간에게 그것을 이용할 권리를 주었다고 믿었다. 인간의 과학 기술로 인해서 자연이 일시적으로 상처를 입는다고 해도 신이 만든 완전한 자연, 인간에게 내려주신 선물인 자연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2) 변화된 과학 기술의 성격

요나스는 현대 과학 기술의 성격이 이전과 달라졌다고 본다. 현대의 기술 공학은 이전의 기술과는 달리 전대미문의 영향력을 지녔다. 현대의 기술 공학은 공간적으로는 자연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으며 시간적으로는 미래 세대의 인간과 생명의 존재까지 모두 말살할 수 있다.(핵, 유전공학 등)

과학 기술, 기술 공학의 새로운 성격과 그로 인한 인간 본성의 변화는 '훼손되지 않는 자연관'을 전제로 성립된 이전의 전통적 윤리학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3) 이전의 전통적 윤리학의 특징:

- ① 자연은 인간을 위해서 이용할 대상일 뿐임.
- ② 인간만이 직접적인 도덕적 고려 대상.
- ③ 윤리란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 개인 대 개인의 관계일 뿐임.
- ④ 미래 세대는 당연히 존속될 것이므로 현세대의 행위에서 미래 세대를 고려할 필요는 없음.
- ⑤ 책임이란 직접적인 원인-결과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법적인 개념

(4) 요나스의 새로운 윤리학의 특징

- ① 자연도 윤리적 고려의 대상임. 모든 생명은 그 자체로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
- ② 모든 생명은 직접적인 도덕적 고려 대상.
- ③ 윤리는 집단적 성격을 지니며, 도덕적 행위 주체인 인간, 인류는 모든 생명체, 자연에 대해서 책임을 지님
- ④ 현대 과학 기술은 미래 세대의 존속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현세대의 행위는 미래 세대를 고려하여 행해져야 함.
- ⑤ 책임이란 ‘내재적 가치를 지닌 모든 생명’, ‘그 자체의 선(善)과 목적을 지닌 생명’의 존재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오는 당위임.(=존재론적 책임) 단순히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인과적 책임이 아님.(물론 인과적 책임도 책임져야 함.)

3. 베이컨에 대한 요나스의 비판

EBS에도 베이컨과 요나스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문항이 출제된 바 있다.

실전 문제 4번.

갑 : 방황하고 있는 자연을 사냥해서 노예로 만들어 인간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연은 구속되어야 하고, 과학자의 목적은 고문을 해서라도 자연의 비밀을 밝혀내는 것이다.

을 : 우리는 인간의 선뿐만 아니라 인간 외적인 사물의 선을 탐구해야 하며, 즉 “목적 자체”의 인정을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까지 확장해야 하며, 이에 대한 염려를 인간의 선 개념 속에 포함시켜야 한다.

문항의 정답 선지에서 뽑아낼 수 있는 세 가지.

- ① 베이컨이 요나스보다 과학 기술의 유용성을 더 강조한다.
- ② 요나스가 베이컨보다 자연의 내재적 가치, 생명의 본질적인 가치를 더 강조한다.
- ③ 요나스가 베이컨보다 자연에 대한 책임을 더 강조한다.

4. 요나스 기출 선지와 원전 함께 읽기

1.~ 3.에서 설명한 요나스와 베이컨의 비교는 올 해 수능에 출제될 수 있다. 현재 요나스 트렌드가 그러하다. 이러한 트렌드는 학문적인 실력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다. 먼저 작년 수능 요나스 문항을 같이 살펴보자.

14.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는 악의 인식이 선의 인식보다 무한히 쉽다. 선은 눈에 띄지 않게 존재하며 반성을 하지 않으면 인식될 수 없지만, 악의 현존은 우리에게 인식을 강요한다.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를 알아내기 위해 새로운 윤리학은 공포를 논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인간 행위의 새로운 유형에 적합하고 새로운 유형의 행위 주체를 지향하는 명법은 다음과 같다. “너의 행위의 효과가 지상에서의 진정한 인간적 삶의 지속과 조화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 ① 자연이 수용할 수 있는 한에서 과학 기술의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 ② 과학 기술의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
- ③ 새로운 윤리학은 최고악에 대한 공포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 ④ 새로운 윤리학은 “A이면 B하라.”라는 형식의 명법만을 지향한다.
- ⑤ 사후적 책임뿐만 아니라 사전적 책임도 중시해야 한다.

위에서 오답률이 높았던 선지는 ①이다.

① 자연이 수용할 수 있는 한에서 과학 기술의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학생들은 이 선지가 잘못된 선지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이 선지는 옳은 선지다.

위 2-(1)에서 설명한 것 처럼, 베이컨 등은 인간의 과학 기술로 인해서 자연이 파괴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불가침적 자연관) 그렇기에 과학 기술의 발전은 무한히 가능하다고 보았고, 자연을 지배하여 과학적 유토피아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요나스가 지적했듯, 현대의 과학 기술은 유래없는 파괴력을 지녔다. 자연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과학 기술들이 등장했고, 연구되고 있다. 요나스가 비판하는 과학 기술은 바로 자연이 수용할 수 없는 범위에서 벌어지는 과학 기술의 새로운 성격을 말한다.

그러므로 과학 기술의 변화된 성격으로 인해 요구되는 윤리학은 ②과학 기술의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에 주목해야 하며, ③ 새로운 윤리학은 최고악에 대한 공포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으며, ⑤ 사후적 책임뿐만 아니라 사전적 책임도 중시해야 하는 것이다.

요나스의 『책임의 원칙』에서 요나스가 베이컨을 비판하는 내용 중 실제로 수능과 평가원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내용만을 간단히 발췌하여 같이 읽어보자.

위험은 자연 과학적, 기술 산업 문명의 비대화로부터 기인한다. 우리가 베이컨적 기도와 부르는 것, 즉 지식을 자연의 지배라는 목표에 맞추고 자연의 지배를 인간 운명의 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기도는 그것이 자본주의적으로 실행되면서 처음부터 합리성이나 정당성을 소유하지 못했다. (...) 그 기도는 필연적으로 생산과 소비의 무한화를 낳는데, 이간적 목표 성정은 단기적이고 성공의 정도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성공의 역동성은 아마 모든 사회를 압도할 것이다.

그토록 오랫동안 인공적으로 유지되어 온 생태학의 평형 법칙은 자연 상태에서는 어떠한 종이든 하나의 종이 지배하는 것을 막았지만, 우리가 [자연의]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서 무리하게 요구한다면 자신[자연]의 무서운 권리를 청구할 것이다. 그 후 잔존하는 인류가 황량해진 지구 위에서 어떻게 새로 시작할지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일이다.

[]는 필자가 문맥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함.

자연과 인간을 보호할 필요성은 바로 기술적 진보의 과정에서 획득된 권력의 규모로 인하여 대두되었다. 그러나 (...) 베이컨이 예측하지 못 했던 (...) 권력은 스스로 막강하게 되었으며, 권력의 달콤한 약속은 험박으로, 구원의 전망은 목시론적 전망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 목시론: 기독교 성서에 근거한, 최후의 심판 혹은 멸망과 관계된 이론.

▶ 베이컨에 대한 요나스의 비판적 결론: 베이컨은 기술적 진보를 통해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모든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기술 만능주의 사회. 그러나 베이컨은 ‘과학 기술 공학이 진보되어 자연 자체를 파괴’할 수 있음을 예측하지 못했다.

현대의 진보된 과학 기술 공학은 자연 그 자체를 파괴할 힘을 가지도 있다.

그런 전대미문의 과학적 힘(권력)의 규모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게 만든다.

그러한 기술 공학이 인류와 자연을 멸절시킬 수도 있다는 것에 ‘공포’를 느끼는 ‘공포의 발견술’의 관점에서 우리가 과학적 힘을 올바르게 책임져야 한다.

1) 과학 기술 지상주의

- 과학 기술의 유용성이라는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과학 기술이 인류가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봄.

[2019 수특 82p]

- 문제점:

- 과학 기술이 가져다줄 미래에 대한 맹목적 환상을 가지게 함
- 합리성과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도덕적 속고와 반성적 사고 능력을 훼손함

[2019 수특 82p]

- 베이컨: 우리에게서 천연의 우물이나 분수를 모방해서 만든 인공 우물이나 분수도 있습니다. 황산이나 황, 강철, 청동, 납, 초석을 비롯한 기타 광물질이 섞인 온천도 있습니다. 많은 물질들을 주입해서 실험하기 위한 자그마한 우물도 있습니다. 여기에 물질을 넣으면 그릇에 담긴 것에 비해서 물의 반응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이러한 실험 결과 우리는 천국의 물이라고 불리는 물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 물을 마시면 건강이 증진되고 생명이 연장됩니다.

[베이컨, “뉴아틀란티스”, 2019 수특 82~83p에 인용]

- 베이컨은 과학 기술의 유용성에 바탕을 둔 이상 사회를 꿈꿨다. 그는 과학 기술의 발전에 의하여 인간 생활의 번영과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과학 기술 지상주의를 주장하였다.

[2019 수특 83p]

- 베이컨: 과학 기술은 인류에게 무한한 부를 가져다줄 것이며, 인류는 과학 기술을 이용하여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2019 수특 86p]

- 베이컨: 방황하고 있는 자연을 사냥해서 노예로 만들어 인간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연은 구속되어야 하고, 과학자의 목적은 고문을 해서라도 자연의 비밀을 밝혀내는 것이다.

[2019 수특 89p]

1) 과학 기술 지상주의

- 베이컨: 우리에게서 천연의 우물이나 분수를 모방해서 만든 인공 우물이나 분수도 있습니다. 황산이나 황, 강철, 청동, 납, 초석을 비롯한 기타 광물질이 섞인 온천도 있습니다. 많은 물질들을 주입해서 실험하기 위한 자그마한 우물도 있습니다. 여기에 물질을 넣으면 그릇에 담긴 것에 비해서 물의 반응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이러한 실험 결과 우리는 천국의 물이라고 불리는 물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 물을 마시면 건강이 증진되고 생명이 연장됩니다. . . . (중략) . . . 우리는 유성의 체계와 운동을 모방한 거대한 건물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눈과 비, 우박 등을 인공적으로 내리게 할 수 있으며, 천둥과 번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개구리, 파리 등 다양한 생물체를 번식시킬 수도 있습니다.

[2019 수특 90p]

- 베이컨: 과학은 관찰과 실험에 기초해 자연을 객관적으로 이해한다. 우리는 이러한 과학을 활용하여 자연을 지배하고 통제함으로써 인간의 복지를 무한히 증대할 수 있다.

[2014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2) 요나스의 책임 윤리

- 책임의 범위를 현세대로 한정하는 기존의 전통적 윤리관으로는 과학 기술 시대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음

[2019 수특 84p]

- 내재적이고 본질적인 가치를 지니는 모든 생명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까지 고려해야 함

[2019 수특 84p]

- 과학 기술의 발전이 먼 미래에 끼치게 될 결과를 예측하여 생명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예견적 책임”을 강조함 → 인류의 생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그 행동의 결과가 미래를 파괴하지 않도록 해야 함

[2019 수특 84p]

- 마침내 사슬에서 풀려난 프로메테우스는 자발적인 통제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윤리학을 요청한다. 새롭게 등장한 윤리학은 책임이라는 개념을 통해 요약될 수 있다. 이제까지 윤리학은 책임의 윤리학과 같은 종류의 대상을 가진 적이 없으며, 또한 이 윤리 이론은 이제까지 별로 연구되지도 않았다. 멀리 떨어져 있는 미래를 예견하고 지구의 전 영역을 인과성의 의식 속에 포함시키기에는 지식과 권력이 너무나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윤리학은 미지의 운명 속에서 추후 결과를 한가롭게 추측하는 대신에 현재의 순간적 행위가 갖는 윤리적 성격에만 집중하였다. 그런데 이 순간적 행위에서 더불어 살고 있는 이웃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윤리학은 인과적 범위를 전례 없이 미래에까지 적용시키는 행위와 관계가 있다. 또한 이러한 행위에 장기적 결과의 엄청난 규모와 그 환원 불가능성이 첨가된다. 이 모든 것이 책임을 윤리학의 중심에 세워놓는다.

[요나스, “책임의 원칙”, 2019 수특 84p]

- 요나스는 근대적인 인간 중심적 자연관이 도구적 기술관과 맞물려서 환경 파괴와 기술 유토피아라는 신화를 낳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책임의 윤리를 제시한다.

[2019 수특 84p]

- 인간 행위의 새로운 유형에 적합하고 새로운 유형의 행위 주체를 지향하는 명법은 “너의 행위의 결과가 지상에서의 진정한 인간적 삶의 지속과 조화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또는 “너의 행위의 결과가 인간 생명의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 파괴적이지 않도록 행위하라.”가 되어야 한다. 이 새로운 명법은 인류의 생명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는 현세대의 존재를 위해서 미래 세대의 비존재를 선택하거나 또는 감히 위태롭게 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2019 수특 87p]

- 우리는 인간의 선뿐만 아니라 인간 외적인 사물의 선을 탐구해야 하며, 즉 “목적 자체”의 인정을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까지 확장해야 하며, 이에 대한 염려를 인간의 선 개념 속에 포함시켜야 한다.

[2019 수특 89p]

- 현 세기에 들어오면서 오래전에 예고되었던 지점에 도달하게 되었으며, 그로써 위험은 가시적이고 위협적인 것이 되었다. 이성과 결탁한 권력은 그 자체로 책임을 동반한다. 이것은 예전부터 인간 상호 간의 영역에서는 자명한 일이었다. 책임이 최근에는 종전의 범위를 넘어서서 생물계의 상태와 인간 종족의 미래의 생존까지 포괄하게 된 것은 분명히 이러한 영역에 대한 권력 -1차적으로는 파괴의 권력이지만- 의 확장과 연관이 있다. 권력과 위험은 하나의 책임을 눈앞에 보여준다. 이 책임은 우리가 선택의 여지없이 자신 외의 다른 것들과도 유대 해야 하며, 자신의 존재가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유대를 일반적인 것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9 수특 90p]

- 전통 윤리학과 달리 새로운 윤리학은 미리 사유된 위험 그 자체가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심상치 않은 상황의 변화, 전 지구적 차원의 위험, 인류 몰락의 징조 등을 통해 비로소 윤리적 원리들이 발견될 수 있다. 이것을 ‘공포의 발견술’이라고 부른다.

[2018학년도 9월 평가원모의고사]

- 인간은 행위하는 존재이므로 윤리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행위는 인과적 파급 효과를 산출하기 때문에 행위의 힘이 커질수록 윤리적 책임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따라서 과학기술로 인해 인간이 갖게 되는 새로운 행위 능력을 규제할 새로운 윤리가 요청되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윤리 없이는 기술 능력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압력으로 인해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2018학년도 6월 평가원모의고사]

- 인류는 지구상에 계속 존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이 요청된다. 전통적 윤리는 인간적 삶의 전 지구적 조건과 종(種)의 먼 미래와 실존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자연에 대한 책임, 미래 지향적 책임, 미래 세대의 삶의 조건에 대한 책임까지 숙고해야 한다. 이러한 책임은 단순히 상호적 권리와 의무로만 설명될 수 없다. 우리에게 요청되는 책임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처럼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책임이다.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 프로메테우스는 과학을 통해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힘을 부여받아 마침내 사슬로부터 풀려났지만, 그는 자신의 힘이 불행을 자초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제어해야 한다. [2014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 오늘날의 과학 기술은 무한한 진보를 거쳐 자연을 파괴하였으며, 이제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과학 기술이라는 권력을 무비판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것이 인간 자신에게 불행을 끼치지 않도록 통제하여 자신의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윤리학을 요청한다. 무엇이 윤리의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미리 사유된 위험 자체이다. 전쟁의 처참함을 알지 못하면서 평화를 찬양할 수 있는가? 우리는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을 더 잘 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희망보다는 공포로부터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심상치 않은 상황 변화, 위험이 미칠 수 있는 전 지구적 범위, 그리고 인간의 몰락 과정에 대한 징조를 통해서 비로소 윤리적 원리들이 발견될 수 있다. 이러한 원리들로부터 새로운 권력에 대한 의무들이 도출될 수 있다. [요나스, “책임의 원칙”]

3) 적정 기술

□ 슈마허(Schumacher, E. F.)가 제시한 환경 친화적 중간 기술에서 유래한 개념이다. 이 기술은 선진국에서 개발된 첨단 기술이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개발도상국 주민들에게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를 끼치기도 한다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을 토대로 이들 지역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기술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들 기술은 개발도상국 주민들도 제작하고 작동할 수 있는 기술로 지역 친화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기술이다.

[2019 수특 85p]

4) 기술시민권

□ 기술이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오늘의 기술 사회에서는 기술의 개발 방향과 내용에 대한 시민의 참여에 기초한 민주적 통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청된다. 그리하여 기술 사회에서 과학 기술 정책 결정과 관련해 사회 구성원들이 향유해야 하는 참여의 권리가 강조된다. 이 권리는 지식 혹은 정보에 대한 접근 권리, 기술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의 권리, 의사 결정이 합의에 기초해야 함을 주장할 권리, 집단이나 개인들을 위협에 빠지게 할 가능성을 제한시킬 권리 등으로 구성된다. [2019 수특 85p]

8강 환경과 윤리

- 단원 소개 및 학습 가이드

생활과 윤리 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입니다. 환경 윤리 문항은 수능에서 항상 오답률 Top에 들어갑니다. 학자들의 많고, 이론도 다양해서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제시문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환경 윤리 개념을 숙달합니다.

1) 인간 중심주의

□ 인간 중심주의의 특징

- ① 인간을 다른 자연적 존재들보다 우월하고 귀한 존재로 파악함
- ②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여 바라보는 이분법적 세계관을 지님
- ③ 도구적 자연관을 토대로 자연을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생존과 복지를 위한 수단으로 여기며, 유용성의 관점에서 자연을 인식함
- ④ 인간만이 생명권, 자유권, 행복 추구권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지닌다고 봄

[2019 수특 92p]

□ 아리스토텔레스 :

- “식물은 동물의 생존을 위해, 동물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존재한다.”
- 이성을 지닌 인간이 이성이 없는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고 봄

[2019 수특 92p]

□ 아리스토텔레스 : 식물은 동물을 위해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자연은 목적이 없거나 헛된 일을 하지 않는다. 자연은 이성적 존재인 인간을 위해 모든 동물을 만들었다.

[2015학년도 6월 모의고사]

□ 아퀴나스 :

- “신의 섭리에 따라 동물은 인간이 사용하도록 운명 지어졌다.”
- 동물을 살해하거나 동물을 이용하는 것은 부정의한 것이 아니라고 봄

[2019 수특 92p]

□ 아퀴나스 : 동물을 이용하는 것이 자연법을 거스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인간이 동물의 고통에 동정심을 느낀다면 인간에게는 더 많은 동정심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의 뜻이다.

[2018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 베이컨 :

- “방황하고 있는 자연을 사냥해서 노예로 만들어 인간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해야 한다.”, “지식은 힘이다.”
- 자연을 정복해 인간의 물질적 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을 과학의 목적으로 파악함

[2019 수특 92p]

□ 데카르트 :

-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을 구분함으로써 인간이 자연을 이용하고 정복하는 사유를 정당화하는 근거를 제공함

[2019 수특 92p]

□ 칸트 :

- “동물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인간성 실현을 위한 간접적인 도덕적 의무에 불과하다.”, “인간은 동물들을 폭력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동물에게 잔인한 사람은 인간을 대우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거칠어지기 때문이다.”
- 자율성과 이성적 능력을 지닌 인간만이 도덕적 행위의 주체라고 봄

[2019 수특 92p]

□ 자연 중에 생명이 없음에도 아름다운 것에 대해 파괴를 일삼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반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도덕적인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도덕성을 매우 촉진하고, 적어도 그를 위해, 곧 무엇인가(예컨대, 광물계의 아름다운 결정체들, 식물계의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다운 것)를 유용성에 대한 고려 없이도 사랑하도록 준비시키는 감성의 정조인, 인간 안의 감정을 약화시키거나 절멸시키기 때문이다. 이성 없지만 생명이 있는 일부 피조물과 관련하여 동물들을 폭력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잔학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와 내면에서 더욱더 배치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동물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은 인간 안에서도 둔화되고, 그로써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도덕성에 매우 이로운 자연 소질이 약화되어, 점차로 절멸될 것이기 때문이다.-(중략)-늙은 말이나 개가 오랫동안 수행한 봉사에 대한 감사마저도 간접적으로는 인간의 의무에 속한다. 곧 이러한 동물들과 관련한 감사의 정은 직접적으로 볼 때는 언제나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일 따름이다.

[칸트, “윤리형이상학”, 2019 수특 92p에 인용]

□ 칸트는 무생물인 광물이나 생명이 있는 식물, 동물을 함부로 다루는 것에 반대한다. 하지만 그 이유는 것들이 그 자체로 도덕적으로 존중받을 만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을 함부로 다루는 행위가 인간성을 해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2019 수특 92p]

- 칸트 : 이성은 없지만 생명이 있는 일부 피조물과 관련하여 동물들을 폭력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잔학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와 내면에서 더욱더 배치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동물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 인간 안에서도 둔화되고, 그로써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도덕성에 매우 이로운 자연 소질이 약화되어, 점차로 절멸될 것이기 때문이다.

[2019 수특 101p]

- 칸트 : 자연 체계 내에서의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같이 대지의 산물로서 평범한 가치를 가진다. 그러나 도덕적, 실천적 이성의 주체로서 인간은 자연 안에 존엄하며 절대적 가치를 지닌 존재이다.

[2019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 칸트 : 이성이 없지만 생명이 있는 동물들을 잔학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난다. 그리고 자연 중에 생명이 없지만 아름다운 것을 파괴하려는 성향도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난다.

[2015학년도 9월 모의고사]

- 칸트 : 인간은 자연을 고려해야 하는 간접적 의무를 갖는다.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는 인간의 동정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014학년도 6월 모의고사]

- 인간 중심주의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 ① 문제점 : 인간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자연을 남용, 훼손해 생태계 위기와 환경 문제를 초래함
- ② 해결 방안 :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존의 인간 중심주의 윤리에서 벗어나 생태적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윤리가 필요함

[2019 수특 93p]

-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

- ① 자연을 존중하면서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사용해야 한다고 봄
- ② 인간이 다른 존재보다 본질적으로 더 가치 있는 존재라는 점을 인정함
- ③ 인간이 장기적으로 생존하고 복지를 누리기 위해 환경 친화적인 삶을 강조함

[2019 수특 93p]

2) 동물 중심주의

□ 동물 중심주의의 특징

- ① 생태계를 구성하는 존재 중 동물에 강조점을 두는 관점임
- ② 인간을 포함해 즐거움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동물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임
- ③ 쾌락과 고통의 감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감정 중심주의라고도 함

[2019 수특 93p]

□ 벤담 : 동물을 대우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은 “이성을 지니고 있거나 말을 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고통을 느낄 수 있는가?”라고 봄

[2019 수특 93p]

□ 벤담 : 폭군이 아니라면 강제로 빼앗을 수 없는 인간의 권리를 동물이 획득하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 피부 색깔이 검다는 이유로 인간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프랑스 사람들은 이미 지각하고 있다. 언젠가는 다리가 몇 개인지, 피부가 털투성이인지, 또는 꼬리뼈가 퇴화했는지 등의 차이 때문에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존재를 학대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날이 올 것이다. . . . (중략) . . .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성을 갖는가, 그들이 말을 하는가가 아니라 그들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가이다.

[2019 수특 103p]

□ 밀 : 도덕은 인간만이 아니라 쾌고(快樂)를 느낄 수 있는 존재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행위에 관한 규칙과 계율이라고 봄

[2019 수특 93p]

□ 싱어 :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근거해 인간을 우대하고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을 차별하는 태도를 ‘종 차별주의(종 이기주의)’라고 비판하고, 공장식 동물 사육 실태와 동물에게 과도한 고통을 가하는 동물 실험에 반대함

[2019 수특 93p]

□ 싱어 :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는 이익 관심을 지니며, 모든 이익 관심은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를 차별하는 것은 잘못이다.

[2019 수특 101p]

- 싱어 :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르면 우리는 종(種)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종을 착취할 권리가 없다. [2019 수특 102p]
- 싱어 : 고통이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은 적어도 이익 관심을 갖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예를 들어 돌맹이는 이익 관심을 갖지 않는다. 왜냐하면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쥐는 차여서 길에 굴러다니지 않을 이익 관심을 분명히 갖고 있다. 왜냐하면 쥐는 차일 경우 고통을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2019 수특 103p]
- 싱어 : 도덕적 기준은 어떤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존재들의 이익과 고통을 동등하게 고려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어떤 행위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면, 그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2019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 싱어 : 어떤 존재의 고통을 고려하지 않는 도덕적 논증은 있을 수 없다. 이익 평등 고려의 원리는 존재들 간의 동일한 고통을 동일하게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2018학년도 수학능력시험]
- 싱어 :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 존재들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평등의 논리를 인간에게만 적용하고 종들 간의 관계에 적용하지 않는 것은 임의적이다. [2018학년도 6월 모의고사]
- 싱어 : 인종이나 성(性)을 근거로 하여 평등한 도덕적 지위를 부정 하는 것이 그른 것처럼, 우리 종(種)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것을 근거로 하여 평등한 도덕적 지위를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고통과 쾌락의 감수 능력이 이익 관심을 갖는 전제 조건이다. [2016학년도 6월 모의고사]
- 싱어 : 자기가 속한 종(種)의 이익을 옹호하면서 다른 종의 이익을 배척하는 차별적 태도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이 좀 더 나은 지적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를 착취할 권한을 가질 수는 없다. [2015학년도 9월 모의고사]

- 싱어 :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고통과 쾌락을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의 이익도 고려하여 도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도덕적 행위란 인간과 동물의 이익 증진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다.

[2014학년도 수능 예비 시행]

- 싱어 : 고통과 쾌락의 감수 능력이 자신의 이익에 대한 관심을 갖는 전제 조건이 된다. 따라서 단지 종(種)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2014학년도 6월 모의고사]

- 레건 : 의무론의 입장에서 일부 동물도 삶의 주체로서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고 보고, 동물을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봄

[2019 수특 93p]

- 인간과 인간이 아닌 삶의 주체는 존중받을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권리를 가진 개체들은 겨로 마치 다른 것들을 위한 자원인 것처럼 대우받아서 안 된다. 특히 다른 것들의 이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레건, “동물의 권리”, 2019 수특 93에 인용]

- 레건에 따르면 정상적인 인간은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인간이 아닌 성장한 포유동물은 도덕적 무능력자(moral patients)이지만 감정적인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희망과 목적을 추구할 수 있는 삶의 주체이기 때문에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이러한 포유동물은 도덕적 지위와 권리를 지니기 때문에 사냥감이나 놀이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2019 수특 93p]

- 레건: 지각, 기억, 믿음, 자의의식, 의도, 미래에 대한 감각 등의 특성을 지닌 동물은 ‘삶의 주체’이며 이들 동물들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2019 수특 100p]

- 레건: 우리는 지각, 기억, 믿음 등을 지닌 삶의 주체의 내재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그들의 가치는 도덕적 행위 능력과 무관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2019 수특 105p]

- 레건: 욕구를 가진 존재는 타자와 구분되는 자신의 복지를 갖고 있다. 이 존재는 희망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삶의 주체이며 수단으로만 대우받아서 는 안 된다.

[2018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 동물 중심주의의 한계점

- ① 동물 개체에 관심을 집중하므로 생태계 전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함
- ② 동물 이외의 환경 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기 때문에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2019 수특 93p]

3) 인간 중심주의와 동물 중심주의 비교

- 레건 : 자연의 다른 존재를 위한 유용성과는 독립적으로, 쾌고(快樂)를 느끼며 목표를 위해 행위 하는 삶의 주체는 비록 의무를 지닐 수 없다 해도 삶을 영위할 권리를 갖는다.
- 칸트 : 자연의 피조물이 이성을 갖지 않는다고 해서 잔인하게 다루면 안 된다. 그렇게 다룰 경우, 고통에 대해 공감을 일으키는 인간의 자연적 소질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 베이컨 : 자연을 사냥해서 노예로 만들어 인간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해야 한다. 지식은 인간이 자연을 의도에 맞게 변형하여 자연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유용하다.

[2019 수특 94p]

- 레건은 동물 권리론을 주장하면서 몇몇 동물은 삶의 주체로서 존중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본다. 그는 삶의 주체이기 위해서는 기억, 자각, 믿음, 자기의식, 의도, 미래에 대한 감각 등의 특성이 요구된다고 본다. 칸트는 인간 중심주의 관점을 지니고 있지만 동물이나 식물, 나아가 무생물까지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인간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베이컨은 인간 중심주의 관점을 지닌 사상가로 방황하고 있는 자연을 사냥해서 노예로 만들어 인간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간을 위해 자연을 지배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

[2019 수특 94p]

4) 생명 중심주의 윤리

□ 생명 중심주의의 특징

- ① 생명의 도덕적 가치를 강조함
- ② 모든 생명체는 그 자체로 도덕적 고려를 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고 봄
- ③ 인간 이외의 생명체인 동물, 식물까지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삼음

[2019 수특 94p]

□ 슈바이처

- 모든 생명은 살고자 하는 의지를 지니고 있으며 그 자체로 신성하다는 ‘생명의 동등성’을 주장함
- 자기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다른 생명을 해쳐야 할 경우가 발생하는데 여기서 ‘생명의 차등성’이 드러나지만, 그럼에도 생명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함

[2019 수특 94p]

- 인간은 자기를 도와주는 모든 생명을 도와줄 필요성을 존중하고, 살아 있는 어떤 것에도 해를 끼치는 것을 부끄러워할 때에만 비로소 진정으로 윤리적이다. 인간은 이 생명 혹은 저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으로서 동정을 받는지에 대해 묻지 않으며, 또한 그것이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얼마나 느낄 수 있는지도 묻지 않는다.
- 자기 들판에서 소에게 줄 건초를 만들기 위하여 수많은 풀을 뜯은 농부라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무 생각 없이 길가에 핀 꽃을 꺾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꽃을 꺾음으로써 그는 불 가피하지 않은 상황에 있으면서도 생명에게 그릇된 짓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슈바이처, “문화와 윤리”]

- 슈바이처는 생명은 그 자체로 선이며 본래적 가치를 지니므로 모든 생명을 존중해야 하며, 인간이 살아남으려면 다른 생명을 해치는 것이 불가피할 때도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생명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2019 수특 94p]

- 슈바이처: 윤리는 내 안에 그리고 내 밖에 있는 생명의 의지에 대한 외경이다.

[2019 수특 102p]

- 슈바이처: 윤리 역시 생명 외경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생명을 유지하고 고양하는 것은 선이며, 생명을 파괴하고 훼손하는 것은 악이다.

[2019 수특 100p]

□ 테일러

- “모든 생명체는 자기 보존과 자체적 좋음(good)을 향하여 움직이는 목적 지향적 활동의 단일화된 체계라는 점에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 모든 생명체는 의식 유무와 상관없이 생존, 성장, 발전, 번식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고 봄
- 모든 생명체는 고유의 선(善)을 지니며, 인간이 자연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와 무관하게 내재적 가치를 가지므로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봄

[2019 수특 95p]

□ 테일러의 기본 관점

-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 함께 지구 생명 공동체를 구성하는 일원임
- 지구의 자연적 생태 체계들은 긴밀하게 연결된 복합적 네트워크(연계망)임
- 모든 유기체는 자신의 고유한 방식으로 자신의 선을 추구하는 고유한 개체라는 점에서 목적론적 삶의 중심임
- 인간은 본질에서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하지 않음

[2019 수특 95p]

□ 테일러의 자연 존중의 네 가지 의무

- 악행 금지의 의무: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 어떤 생명체도 해치지 말아야 함
- 불간섭의 의무: 개별 유기체의 자유를 간섭하거나 생태계를 조작, 통제, 개조하려는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함
- 성실의 의무: 인간이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야생 동물을 사냥, 낚시하거나 덫을 놓는 등의 기만행위를 금지해야 함
- 보상적 정의의 의무: 인간이 다른 생명체에게 해를 끼쳤을 경우 마땅히 피해를 보상해야 함

[2019 수특 95p]

□ 테일러: 모든 생명체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서 고유의 선을 갖는다. 생명체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는 것은 그것의 외적 활동뿐만 아니라 내적 작용이 목적 지향적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고, 자신의 종을 재생산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게 하는 생명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해 주는 항상적인 경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생명체가 목적론적 활동의 중심이 되게끔 하는 것은 자신의 선을 실현하도록 방향 지워진 유기체의 작용이 갖는 일관성과 통일성이다.

[2019 수특 99p]

- 테일러: 모든 생명체는 의식 유무와 상관없이 자신의 고유한 선을 추구하고, 생존, 성장, 발전, 번식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모든 생명체는 이러한 목적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2019 수특 101p]

- 테일러: 우리가 어떤 존재에게 좋은 것 또는 나쁜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존재는 고유의 선을 갖는다. 모든 생물은 내재적 가치를 지닌 동등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2019 수특 105p]

- 테일러: 생명체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는 것은 그 활동이 목표 지향적이라는 뜻으로, 생명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항상적인 경향성이 있다는 말이다. [2018학년도 수능능력시험]
- 테일러: 모든 생명체는 내재적 가치를 지니며 자기보존을 위해 자신의 고유한 방식으로 각자의 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동등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2018학년도 9월 모의고사]
- 테일러: 모든 생명체는 목적론적 활동의 중심이며 도덕적으로 대우받아야 할 존재이다. 인간은 생명체의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2018학년도 6월 모의고사]
- 테일러: 모든 생명은 '목적론적 삶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자기 고유의 선(善)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은 변화하는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고, 종(種)을 재생산하려는 경향성을 갖는다. [2016학년도 6월 모의고사]
- 테일러: 살아 있는 모든 것은 자신의 고유한 방식으로 자신의 목적을 추구한다. 자기 보존과 행복을 위해 움직인다는 점에서 모든 생명체는 동등하다. [2015학년도 6월 모의고사]

- 생명 중심주의의 한계점
 - ① 동물 중심주의가 간과한 동물 이외의 생명체에 대한 도덕적 지위와 가치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도덕적 고려 대상의 범위를 확장하였으나 생태계 전체를 고려한 것은 아님
 - ② 개별 생명체의 존재론적 가치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개체론의 성격을 지님

③ 자연에 대한 불간섭의 의무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환경 파괴를 방치하여 자연을 더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2019 수특 95p]

5) 생태 중심주의 윤리

□ 생태 중심주의의 특징

- ① 생태적 위기 극복을 위해 동식물뿐만 아니라 무생물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 ②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간 관계와 과정 등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봄
- ③ 전일론(전체론)적 관점에서 개체보다 상호 의존성에 바탕을 둔 생태계 자체에 관심을 가짐

[2019 수특 95p]

□ 레오폴드

- “어떤 것이 생명 공동체의 온전성, 안정성, 아름다움의 보존에 이바지한다면 그것은 옳고, 그렇지 않다면 그르다.”라는 대지 윤리를 주장함
- 인간은 공동체의 정복자가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부분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의 한 구성원임을 주장함
- 도덕 공동체의 범위를 식물, 동물, 토양, 물을 포함하는 대지로 확장시켜야 한다고 봄
- 인간과 자연을 모두 포괄하는 유기체적 생태 공동체 안에서 개체인 인간에게 전체 공동체의 건강한 유지를 위해 도덕적 책임과 의무가 부과된다고 봄

[2019 수특 95p]

- 대지 윤리는 단순히 이 공동체의 범위를 토양, 물, 식물과 동물, 곤 포괄하여 토지를 포함하도록 확장하는 것이다. . . . (중략) . . . 간단히 말해서 대지 윤리는 인류의 역할을 대지 공동체의 정복자에서 그 것의 평범한 구성원이자 시민으로 변화시킨다. 대지 윤리는 인류의 동료 구성원에 대한 존중 그리고 공동체 자체에 대한 존중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레오폴드, “모래 군의 열두 달”, 2019 수특 96p에 인용]

- 레오폴드는 대지를 지배와 이용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인간 중심주의 윤리와 달리 수많은 존재가 서로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는 공동체로 파악하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9 수특 96p]

- 레오폴드: 이제까지 모든 윤리는 단 하나의 전제에 의존해서 진화되어 왔다. 개체는 상호 의존적인 것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중략)… 대지 윤리는 알기 쉽게 말하자면 그런 공동체의 범위를 넓혀 흙, 물, 식물, 동물, 곤 집합적으로 대지를 포함하는 데 있다. [2019 수특 99p]

- 레오폴드: 통찰력 있는 사람들은 이른바 ‘무생물적 자연’을 살아 있는 것으로 간주해 왔다. 이들은 지구와 인간 사이에는 지구에 대한 기계적인 이해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깊고, 밀접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느껴 왔다. …(중략)… 철학은 도덕적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는 지구를 파괴할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즉, ‘죽은 것(무생물)’으로 간주해 왔던 지구도 사실은 일종의 생명적 성질을 소유하며, 따라서 우리는 지구 그 자체를 직관적으로 존중해야 한다. [2019 수특 103p]

- 레오폴드: 대지(大地)는 인간을 비롯한 자연의 모든 존재들이 서로 그물망처럼 얽혀 있는 공동체이다. 따라서 생태계 전체를 하나의 도덕 공동체로 보아 이를 존중해야 한다.
- 레오폴드: 우리는 대지를 사랑과 존중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대지와 인간의 윤리적 관계는 대지에 대한 사랑, 존경, 감탄 없이는 지속될 수 없다. [2019 수특 104p, 105p]

- 레오폴드: 새로운 윤리는 도덕적, 심미적 관점을 담아 옳고 그름의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생명 공동체의 온전함에 기여해야한다. 그러므로 대지의 사용을 이익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2019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 레오폴드: 인류는 대지 공동체의 평범한 구성원이 되어야한다. 이러한 인류의 역할은 동료 구성원과 대지 공동체 자체에 대한 존중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2018학년도 수학능력시험]

- 레오폴드: 생명 공동체의 범위를 대지까지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경제적 관점뿐만 아니라 윤리적·심미적 관점으로도 살펴봐야 한다. [2018학년도 9월 모의고사]

- 레오폴드: 대지는 단순한 토양이 아니며, 식물, 동물과 서로 연결되어 흐르는 에너지의 원천이다. 이러한 생명 공동체는 통합성과 안정성, 아름다움을 보전하려고 한다. [2015학년도 6월 모의고사]

□ 심층 생태주의

- “모든 유기체는 생명의 연결망 속에 본래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 하나의 존재는 개체적 존재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며, 다른 존재와의 관계성 속에서 그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고 봄
- 환경 위기를 극복하려면 환경오염 예방이나 경제 개발의 속도 조절과 같은 피상적 방법이 아니라 세계관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봄
- 인간은 모든 자연적 존재들과 상호 평등한 관계 속에서 공생할 때 큰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고 봄 [2019 수특 96p]

□ 심층 생태주의의 기본 원리

1. 지구상의 인간과 인간을 제외한 생명의 안녕과 번영은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가진다. 이 가치들은 자연계가 인간의 목적을 위해 얼마나 유용한가 하는 문제와는 독립해 있다.
2. 생명체의 풍부함과 다양성은 이러한 가치의 실현에 이바지하며 또한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가진다.
3. 인간들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것들을 만족하게 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풍부함과 다양성을 감소시킬 권리가 없다. [2019 수특 96p]

□ 노르웨이의 철학자 네스는 심층 생태주의의 기본 원리(강령)를 여덟 개로 제시했다. 그는 이들 기본 원리에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변화를 실행할 의무를 지닌다고 본다. [2019 수특 96p]

□ 네스: 환경 위기를 극복하려면 환경오염 예방이나 경제 개발의 속도 조절과 같은 피상적 방법이 아니라 세계관 자체를 바꿔야 한다. …(중략)… 인간은 모든 자연적 존재들과 상호 평등한 관계 속에서 공생할 때 ‘큰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 [2019 수특 104p]

□ 생태 중심주의의 한계점

- ① 개별 생명체의 이익 관심보다는 생태계 전체의 이익을 우선하여 고려하기 때문에 ‘환경 파시즘’ 또는 ‘생태 파시즘’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함
- ② 생태계의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 인간의 무분별한 개입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 보전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기도 함 [2019 수특 96p]

6) 요나스

- 인간 행위의 새로운 유형에 적합하고 새로운 유형의 행위 주체를 지향하는 명법은 다음과 같다. “너의 행위의 효과가 지상에서의 진정한 인간적 삶의 지속과 조화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부정적 형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너의 행위의 효과가 인간 생명의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 파괴적이지 않도록 행위하라.”

[2019 수특 104p]

9-1. 정보 사회와 윤리

- 단원 소개 및 학습 가이드

9강은 쉬운 단원입니다.

사상가로는 표현의 자유를 주장한 밀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2016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서 밀이 출제되었는데요. 9강의 정보 윤리에서도 밀의 입장이 출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밀의 표현의 자유에서 중요한 점은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한’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간단하게 제시문들을 통해서 개념을 학습해봅시다. 9강(단원)은 모든 내용을 다 다루지는 않고 꼭 봐야할 내용만 정리합니다.

1) 밀이 주장한 자유의 한계와 표현의 자유

□ 전체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은 옳지 못하다.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이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머지 사람 전부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만큼이나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중략)… 만일 그 의견이 옳다면 그러한 행위는 잘못을 드러내고 진리를 찾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설령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의견을 억압하는 것은 틀린 의견과 옳은 의견을 대비시킴으로써 진리를 더 생생하고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대단히 소중한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낳는다. …(중략)…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당사자의 의지에 반해 권력이 사용되는 것도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유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명사회에서 시민이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정치권력의 행사도 정당화될 수 없다. 본인 자신의 물리적 또는 도덕적 이익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간섭하는 것도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 당사자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거나 더 행복하게 만든다고, 또는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하거나 옳은 일이라는 이유에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슨 일을 시키거나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선한 목적에서라면 그 사람에게 충고하고, 논리적으로 따지며, 설득하면 된다. 그것도 아니면 간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강제하거나 위협을 가해서는 안 된다. 그런 행동을 억지로라도 막지 않으면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일을 하고 말 것이라는 분명한 근거가 없는 한, 결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에 한해서만 사회가 간섭할 수 있다.

[밀, “자유론”, 2019 수특 110p에 인용]

□ 밀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면 진리를 찾을 기회를 잃거나 진리를 명확하게 드러낼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경우라고 강조한다.

[2019 수특 110p]

- 어떤 의견의 표현을 억압하는 것은, 그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뿐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에게도 많은 것을 잃게 한다. 만약 그 의견이 옳다면 오류를 바로잡고 진리를 주장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 만약 그 의견이 옳지 않다면 오류와 정면으로 대결함으로써 진리에 대한 보다 분명한 인식과 선명한 인상을 얻을 수 있는 이점을 놓치게 된다. 권력이 문명사회 구성원들의 의지에 반하여 그들에게 정당하게 행사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은 다른 사람에 대한 해악을 예방하는 것이다.

[2019 수특 115p]

10강 사회 윤리와 사회 정의

- 단원 소개 및 학습 가이드
10단원은 '정의'를 다루는 단원입니다.

사회 정의/ 분배 정의/법적 정의(형벌, 사형제)
이렇게 3개의 테마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저 3가지 정의론은 항상 까다롭게 출제되기 때문에 주의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작년 수능에서는 분배 정의가 오답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생활과 윤리에서 가장 효과적인 개념 공부 방법 중 하나는 기출 문제의 제시문과 EBS 교재에 수록된 제시문을 반복해서 읽어보는 것입니다.

각 학자의 원전 텍스트가 교육과정 수준으로 요약 발췌된 것이 바로 그 제시문들이기 때문에, 제시문 자체로 학습 자료로 삼아야 합니다.

역대 수능을 분석해보면, 기출 선지와 EBS 선지뿐만 아니라 기출 제시문과 EBS 제시문 내용 중 특정 구절이나 개념이 킬러 선지로 출제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제시문들의 꼼꼼한 학습이 필요 합니다.

10-2. 니부어 개념의 모든 것

10강에서는 니부어 사회 윤리, 분배 정의, 사법 정의(형벌, 사형제)라는 중요한 킬러 주제들이 출제됩니다. 중요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니부어의 사회 윤리를 고찰해볼 것입니다.

<1. 니부어의 개념의 주요 내용>

(1) 니부어 이해의 키워드

1 변증법적 사고

부정적인 것에는 긍정적인 것이 있고, 긍정적인 것에는 부정적인 것이 있다. 이러한 모순되는 두 사항, 정(正, 긍정)과 반(反, 부정)은 서로의 모순을 지양하며, 합(合, 부정의 부정)이라는 단계를 거쳐, 긍정성과 부정성이 더 높은 차원에서 극복, 종합, 통일된다. 니부어는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가 서로 정반합의 과정을 거쳐 서로의 긍정성과 부정성이 높은 차원에서 극복, 종합, 통일된 상태를 '정의'의 상태로 본다. 하지만, 그러한 정의는 고정되어있지 않다. 변증법적 과정을 거쳐 더 높은 정의로 끊임없이 나아간다.

2 사회 문제의 원인

개인의 이기심은 사회에서 집단적 이기심으로 누적되어 심화된다. 각 집단은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집단이기주의 성향을 보인다. 각 집단이 가진 권력, 힘의 크기가 다른 것이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된다. 힘이 센 집단이 약한 집단을 억압, 착취하곤 한다.

3 힘의 균형

니부어는 집단 간 힘의 차이로 인한 불균형을 부정의의 원인으로 보았다. 니부어에 따르면, 강제력을 사용하여, 강한 집단의 힘을 억제해서 약한 집단과의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이다. 니부어의 '힘의 균형'에 대한 생각은 제2차 세계 대전: 나치즘, 파시즘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잘 드러난다. 니부어의 사상은 국제 관계에서 힘의 균형을 강조하는 현실주의에 큰 영향을 주었다. 니부어를 이해할 때, 현실주의를 떠올리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4 강제력 사용의 조건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강제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강제력은 피해를 동반하는 비합리적 수단이기 때문에, 힘의 균형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강제력은 언제나 선의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이기심이 아닌 이타심(도덕성)을 동기로 삼고, 부정의를 해결하여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삼을 때, 그러한 강제력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다. 니부어는 이를 '올바른 정치적 도덕성은 인간 사회에서 강제력을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최소화함으로써, 인간 사회에 있는 합리적, 도덕적 요소들에 가장 잘 부합될 수 있는 유형의 강제력을 사용하도록 권고함으로써, 그리고 강제력이 사용되는 목적과 목표의 차이를 밝혀줌으로써 쓸데없는 갈등의 악순환에 빠진 사회를 구원하고자 할 것이다.'라는 말로 설명한다.

5 니부어의 정의(正義)

니부어의 정의(justice)는 그 자체로 독립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니부어의 정의란 평등, 자유, 질서가 조화를 이룬 상태를 말한다. 이는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의 근사치가 사회적으로 실현된 상태이다. 그러한 까닭에 니부어의 입장에서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수단들은 선의지의 통제에 따라 인간의 자유, 평등, 질서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 경우 그러한 수단들은 사회적, 도덕적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것이다.

6 기독교에 기반을 둔 정치적 현실주의(political realism)

니부어의 사상은 기독교에 기반을 둔 정치적 현실주의(political realism)라 평가받는다. 이때, 니부어의 정치적 현실주의란 ① 정치적 상황에서 각 주체들의 자기이익(self interest) 과 권력(power)의 요인을 고려하는 경향, ② 이상주의와 대립하는 경향을 말한다.

①은 위에서 설명한, 인간의 이기심과 집단 간의 힘의 불균형을 고려하는 사회 윤리를 강조한다는 것이고, ②는 ‘도덕적 냉소주의(비관론, 무도덕, 도덕적 회의주의) : 마르크스주의’와 ‘도덕적 낙관주의(합리적 , 종교적 이상주의) : 합리주의적 도덕론자’를 비판하는 것이다.

(2) 니부어의 삶과 그의 문제의식

니부어는 기독교 신학을 전공한 신학자이다. 그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예일대학 신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다니며 신학을 공부했다. 그 후 니부어는 미국의 중소 공업 도시인 디트로이트에서 13년간 목회 활동을 하였는데, 이때 경제적 착취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노동자들의 희생과 고통을 목격하였다. 니부어가 목회를 하던 디트로이트의 노동자들은 대부분 자동차 왕 헨리 포드의 공장에서 일을 했다. 포드는 그 당시 미국에서 노동자에게 고임금을 주면서, 값싸고 질 좋은 차를 만드는 영웅으로 칭송받았었는데, 실상은 알려진 것과 달랐다. 포드는 노동자에게 고임금을 주었지만, 장시간 강도 높은 노동을 하도록 강요했다. 결국 노동자들은 쉽게 병이 났으며, 병이 날 경우 아무런 보상도 없이 해고되었고, 빈자리는 또 다른 건강한 노동자로 교체되었다. 대량 생산을 위해서 모든 것을 기계화하는 현대 산업사회의 인간성 상실을 뼈저리게 느낀 니부어는 그러한 사회적, 경제적 부정을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초기 니부어는 디트로이트의 기업가들, 공무원, 정치인들을 만나 도덕적인 해결 수단인 합리적인 대화와 설득을 시도했지만 특권 계급의 사람들은 오히려 노동자들이 게으르고 무식하다며 노동자들의 도덕성을 비판하고, 자신들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노사 간의 갈등이 심해졌고, 그렇게 개인 윤리적 해법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계속된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던 도중, 미국에 세계 대공황이라는 경제 위기가 닥치게 되었다. 공황 위기 속에서 기업들은 노동자를 해고하고, 기존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는 등 노동자에게 더 큰 희생을 요구하였다. 니부어는 더 악화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고심했다. 그렇게 대공황으로 미국 경제가 휘청거리자,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이라는 경제 정책을 통해 사회 문제를 극복하고자 했다. 처음에 니부어는 뉴딜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뉴딜 정책이 성공하여 경제가 개선되고, 노동자들의 삶이 개선되어, 결국 노사 갈등이 완화되는 것을 목격하였다.

니부어는 목회 현장에서 마주친 비참한 사회 문제들을 개인 윤리적 해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오히려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사회적 해법, 정치적 방법, 사회적 강제력이었던 것이다. 니부어는 인간의 도덕성과 이성애 호소하는 ‘합리주의적 도덕론’을 비판했

다. 그들은 이기적인 사회집단 간의 힘의 불균형과 불평등을 이해하지 못한다. 사회 문제에 개인 윤리적 해법만을 대입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니부어는 사회 문제에는 '도덕성이 높은 개인들이 승인하지 않는' 강제적인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다. 니부어는 이러한 사회 현실을 개혁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재해석된 신앙, 새로운 사회사상을 만들고자 했다. 이것이 니부어가 가졌던 문제의식이다.

(3) 도덕성이 높은 개인들, 이상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개인 윤리적 해법

니부어가 살던 시기에는 인간의 이성과 도덕성에 대한 낙관론적 이상주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자유주의(합리적 이상주의)자들과 도덕주의자(종교적 이상주의자)들은 인간의 도덕성이 타락했으며, 인간이 무지하기 때문에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단순히 이성, 종교적 사랑, 도덕성을 강조하는 것만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이성을 갖춘 사람들의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 그리고 신 앞에서 죄를 뉘우치는 것, 종교적 선의지를 통해 도덕성을 회복하는 것과 같은 개인 윤리적 해법을 사회 문제에 적용하고자 한 것이다. 바로 그들이 니부어가 말하는 '도덕성이 높은 개인들'이다.

(4) 니부어의 인간에 대한 현실주의적 이해

개인 윤리를 강조하는 이상주의자들과는 달리, 니부어는 실제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개인 윤리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부정의를 목격했다. 포드를 비롯한 특권 계급들은 노동자들을 희생시키며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었고, 그들의 이기심은 도덕적 설교와 이성적 대화를 통해 제어할 수 없었다. 견제 받지 않는 집단적 이기심, 권력이 불러온 사회적 부정의를 극복하기 위해 니부어는 인간과 사회를 현실주의적으로 재해석하였다. 먼저 니부어는 인간에 대해 분석하여 개인 윤리를 정립하였고, 그에 대응하는 이론으로, 집단 윤리(사회 윤리)를 정립하였다. 이 두 윤리 사이의 이중적인 구조가 서로 변증법적으로 조화되며, 니부어 사상의 중심을 이룬다.

니부어의 인간관은 이원론적이다. 인간은 신의 형상을 본떠 만들었다는 점에 있어서 이타적 본성을 지녔다.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타인의 이해관계를 고려하고,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은 육체를 가진 유한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점에서 이기적 본성을 지녔다. 인간은 타인의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부정직한 행동을 하곤 한다. 인간은 이렇게 이중적이고, 역설적인 동시에, 모순적인 존재이다. 인간은 내적으로 이타적 충동과 이기적 충동 사이의 갈등을 겪곤 한다. 하지만, 인간은 도덕성과 이성적 능력을 발휘하여 이기적 충동을 억제하고, 이타적 행동을 하며, 타인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는 도덕적 모습을 보이곤 한다.



(5) 니부어의 사회에 대한 현실주의적 이해

니부어의 사회 윤리는 한마디로 ‘개인들의 비이기심이 국가(집단)의 이기심으로 전환된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합리성을 통해 이기적 총동을 억제할 수 있지만, 집단적 차원에서는 그러한 억제가 이뤄지지 않는다. 집단이 커질수록 집단적 이기심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집단적 차원에서 합리성(이성)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이다. 더 나아가 집단적 이기심은 이성을 이용하여 이기심을 충족하고자 한다. 집단은 이성을 활용해 술수를 부려 상대 집단을 파괴하고, 자기 집단의 이익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끝없이 상상한다. 그 과정에서 집단적 이기심은 오히려 심화되는 것이다.

개인의 이타심도 마찬가지이다. 개인적 차원에서 이타심은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고, 타인을 돕는 도덕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 집단은 자신들의 이기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개인의 이타심을 이용한다. 군인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타국과의 전쟁에 나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처럼, 도덕적이고 이타적인 개인들은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맹목적인 충성을 바치며, 자신을 희생하곤 한다. 이처럼 개인의 이성과 이타심조차 집단적 차원에서는 타락하고, 왜곡되기 쉽다.

(6) 개인과 사회 간의 관계: 상호보완적, 긴장 관계

인간 사회는 개인들과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개인과 집단은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는 모순이 생긴다. 이 둘 사이의 모순은 서로 배타적인 것도 아니며, 절대적인 것도 아니다. 그러나 쉽게 조화될 수도 없는 것이다.

- 정리

개인: (이타심&이성 > 이기심) : 개인은 이기적 총동을 선의지, 이타적 총동, 이성을 통해 제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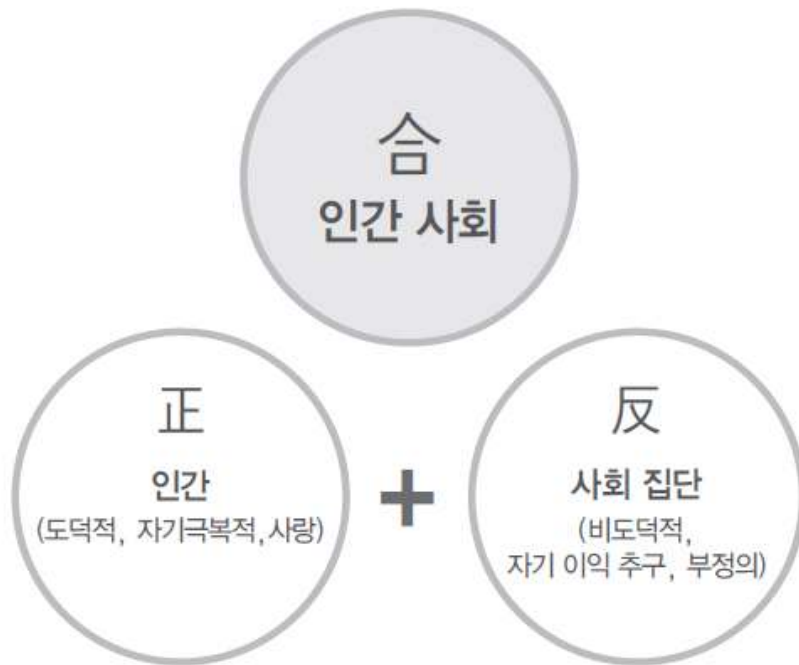
→이상: 사랑, 이타심

→개인의 도덕적 문제 해결: 개인의 도덕성, 의지, 결단에 따른 해결. 도덕적, 합리적 권고와 설득을 통해 해결

집단: (이타심&이성 < 이기심) :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 정치적 성격,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이상: 정의

→사회 문제는 개인 윤리적 해법인 도덕적, 합리적 권고, 설득만으로 해결 X. 따라서 개인 윤리 적용 X, 사회 윤리적 해법 필요.



: 이원적 사회상 → 도덕적일 수 있는 인간(正)과 비도덕적인 집단(反)이 만나 인간 사회를 구성한다. 이 관계는 모순적이지만 그 모순이 절대적이지는 않다. 개인이 추구하는 이타심과 사회 집단이 추구하는 정의는 더 높은 단계에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고,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정의가 실현된다. 모순으로부터 발생하는 개인과 사회 집단의 긴장과 갈등은 이때 해소된다. 니부어는 그러한 조화를 추구한다.

(7) 사회적 문제의 원인

니부어는 사회적 문제의 궁극적 원천은 인간의 이기심에 있다고 본다. 사회 집단은 이기심을 통제할 수 있는 합리적 능력이 없다. 집단을 이루고 있는 개인들의 이기적 충동은 집단의 이익이라는 하나의 공통된 충동으로 결합되어 누적되고, 심화된다.

집단들은 이기적이며,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힘을 갖고 있다. 현실에서 집단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집단들이 가진 힘이 불균형하기 때문이다. 평가원 모의평가 기출에서는 이를 '사회 갈등이 집단 간 권력 불균형에 의해 지속된다.', '집단 간의 관계는 정치적인 힘의 비율에 의해 수립된다.', '집단 간 세력 불균형은 사회 갈등과 부정의를 지속시킨다.' 등으로 표현한다.

현실에서 집단들 간의 힘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불평등이 힘의 차이를 불러왔다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이기적'이라는 단어는 자신의 이익(interest)을 추구한다는 의미로, 이기심은 경제적 욕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니부어가 디트로이트에서 목격한 것과 같이 특권계층과 노동자 계층 간의 갈등도 각 집단의 이익 추구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특히,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특권계층이 노동자 계층을 착취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집단들은 집단과 집단 사이의 이익 충돌이 발생할 경우, 집단의 요구와 필요성을 검토해서 협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힘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 주의할 것 : 사회적 갈등의 궁극적 원천이 개인, 인간의 이기심이라고 해서, 사회적 갈등이

개인의 도덕적 '타락'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이기심은 인간이 타고난 이기적 충동에 따른 것으로, 도덕적 '타락'이 아닌, 그냥 본성일 뿐이다.

(8) 사회적 문제에 대한 니부어의 해법

부정의의 원인은 대립하는 이해관계이고, 각 집단의 힘의 차이이다. 양심이나 도덕적 호소, 설득과 같은 개인 윤리적 해법만으로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개인의 양심과 이성만을 강조할 경우, 집단적 이기심을 더 키우는 결과를 가져온다. 사회적 문제에 대해 니부어가 제시하는 해법은 바로 '힘의 균형'이다. 힘의 차이에 따라 집단 간의 갈등이 발생하면, 강한 쪽의 힘을 억제하고 약한 쪽의 힘을 늘려서 힘의 균형을 이루면 된다는 논리이다. 예컨대, 헨리 포드로 대표되는 특권 계급과, 찰리 채플린으로 대표되는 노동자 계급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특권 계급은 경제적, 정치적 힘이 강하고, 노동자 계급은 상대적으로 약하므로, 결국 디트로이트에서 벌어졌던 노동자 착취와 같은 부정의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니부어는 제3의 힘인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보았다. 정부가 '뉴딜 정책', '사회 복지 정책' 등과 같은 정치적 방법, 강제적 수단을 써서 특권 계급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힘을 빼앗고, 공공 일자리 창출을 통해 노동자 계급에게 경제적, 정치적 힘을 실어준다. 바로 이것이 니부어가 생각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법이다. 니부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권력은 권력에 의해 도전받아야 한다.'

'힘은 힘으로 맞서야 한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합리적 수단, 정치적 권력, 사회적 강제력을 이용해 투쟁해야 한다.'

(9) '강제력' 사용의 제한 조건: 도덕성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강제력의 사용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강제력은 위험성을 지닌다. 빈자에 대한 복지 정책을 한다는 좋은 명분을 지닌 정책도 부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진 재산과 그 재산에 대한 자유를 정부에게 강제로 빼앗기는 것과 같다. 한편, 정부는 하층, 중산층 노동자 계급보다 상류층인 특권 계급의 이익에 봉사하는 경우가 많다. 디트로이트의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 노동자가 아닌 헨리 포드와 같은 특권 계급의 이익을 우선시했다는 현실적 경험으로부터 니부어는 정치적 강제력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니부어는 '정치는 양심과 힘이 만나는 지대'라고 말했다. 힘은 양심에 따라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특정 계층의 사적 이익이 아닌 사회의 정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어야만 한다.

니부어는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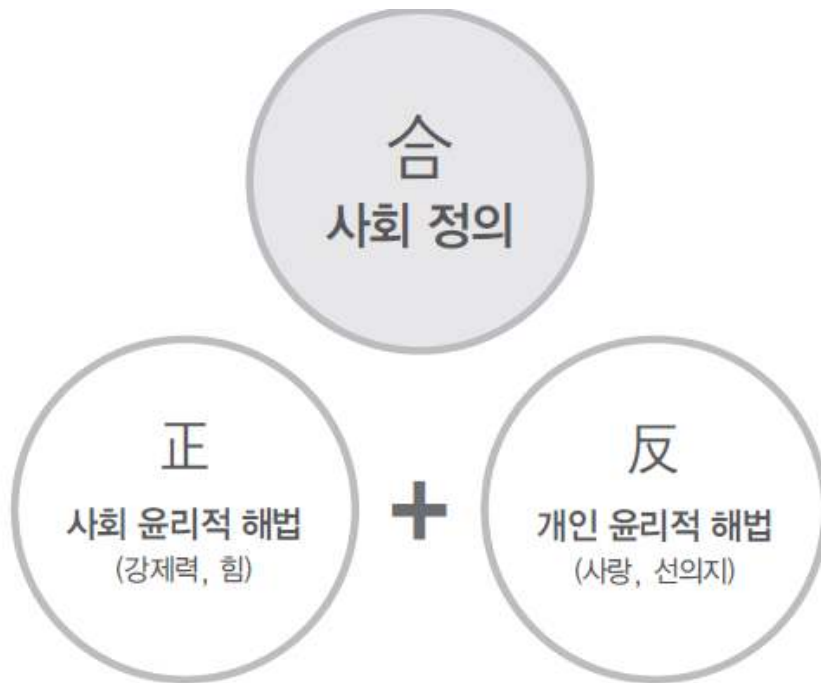
"강제력은 분명 위험한 도구이다. 강제력은 사회적 악을 양산해내므로, 현명한 지성이 있는 사회라면 그것들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해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이성이 강제력을 도덕적 이상의 실현 도구로 삼는다면, 이성은 이를 최고의 목적을 위한 봉사에 사용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합리적, 도덕적 세력에 가장 잘 어울리고 위험성이 가장 적은 형태의 강제력을 선택할 것이다."

"올바른 정치적 도덕성은 인간 사회에서 강제력을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최소화함으로써 인간 사회에 있는 합리적, 도덕적 요소들에 가장 잘 부합될 수 있는 유형의 강제력을 사용하도록 권고함으로써, 그리고 강제력이 사용되는 목적과 목표의 차이를 밝혀줌으로써 쓸데없는 갈등의 악순환에 빠져있는 사회를 구원 하고자 할 것이다."

(10) 윤리의 이중적 차원(역설적, 상호성, 모순과 갈등): 개인 윤리적 해법과 사회 윤리적 해법의 조화

니부어는 사회가 올바른 종류의 강제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본다. 올바른 종류의 강제력이란, 선의지의 통제를 받아야 하며, 합리성과 도덕성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 사회 윤리: 부정의한 집단적 힘에 대응하는 정치적 강제력을 행사하여, 힘의 균형을 이뤄내야 한다. 강제력은 정의 실현의 전제조건이다. 하지만,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폭정으로 그를 위협성이 있으므로, 강제력만으로는 안 된다.

- 개인 윤리: 종교적 사랑, 도덕적 선의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 타인의 생활과 복지를 위한 도덕적 책임감



(11) 강제력은 도구일 뿐,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폭력은 비도덕적인가? 니부어가 비판하는 대상인 합리적인 도덕론자들은 폭력을 본질적으로 비도덕적인 방법(intrinsically immoral)으로 가정한다. 하지만 니부어는 폭력, 혁명, 전쟁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강제력은 도덕적이지도, 비도덕적이지도, 선 하지도, 악하지도 않다고 했다. 니부어는 사회적 정책, 폭력과 같은 것은 그 자체로 도덕적 가치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니부어의 입장에서 그것들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 수단'일 뿐이었다. 만약 그것들의 의도(동기)와 목적이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것들은 도덕적 정당성을 가진다. 예컨대, 사랑의 매와 같이 도덕적이고, 합리적이고,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폭력은 가족 내의 사회 집단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기에 도덕적으로 승인(용인)되며, 정당화된다. 어떤이는, 사랑의 매는 '강도(세기)'가 약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폭력 중 가장 강도가 센 '혁명', '전쟁'은 어떨까?

혁명: 니부어는 사회의 특권 계급이 정부를 이용해서 부당한 공권력, 경찰력을 휘두르며 노동자를 탄압할 경우, 혁명을 통해 옳지 못한 공권력에 저항하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방법)이며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고 보았다.

전쟁: 니부어는 전쟁 중에서도 정의로운 전쟁(Just war)이 있다고 본다. 나치즘과 파시즘은 인간의 자유와 평등, 질서를 어지럽히는 부정의한 이념이었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악이었다. 니부어는 이들에 대하여 '자유, 평등, 질서'와 같은 정의를 실현하는 전쟁을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보았다. 니부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참전을 외치며 자신이 직접 군대 종군 목사(군목)가 되고자 신청까지 했었다.

결론적으로 니부어에게 정의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그 강도가 얼마나 세든, 그 피해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든, 그것과 무관하게 정당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명심할 것은, 그렇게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비합리적 수단은 반드시 선의지의 통제를 받아서 선용(善用)되어야만 한다.

(12) '강제력'이 도덕적 정당성을 얻기 위한 조건

니부어는 강제력이 사회적, 도덕적으로 승인되고 정당화될 수 있음을 여러 번 밝혔다. 권력은 암묵적이거나 공공연한 동의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민주주의 긍정) 힘의 균형을 위한 강제력은 사회적으로 반드시 요청되는 것이어야 하며, 도덕적으로 인가, 허가, 용인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강제력을 합리적, 도덕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합리적인 사회라면 강제력과 갈등의 제거보다는 강제력이 사용되는 목적의 정당성 여부에 더 큰 강조점을 둘 것이다. 강제력의 사용이 누가 보아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사회적 목적 달성에 기여한다면, 그 사회는 강제력을 정당화할 것이다.'

'결론은 평등한 정의란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장 합리적인 궁극의 목적이라는 사실이다. 만일 이와 같은 결론이 올바르다고 인정된다면, 보다 더 큰 평등을 쟁취하기 위한 사회적 분쟁은 특권의 영구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반 노력을 거부해도 되는 도덕적 정당성을 갖는다.', '만일 평등과 정의가 이기심의 상호 투쟁에 의해 달성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이웃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람들의 이기심을 억제함으로써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라면 사회는 이기심에 대한 제재를 승인하지 않을 수 없다.'

(13) 강제력이 사용되는 목적과 목표의 차이를 밝혀 주는 것

"강제력이 도덕적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그 목적과 목표의 차이를 밝혀주어야 한다." 라고 니부어가 말했는데, 목적과 목표의 차이가 뭘까? 한글로는 비슷비슷한 단어라서,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저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멋대로 추측한다. 대부분 그냥 뭉개는 설명으로 "목적과 목표라는 것이 합리적이고 도덕적으로 합당해야 한다."라는 식의 설명으로 훑고

지나간다. 정말 목적, 목표가 합리적이고 도덕적으로 합당해야 할까? 그런데 왜 니부어는 목적과 목표의 차이를 분명하게 해야한다며, 두 용어를 다르다는 식으로 말했을까? 엄연히 목적과 목표는 서로 다르다.

목적은 그 사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사회 정의 실현을 말하는 것이고, 목표는 그 목적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달성해야 할 과제들을 말한다. 그 과정에서 폭력과 강제력, 생명과 재산의 피해 등 불가피한 피해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목적이 정의 실현이라면, 그러한 목표들 또한 정당하다는 것이다.

니부어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원문에서, “by discriminating between the purposes and ends for which coercion is used.”라는 표현으로 목적(ends)과 목표(purposes)를 구분하고 있다.

니부어는 원문에서 목적(ends)을 ‘the end of equal social justice’ 와 같이 사회적, 도덕적, 합리적으로 승인될 수 있는 궁극적인 목적(ultimate objective)으로 정의한다. 또한, 목표(purposes)는 사회적 강제력의 실제적인 실행 목적을 말한다. 원문에서는 궁극적 목적인 정의(ends, ultimate objective)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면, 목표(purpose)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 강제력이 비록 폭력적이고 위험하며, 갈등과 강제력을 사용할지라도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승인될 수 있다는 말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니부어는 궁극적인 목적인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강제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 강제력 중 대표적인 것이 정치적, 제도적 해결책이다. 한 사회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칠 때, 그 정책들이 수행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을 것이다. 헨리 포드의 주머니를 털어 찰리 채플린에게 나눠주자는 목표(purposes)로 시행되는 재분배 정책이 있을 수 있다. 이때 특권 계급들은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될 것이며, ‘왜 우리가 번 돈을 빈자들에게 나눠주어야 하는가?’ 하는 불만이 생겨나 조세 저항 등 쓸데없는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갈등은 계급적 갈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재분배 정책을 시행하는 궁극적 목적이 불평등한 경제적 힘을 평등하게 만들어줌으로써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면, 그 사회는 재분배 정책과 같은 사회적 강제력을 사회·도덕적으로 정당화할 것이다.

* 참고: 전쟁과 같이 가장 폭력성이 심한 강제력도 같은 논리로 정당화 될 수 있다. 사회 정의를 달성하려는 목적을 지녔다면, 부정의한 세력인 독일을 상대로 전쟁을 하는 것(목표)도 정당하다. 니부어는 정의로운 전쟁(just war)이라는 표현을 통해 세계 2차 대전의 미국의 전쟁을 정당화했다.

(4)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도덕성(이타심)과 합리성의 역할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제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강제력만으로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강제력은 선의지의 통제를 받아야 하며, 도덕성과 합리성에 잘 부합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개인 윤리적 방법들이 공헌할 수 있다. 먼저, 개인의 이타적 태도는 사회 정의 실현에 반드시 필요하다. 니부어는 이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개인적 양심의 도덕적 통찰과 성취는 사회생활에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 개인의 도덕적 상상력이 동료 인간의 요구와 이익을 이해하지 못하면 진정한 정의는 달성될 수 없다. 또한, 정의 달성을 위한 비합리적 수단이 도덕적 선의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사회에 엄청난 위험을

가할 수 있다.”

다음은 2014 수능의 제시문에서 언급된 개념이다.

“사회와 개인이 지향하는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서로 다르지만 양자 사이의 모순은 절대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개인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사회 정의는 달성될 수 없다.”

평가원 기출 선지에서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개인적 양심도 공헌을 한다.’, ‘개인의 양심적 통찰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개인의 도덕적 성찰이 정의 실현에 기여한다.’, ‘도덕적 설득과 정치적 강제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개인의 합리적 태도 또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이성은 집단적 이기심을 억제하는 데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집단 내의 부정의한 존재를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5) 강압적인 강제력(coercion)의 최소화를 지향한다.

니부어가 강제력의 최소화를 지향했다는 것이 생소하다면, 조금 전에 읽어보았던 지문을 다시 한 번 읽어보자. 특히, 올바른 정치적 도덕성은 인간 사회에서 ‘강제력을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최소화함으로써’라고 한 부분에 주목하자. 니부어는 사회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사회적 강제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지만, 그러한 강제력이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강제력을 통해 부정의를 해결하고자 할 때는 항상 무고한 사람들이 다치는 등의 부수적인 피해가 동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바른 정치적 도덕성은 강제력의 최소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예컨대, 기업가 집단과 노동자 집단이 싸우고 있고, 서로의 힘의 차이를 보면 기업가 집단이 더 세서 노동자 집단을 부당하게 공격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니부어는 법으로 노동자 집단의 편을 들고, 기업가 집단의 부정의한 폭력(착취)을 강제적으로 금지시킬 것이다. 이러한 강제력은 선의지의 통제를 받을 경우 정당하다. 하지만, 강제력은 부수적인 피해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니부어는 두 집단 간의 갈등을 이성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하고 (노사정 협의회, 중재) 꼭 필요한 상황에서 적절히 사회강제력(법→최소임금 지정)을 사용해 부정 의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6) 이를 보기 좋게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니부어는 사회적 강제력을 중시했다. 그런데 강제력은 도덕성이 높은 개인, 즉 도덕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비도덕적 수단이 되는 것이고 합리주의적 이상주의자, 즉 대화와 토론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에서는 비합리적 수단이 되는 것이다. 이들과 달리 니부어는 개인 윤리적 해법인 도덕성, 합리성만을 강조하지 않고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니부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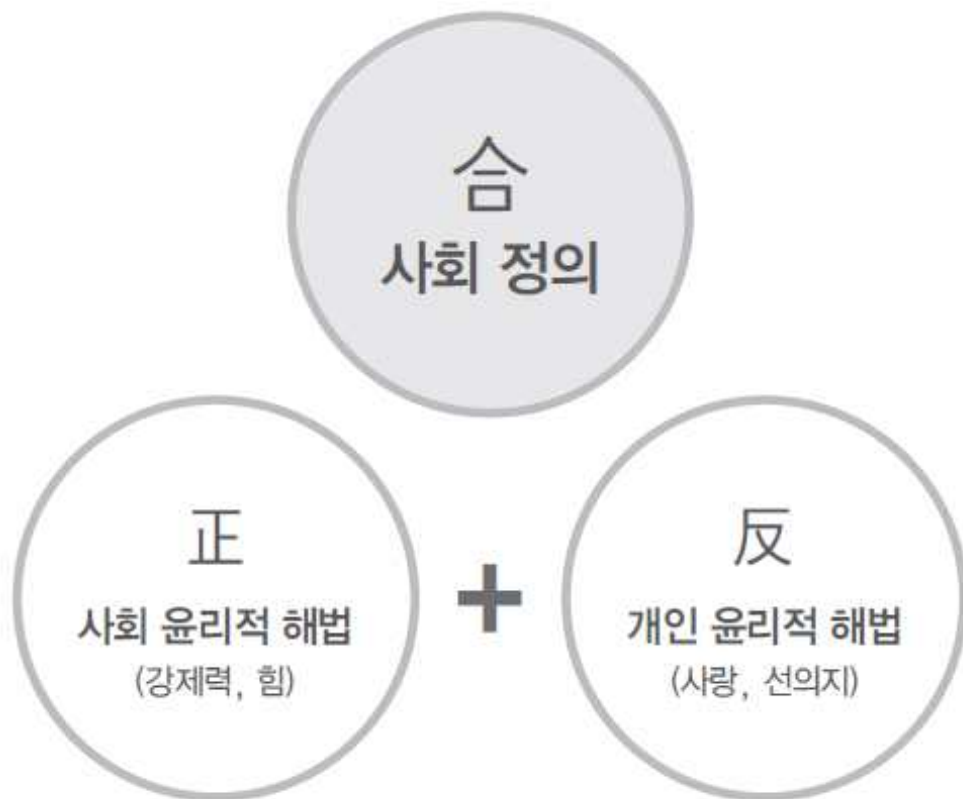
㉠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그러나 합리적인 도덕론자들이 보았을 때에는) 비도덕적인 수단,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그러나 합리적인 도덕론자들이 보았을 때에는) 비합리적인 수단을 추구하며,

㉡ 도덕성에 기반을 둔 강제력, 도덕성에 기반을 둔 (그러나 합리적인 도덕론자들이 보았을 때에는) 비도덕적인 수단, 도덕성에 기반을 둔 (그러나 합리적인 도덕론자들이 보았을 때에는)

비합리적인 수단을 추구하고,

㊸ 합리성에 기반을 둔 강제력, 합리성에 기반을 둔 (그러나 합리적인 도덕론자들이 보았을 때에는) 비도덕적 수단, 합리성에 기반을 둔 (그러나 합리적인 도덕론자들이 보았을 때에는) 비합리적인 수단을 추구하고.

이때 선의지, 도덕성, 합리성에 따른다는 말은 비록 강제력이라는 수단 자체는 (합리적인 도덕론자들이 보았을 때) 비도덕적이고, 비합리적일지 모르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 집단을 정의롭게 만드는 것'이므로 사회적, 도덕적 승인과 용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17) 니부어의 이상: 정의의 실현

마지막으로, 니부어가 추구한 사회 윤리의 이상인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니부어는 기독교의 목사이자 신학자로서 신의 아가페적 사랑이 현실에서도 구현되기를 소망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원죄(original sin)에서 비롯된 육체적 유한성, 이기적 충동과 같은 한계 때문에 불가능하다. 니부어는 현실주의적으로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았다. 개인의 관점에서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이상은 '이타심'이다. 자신의 이익에 대해 무심하고, 타인의 이익을 존중하는 마음이다.

또한 자신을 희생하고, 타인을 돕는 마음이다. 사회의 관점에서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이상은 '정의'이다.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집단적 이기심을 억누르고, 힘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강제력을 필요로 한다. 동시에 개인들의 선의지와 도덕성, 이성적 능력을 통해서 사회의

부정의를 인식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의 고통과 욕구(이익)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선의지를 바탕으로 사회를 개혁해나가야 한다.

이렇게 해서 니부어가 말하는 이타심의 의미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으리라 본다. 그런데 니부어가 말하는 '정의'의 개념은 무엇일까? '정의'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니부어의 사상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니부어가 말하는 정의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아마 니부어가 생각하는 '정의'를 설명하자면 종교적인 설명을 해야 해서 교과 과정에 빠진 것 같다. 그러니 종교적인 부분은 니부어 사상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배경 지식 정도로만 생각하자.

위에서 말했듯 니부어의 정의(justice)는 기독교에서 신의 아가페적 사랑을 사회 집단 속에서 구현하고자 만든 개념이다. 정의란 그 자체로 독립적인 상태가 아니다. 그 자체로 완전하고 정적(靜的)인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니부어는 사랑이 없는 정의는 정의가 아닌 권력 균형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니부어가 말하는 정의란 아가페적 사랑에 대한 무한히 근사치로서 상승해나가려는 변증법적 과정에 놓여있는 동적(動的)인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니부어에게 있어서 정의는 하나의 정해진 개념이 아닌 자유, 평등, 질서라는 정의의 보편적 원칙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삼위일체의 성격을 지닌다.

아래의 표는 이상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배경지식으로만 읽고 넘어가도록 하자.

중요 용어	개념
개인의 이상	이타성(자기 이익에 대한 무관심), 사랑
사회 집단의 이상	신의 아가페적 사랑을 사회 집단에서 근사(近似)하게 구현한 것. 자기 이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려는 것을 제한. 정의의 보편적 원칙(평등, 자유, 질서)이 서로 균형을 갖추며, 조화되는 것.
자유	사회 속에서 개인의 종교적 가치, 윤리성을 자유롭게 실현 (독단적, 절대적 자유X)

평등	경제적·사회적 평등, 신 앞에서의 평등, 신이 만든 고귀한 존재, 인간 존엄성, 인권의 보장,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독단적, 절대적 평등X)
질서	균형과 조화

1) 니부어

□ 니부어의 사회 윤리적 관점 :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 현대 사회의 복잡한 윤리 문제는 개인의 양심과 덕목의 실천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움
 -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인 사람도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비도덕적으로 행동하기 쉬움
 - 개인의 도덕적 행위는 집단의 도덕성을 결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회 집단의 구조와 제도가 개인 행위의 도덕성을 결정할 수 있음
 - 개인의 도덕성 함양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와 제도의 도덕성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함
- [2019 수특 118p]

□ 인간 사회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제반 문제를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 사회의 요구와 양심의 요청 사이에는 여간해서 화합되기 힘든 지속적인 갈등이 발견된다. 간단히 정치와 윤리의 갈등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모순과 갈등은 도덕 생활의 이중적 성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인데, 그 하나는 개인의 내면적 생활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생활의 요구이다. 사회를 중심에 놓고 보면,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정의이다. 그리고 개인을 중심에 놓고 보면,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이타성이다. 사회는 이기심, 반항, 강제력 등과 같이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로부터 도덕적 승인을 얻어낼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게 될지라도 결국에는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은 자신보다 뛰어난 것을 보고서 자신을 잃기도 찾기도 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실현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두 도덕적인 입장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며, 양자 사이의 갈등도 절대적이지 않다. 그렇다고 쉽게 조화되지도 않는다.

[니부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2019 수특 119p에 인용]

□ 니부어는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를 구분하면서 이 둘 사이에는 지속적인 갈등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집단 간 불균등한 힘의 분배로 말미암아 부정의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외적 강제력을 동원하여 정의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적 방법은 개인의 도덕성을 배제하지 않으며, 개인의 도덕성, 즉 선의지의 통제를 받으며 수행되어야 한다.

[2019 수특 119p]

- 오늘날의 문화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집단 이기주의가 갖는 힘과 범위, 그리고 지속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한 집단에 속하는 개인들 간의 관계를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조정과 설득에 의해 확립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는 이런 일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집단들 간의 관계는 윤리적이기보다는 지극히 정치적이다. 즉 집단들 간의 관계는 각 집단이 갖고 있는 힘의 비율에 따라 수립된다.

[2019 수특 125p]

- 인간 사회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제반 문제를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 사회의 요구와 양심의 요청 사이에는 여간해서 화합되기 힘든 지속적인 갈등이 발견된다. 사회를 중심에 놓고 보면,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정의이다. 그리고 개인을 중심에 놓고 보면,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이타성이다. 사회는 강제력과 같이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로부터 도덕적 승인을 얻어 낼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게 될지라도 결국에는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은 자신보다 뛰어난 것을 보고서 자신을 잃기도 하고 찾기도 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실현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두 도덕적인 입장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며, 양자 사이의 갈등도 절대적이지 않다.

[2019 수특 128p]

- 개인으로서 각 사람들은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봉사해야 할 것과 서로 간의 정의를 확립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 그런데 집단으로서의 개인들은 스스로 집단의 힘이 명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따른다. 가장 높은 수준의 종교적 선의지를 지닌 개인들로 이루어진 국가도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 그들의 선의지는 조국에 대한 충성이라는 여과를 거쳐 국가 이기주의를 확대하는 경향까지 생겨나게 한다.

[2019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 집단과 집단 사이의 관계는 항상 윤리적이기보다는 지극히 정치적이다. 모든 도덕주의자들은 인간의 집단행동이 지닌 야수적 성격과 모든 집단적 관계들에 있는 집단적 이기주의의 힘에 대한 이해를 결여하고 있다. 그들은 사회적 갈등이 인류 역사에서 불가피한 것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칸트: 아무런 제한 없이 선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선의지뿐이다. 지성, 용기, 결단성 등은 많은 의도에서 선하고 바람직하지만, 이런 천부적인 자질들을 이용하는 의지가 선하지 않다면 극도로 악하고 해가 될 수 있다.
- 니부어: 개인의 도덕적 상상력이 동료 인간의 요구와 이익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정의는 달성될 수 없다. 또한 정의 달성을 위한 비합리적 수단이 도덕적 선의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사회에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2018학년도 수학능력시험]
- 어떤 집단적 힘이 약자를 착취할 때, 대항 세력이 견제하지 않는 한 그 힘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집단 간의 관계는 지극히 정치적이므로 항상 윤리적인 것은 아니다.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 자연의 질서에 속하면서도 이성의 지배를 받지 않는 요소를 파악해야한다. 집단의 도덕은 자연적 충동에 버금갈 만한 사회 세력을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도덕에 비해 열등하다.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개인적으로 도덕적인 사람도 사회 내의 어느 집단에 속하면 집단에 맹목적으로 충성하기 쉽다. 집단에 대한 맹목적 충성은 이타적 충동의 원천이 되기도 하지만 개인의 비판적 태도를 말살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집단에 대한 개인의 헌신이 지닌 맹목적인 성격이야말로 도덕적 제한을 받지 않고 무한대로 집단의 권력을 행사하는 토대가 된다. [2016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 개인은 타인의 이익을 존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 이지만, 사회는 이 기심을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우므로 비도덕적이다.

[2016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 인간은 완전히 이성적일 수는 없다. 우리가 개인 생활에서 집단생활로 진행해 갈 경우, 충동을 제어할 수 있는 이성의 비중은 점점 줄어든다. 왜냐하면 집단 간의 공동의 지성은 항상 불안전하고 일시적이며, 집단은 그것을 맹목적이게 만드는 충동에 의지해 있기 때문이다.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개인적 차원에서 집단적 차원으로 이행할수록 이기적 충동에 비해 합리성이나 선의지의 비중이 줄어든다. 따라서 이러한 충동적 경향이 심각하게 확대될 경우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사회적 억제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2015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 집단들 간의 관계는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각 집단이 가지고 있는 힘의 비율에 따라 형성된다. 왜냐하면 개인과는 달리 집단 속에서는 개인들의 이기적 충동들이 합쳐져 훨씬 더 강력한 형태인 집단적 이기심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집단들 간의 관계는 항상 도덕적이기보다는 지극히 정치적이다. 따라서 개인이 도덕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개인이 속한 집단은 비도덕적일 수 있다.

[2015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 양심적인 개인들로 구성된 사회 집단도 집단 이기주의로 인해 부도덕할 수 있다. …(중략)… 사회와 개인이 지향하는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서로 다르지만 양자 사이의 모순은 절대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개인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사회 정의는 달성될 수 없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그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견해를 지닌 어떤 서양 사상가는 “집단은 개인에 비해 타인의 욕구를 수용하는 능력과 합리성이 훨씬 부족하므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책이나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저는 당신의 주장에 대해 개인이 도덕적이라도 집단은 비도덕적일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4학년도 예비수능]

- 사회의 요구와 개인적 양심의 요청 사이에는 여간해서 화합하기 힘든 지속적인 모순과 갈등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사회는 정의를 최고의 도덕적 이상으로 삼지만, 개인은 이타성을 최고의 도덕적 이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는 양심적인 사람들로부터 도덕적 승인을 받지 못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2014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 개인들 간의 갈등과는 달리 집단들 간의 갈등은 합리적인 설득으로 해결되기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어떤 집단이 다른 집단에 이기적이지 않은 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서로 경쟁하는 집단들은 자신의 현실적 이익을 결코 포기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2014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2) 아리스토텔레스

- 옳지 않은 사람, 또는 옳지 않은 행위는 모두 불공정하거나 동등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어느 경우든 동등하지 않은 것 사이에는 하나의 중간이 분명히 있다. 이 중간이 바로 동등함이다. 즉, 지나침과 모자람이 있는 모든 행위에는 반드시 동등함이 있다. 그런데 동등함은 분배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이므로 적어도 두 사람과 두 가지 사물을 포함한다. 서로 동등하지 않은 사람들이 동등한 사물을 가져서는 안 된다. 동등한 사람들이 동등하지 않은 사물을 받거나, 동등하지 않은 사람들이 동등한 몫을 차지하는 경우에 분쟁과 불평이 생긴다.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2019 수특 125p]

-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일반적(보편적) 정의와 특수적(부분적) 정의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특수적 정의로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 교환적 정의를 들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배적 정의가 각자의 가치에 비례하는 몫의 분배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았는데, 각자의 가치는 각자가 공동체에 기여한 바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교정적 정의는 교섭에 있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을 추구한다. [2019 수특 120p]

- 분배에서 옳음은 동등한 사람에게 동등한 몫을 분배하는 것이다. 분배에서 옳음은 일종의 비례라고 할 수 있는데, 비례는 비율과 비율의 균등성을 의미하며 기하학적 비례에 해당한다. [2019 수특 129p]

- 정의는 동등한 사람에게 동등한 몫을 분배하는 것이다. 분배에서의 옳음은 일종의 비례인데 그것은 비율과 비율의 균등성을 의미한다. [2019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 분배적 정의는 가령 사람 a와 b가 각각 물건 c 와 d를 얻기 전과 후의 비율이 동등할 때 성립한다는 점에서 기하학적 비례를 추구하는 것이다. [2018학년도 수능능력시험]

- 정의는 본성상 정치적 동물인 사람들 사이에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분배할 것을 요구한다. [2018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 정의는 합법적이며 공정한 것을 의미한다. 특수한 정의의 한 종류는 명예, 금전 등의 분배에 관련되는 것이고, 다른 종류는 사람들 간의 거래에 관련되는 것이다.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 분배는 동등함에도 동등하지 않은 몫을, 동등하지 않은 사람들이 동등한 몫을 받게 될 경우 정의롭지 않다. 정의로운 것은 비례적인 것이다. [2016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3) 노직

□ 노직의 자유 지상주의

- 취득과 이전(양도)의 과정이 정당하면 그 과정을 통해 얻은 소유물에 대해서는 절대적 권리를 가짐
- 개인의 자유 강조, 복지를 위한 국가에 의한 재분배 반대 [2019 수특 121p]

□ 첫째, 취득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따라 소유물을 취득한 자는 그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가 있다. 둘째,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따라 한 소유물을, 이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가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자는 그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가 있다. 어느 누구도 첫째와 둘째의 적용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가 없다.

□ 분배적 정의의 완결된 원리는 오직 다음과 같을 것이다. 한 분배가 정의를 충족조건은 그 분배 하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소유 권리를 소유함이다. 한 분배는, 이것이 다른 정의로운 분배로부터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발생했을 때 정의롭다. 한 분배 상태에서 다른 분배 상태로 이행하는 합법적인 수단은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정의로운 상황으로부터 정의로운 단계를 거쳐 발생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 자체도 정의롭다.

[노직,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2019 수특 121p에 인용]

□ 노직은 ‘분배적 정의’보다는 ‘소유에 있어서의 정의’라고 부르기를 더 선호한다. 노직은 자유로운 경제 활동의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개인은 그 소유물에 대한 절대적 권리를 가진다고 보았다. 노직은 정의의 원리를 준수한 절차에 따른 분배의 결과는 정의롭다는 절차적 정의를 주장하였다. [2019 수특 121p]

□ 노직의 자유 지상주의

개인의 권리(소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최소 국가만이 정의로운 국가라는 사상 [2019 수특 121p]

□ 임금에 대한 과세라는 형태로 어떤 사람이 노동의 결과를 점유하는 것은, 그로부터 시간을 점유하고 그로 하여금 여러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러한 과세는 그들이 그에게 그의 결정과는 관계없이 그의 일이 어떤 목적에 봉사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2019 수특 126p]

- 우리의 경우, 모든 자산이 어떻게 분배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집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분배적 정의와 완결된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한 분배가 정의로운 충분조건은 그 분배 하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소유 권리를 소유함이다. 한 분배는, 이것이 다른 정의로운 분배로부터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발생했을 때 정의롭다.

[2019 수특 128p]

- 소유물에서의 정의의 이론의 일반적인 개요를 말하자면, 한 사람의 소유물은, 취득과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 또는 불의의 교정의 원리에 의해 그가 그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았으면, 정당한 것이다.

[2019 수특 129p]

- 개인들의 자연적 자산들이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자의적이건 아니건 간에 개인들은 그것들에 대한 소유 권리를 지니며, 이로부터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도 소유 권리를 갖는다. 개인들이 무엇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갖는 경우 그들은 이를 가져야만 한다.

[2019 수특 130p]

- 정의는 자신이 선택하는 바에 따라 소유권이 행사되는 것이다. 취득과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칙을 따라 소유물을 취득한 자는 그것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

[2019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 분배적 정의는 중립적인 개념이 아니다. 중립적인 개념은 '개인의 소유물'이다. 모든 개인이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 소유 권리를 갖는 것이 정의이다.

[2018학년도 수학능력시험]

- 공리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부차적 위치에 두지만, 나의 정의론은 개인의 권리를 절대적 존중의 대상으로 본다. 최소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므로 타인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2018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 정의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소유 권리를 갖는 것이다. 정의의 원리에 따르면 과거의 상황이나 행위는 사물에 대한 응분의 자격을 창조한다.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개인의 타고난 자산이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임의적이건 아니건 간에, 개인은 그 자산에 대한 소유 권리를 지닌다. 또한 이로부터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2017학년도 9월 모의고사]
- 차등의 원칙은 ‘그의 ~에 따라서 각자에게’라는 구절을 완성하려는 정형(定型)적인 정의의 원칙이다. 그런데 고정된 정형적 원칙은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정형적인 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소유권 이론 만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 최초의 정당한 취득 행위에 이어 자발적인 교환 행위로 재산의 정당한 이전(移轉)이 잇따르게 된다면, 사람들이 정확히 자신의 것만을 소유하게 되는 정당한 결과가 나온다. 하지만 현실의 역사는 강자가 약자의 소유물을 빼앗아 온 역사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간 부당하게 발생한 이전들을 보상함으로써 교정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하나의 원칙으로 표현하면, ‘각자는 자신이 선택한 대로 주고, 각자는 자신이 선택받은 대로 받는다.’가 된다.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정의의 원칙은 개인이 무엇을 소유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유일한 근거로 한다. 정당한 자격을 가진 이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교환하는 절차의 규칙을 위반하지만 않는다면, 어떤 사람은 부유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다는 사실이 불행일 수는 있으나 불공정하지는 않다. [2016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 분배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가 있을 경우 정의롭다. 최소 국가만이 이러한 소유 권리를 보장한다. [2016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 개인이 정당한 노동으로 취득한 소득에는 침해할 수 없는 소유권이 인정된다. 국가는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계약 이행을 감시하는 최소국가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2015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 ‘취득·양도·교정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따라 개인이 타고난 재능을 통해 획득한 재화에 대해서는 배타적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 [2015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 각 개인은 자신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지니므로 재화의 분배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에 위임해야 한다. 정부가 근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시민에게 강제 노동을 강요하는 것과 같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4) 롤스

□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

-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려면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규제하는 사회 제도가 공정한 조건에서 합의되는 정의의 원칙에 의해 제한되어야 함
- 원초적 입장 : 상호 무관심한 사람들이 무지의 베일하에서 합의를 통해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는 가상적 상황
- 원초적 입장에 놓인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불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정의의 원칙에 합의하게 됨
- 정의의 원칙

제1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	모든 사람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누려야 함
제2원칙	차등의 원칙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편성될 때 정당화 됨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직위와 직책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야 함

- 분배는 자유 경쟁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이루어지되,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함
-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우선적인 관심을 둬으로써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함

[2019 수특 122p]

- 원초적 입장에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상이한 두 원칙을 채택하게 된다. 첫 번째 원칙은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의 할당에 있어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며, 두 번째 원칙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하되 그것이 모든 사람, 그중에서도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그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정당한 것임을 내세우는 것이다.

[롤스, “정의론”, 2019 수특 122p에 인용]

- 롤스에 의하면 원초적 입장이라는 계약적 상황에서 정의의 원칙에 합의하는 합리적인 당사자들은 자신과 관련되는 특수한 사실들을 모르는 무지의 베일에 둘러싸인 상태에서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도출되는 정의의 첫 번째 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고, 두 번째 원칙은 차등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다.

[2019 수특 122p]

- 롤스가 생각한 계약 상황(원초적 입장)의 조건

- 당사자들의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
- 자신의 특수한 사정을 모름
- 경제학, 심리학 등의 일반적인 사실에 대해서 앎

[2019 수특 122p]

- 최소 수혜자

극빈자 등과 같이 사회적·경제적으로 혜택을 가장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

[2019 수특 122p]

- 롤스의 순수 절차적 정의

게임이나 추첨에서처럼 공정한 절차를 따르면 그 결과도 공정한 정의

[2019 수특 122p]

-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다음의 두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그것은 공정한 기회균등의 조건하에 모두에게 열려 있는 직책과 지위에 결부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둘째, 그것은 사회의 최소 수혜자들의 최대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2019 수특 126p]

-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평등주의적 견해이다. 불평등을 규제하는 근거는 사회의 많은 이가 기아에 허덕이는 데 반해 일부는 풍요로운 것이 그릇되어 보인다는 것이다. 문제는 부의 불평등 자체가 아닐 수 있으며, 모두가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할 만큼은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2019 수특 126p]

□ 사상 체계의 제1덕목을 진리라고 한다면 정의는 사회 제도의 제1덕목입니다. 이론이 아무리 정교하고 간명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배척되거나 수정되어야 하듯이,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이고 정연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당하지 못하면 개선되거나 폐기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전체 사회의 복지라는 명목으로도 유린될 수 없는 정의에 입각한 불가침성을 갖습니다. 다수가 누릴 보다 큰 이득을 위해서 소수에게 희생을 강요해도 좋다는 것을 정의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2019 수특 127p]

□ 원초적 입장에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상이한 두 원칙을 채택하게 된다. 첫 번째 원칙은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의 할당에 있어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며, 두 번째 원칙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허용하되 그것이 모든 사람, 그중에서도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그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정당한 것임을 내세우는 것이다.

[2019 수특 128p]

□ 재산 및 소득의 분배가 반드시 균등해야 할 필요는 없으나,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권한을 갖는 직위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직책은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2019 수특 129p]

□ 공정성으로서의 정의에 있어서 평등한 원초적 입장에 놓인 사람들은 무지의 베일로 인해 정의의 원칙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아무도 타고난 우연의 결과나 사회의 우연성으로 인해 유리하거나 불리해지지 않는다는 점이 보장된다.

[2019 수특 130p]

□ 정의의 원칙은 원초적 상황에서 합의로 도출된다.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시민들에게 공통된 정의감이 존재하며 시민적 유대와 체제의 안정성이 보장된다.

[2019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 분배적 정의의 핵심 과제는 사회 체제의 선택이다. 사회 체제는 특수한 상황의 우연성을 처리하기 위해 순수 절차적 정의의 관념에 따라 기획되어야 한다.

[2018학년도 수능능력시험]

- 정의는 최소 수혜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절차적 공정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2018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 공리주의는 개인의 선택 원칙을 사회로 확대하지만, 나의 정의론은 정의의 원칙을 원초적 합의 대상으로 본다. 사회는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이므로 정의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2018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 정의는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고 사회적 이익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원칙들의 역할에 의해 규정된다. 정의의 원칙들은 평등한 최초의 입장에서 합의할 대상이다.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개인의 타고난 재능은 응분의 것이 아닌 사회 공동의 자산으로 간주해야 한다. 더 불운한 자들의 선에 도움이 되는 한에서만 그 행운으로부터 이익을 취할 수 있다.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 정의의 원칙은 권리 할당과 이익 배분의 근거 원리이다. 개인이 어떤 여건에서 태어나는 것은 정의롭지도 부정의 하지도 않은 임의적 사실이다. 이 사실을 다루는 제도가 정의로운지의 여부는 합리적 개인들이 유틸리티를 배제한 채 도출한 원칙에 의거하였는지에 달려 있다.

[2016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 원초적 입장에서 타인의 이익에 무관심한 합리적 개인은 자신의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 등을 모른 채 정의의 두 원칙을 선택하게 된다.

[2016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 원초적 입장에서 개인들은 자신이 최악의 상황에 놓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보장하는 정의의 원칙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개인들은 원초적 상황에서 합리적 선택을 통해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에 기초한 원칙들을 합의하게 된다. 이 원칙들은 사회 기본 구조의 원리가 된다.

[2015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차등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을 충족시킬 때에만 정당화된다.

[2015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 특정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는 자신이 최악의 상황에 놓일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소 수혜자의 상황을 개선하는 정의의 원칙들에 합의할 것이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정의는 구성원들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합의할 때 확보된다. 만약 사람들이 자신의 선천적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 등을 모르는 무지의 베일 상태에 있다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주는 분배 방식에 합의할 것이다. 그 이유는 최악의 경우를 먼저 고려한 후 그 중에서 더 나은 상태를 추구하는 성향 때문이다. 이것을 제비뽑기에 비유한다면 아래 그림의 A(5, 15, 30), B(12, 12, 12), C(14, 16, 18) 분배 방식 중에서는 C를 선호하여 거기에서 하나의 제비를 뽑으려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도덕적 근거가 된다.

[2014학년도 예비 수능]

-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계층, 천부적 자산과 능력 등을 모르는 무지의 베일 상태에서 합의한 정의의 원칙은 정당한 것으로 간주된다.

[2014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보장될 때 정당화된다.

[2014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5) 벤담

- 모든 법령이 지녀야 하는 일반적 목적은 공동체의 전체적 행복이다. 그렇지만 모든 처벌은 악이다. 공리의 원리에 의할 때, 만일 처벌이 인정될 수 있다면, 그것은 더욱 큰 어떤 악을 없애는 것을 보장하는 한에 있어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중략)… 처벌의 가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법 행위에서 얻는 이득의 가치를 능가하기에 충분한 수준보다 더 작아서는 안 된다. 상당한 처벌은 상당한 고통이다. 또 한편으로 위법 행위의 이득은 상당한 쾌락 그 자체 또는 쾌락에 해당하는 어떤 것으로, 위법 행위의 이득은 처벌보다 대체로 더 확실하다. 그러므로 위법 행위의 이득에 대한 우세함을 유지하려면, 처벌이 확실성과 근접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는 만큼 처벌은 크기라는 면에서 부가시킬 수밖에 없다.

[벤담, “도덕과 입법의 원리 시설”, 2019 수특 123p에 인용]

- 벤담은 사회 전체에 행복을 증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를 바람직하다고 보는 공리주의자이다. 따라서 벤담은 형벌 역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회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한다. 벤담은 형벌을 통해 범죄자를 교화시켜 미래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때 형벌이 정당화된다고 주장한다.

[2019 수특 123p]

- 처벌의 가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법 행위에서 얻는 이득의 가치를 능가하기에 충분한 수준보다 더 작아서는 안 된다. 상당한 처벌은 상당한 고통이다. 또 한편으로 위법 행위의 이득은 상당한 쾌락 그 자체 또는 쾌락에 해당하는 어떤 것으로, 위법 행위의 이득은 처벌보다 대체로 더 확실하다. 그러므로 위법 행위의 이득에 대한 우세함을 유지하려면 처벌이 확실성과 근접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는 만큼 처벌은 크기라는 면에서 가치를 부가시킬 수밖에 없다.

[2019 수특 127p]

- 공리의 원리에 의할 때, 만일 처벌이 인정될 수 있다면, 그것은 더욱 큰 어떤 악을 없애는 것을 보장하는 한에 있어서만 인정된다. 따라서 처벌이 근거가 없는 경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 유익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불필요한 경우 처벌을 가해서는 안 된다.

[2019 수특 130p]

- 모든 형벌은 강도, 지속성, 보편성을 근거로 과도하지 않게 집행되어야 한다. 형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처벌을 본보기로 삼아 전체의 효용을 증진하는 것이다. [2019 수특 131p,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범죄에 대한 형벌은 사회의 최대 행복을 저해하는 경향에 비례하여 가해져야 한다. 형벌의 목적은 범죄의 예방과 일반인에 대한 경고에 있다. 사형은 그 범죄자가 살아 있는 것이 나라 전체를 중대한 위험에 처하게 할 경우에만 적합한 형벌이다. [2018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 형벌의 주목적은 범죄자와 그 밖의 사람들의 행위를 통제하는 것이다. 공리의 원리에 따라 범죄자에 대한 형벌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가해져서는 안 된다.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 형벌은 최대 행복의 원칙에 따라 부과해야 한다. 형벌은 범법자에게는 교정과 무력화로, 다른 사람에게는 본보기로 작용하여 위법 행위를 방지한다.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법의 일반적 목적은 해악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형벌은 악이다. 공리의 원칙에 의하면, 형벌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는 그것을 통해 더 큰 악을 제거하는 것이 보장될 때뿐이다. [2016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 형벌과 위법 행위 간에는 비례의 규칙이 성립해야 한다. 형벌의 정도는 위법 행위에서 얻는 이득의 가치를 능가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비례의 규칙은 공리의 원리에 근거해야 한다.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개개인의 행복은 사회 전체의 행복으로 연결되며,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그만큼 더 좋은 일이다.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구성원들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여 사회 전체의 이익을 최대화해야 한다. [2015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 개인들의 이익의 총합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2014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6) 공리주의

□ 공리주의적 관점 : 범죄 예방과 사회 전체의 행복 증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찬반 여부를 판단함

- 일반 예방주의 : 사형은 흉악 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존치해야 함
- 특수 예방주의 :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를 교육하여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인데, 사형은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함으로써 그러한 목적 자체를 부정하는 것임. 따라서 사형 제도에 반대함

[2019 수특 123p]

□ 모든 법령이 지켜야 하는 일반적 목적은 공동체의 전체적 행복이다. 그렇지만 모든 처벌은 악이다. 공리의 원리에 의할 때, 더 큰 악을 없애는 것을 보장하는 한에 있어서만 처벌은 인정되어야 한다.

[2019 수특 125p]

□ 정의는 도덕과 입법의 원리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유용성을 극대화할 것을 요구한다.

[2018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주인에게 지배받도록 만들었다. 공리의 원칙은 이러한 복종 관계를 인식시켜 주고, 이성과 법률의 손길로 행복의 틀을 짜는 목적을 지닌 체계의 기초이다.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7) 헤겔

□ 헤겔의 응보주의

헤겔은 칸트의 동해(同害) 보복적 응보주의를 비판하면서 '같은 가치의 응보라면 충분하다.'라는 등가치(等價値) 응보주의를 주장함. 여기서 동해 보복이란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같은 정도의 손해를 가해자에게 가함을 가리킴

[2019 수특 123p]

8) 칸트

□ 사법적 형벌은 결코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 사회를 위해서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서 가해질 수는 없고, 오히려 그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항상 그 때문에 그에게 가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결코 타인의 의도들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될 수는 없고, 물권의 대상들 중에 섞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형벌에 있어서 공적인 정의가 의존하는 원리는 동등성의 원리이다.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가 살인을 했다면 그는 죽어야만 한다.

[칸트, “윤리 형이상학”, 2019 수특 124p에 인용]

□ 칸트는 형벌의 본질이 응보에 있으며, 응보주의에 바탕을 둔 사형은 인간을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019 수특 124p]

□ 사법적 형벌은 결코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 사회를 위해서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서 가해질 수는 없다. 오히려 그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항상 오직 그 때문에 그에게 가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2019 수특 125p]

□ 그의 생득적인 인격성은, 설령 그가 시민적 인격성을 상실할 선고를 받을 수 있을지라도, 물권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하여 그를 보호해 준다. 그의 형벌에서 그 자신이나 동료 시민들을 위한 몇몇 이익을 끌어내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도 먼저 그가 형벌을 받아야 할 상태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 형벌의 법칙은 하나의 정언 명령이다. 그것이 약속하는 이익에 의해 그를 형벌에서 면하게 하거나 또는 한 단계 경감시키는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행복론의 꾸불꾸불한 길을 헤매 다니는 자에게 고통을 주어라!

[2019 수특 129p]

□ 그가 살인을 했다면 그는 죽어야만 한다. 이 경우에 정의의 충족을 위한 대체물은 없다. 제 아무리 고통 가득한 삶이라 해도 삶과 죽음 사이에 동종성(同種性)은 없다. 그러므로 범인에게 법적으로 집행되는 사형 외에 범죄와 보복의 동등성은 없다.

[2019 수특 130p]

- 모든 인간은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 사형은 살인범의 인간성을 훼손할 수 있는 모든 가혹 행위로부터 살인범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다.

[2019 수특 131p]

- 형벌은 보편 법칙을 입법하려는 의지의 형태로 범죄자의 자유의지를 범죄자 자신에게 실현시켜 주는 것이다. 형벌은 스스로가 한 행위에 응분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2019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 시민 사회가 모든 구성원의 동의로 해체될 경우라도 감옥에 있는 마지막 살인자는 먼저 처형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법권의 이념으로서 정의가 보편적인 도덕 법칙에 따라 의욕하는 것입니다. 공적 정의 앞에서 최상의 균형자는 사형입니다.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모든 인간은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 사형은 살인범의 인간성을 훼손할 수 있는 모든 가혹 행위로부터 살인범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다.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형벌은 범죄자가 처벌받아야 할 행위를 의욕했기 때문에 가해져야 합니다. 사형은 살인에 상응하는 보복을 위한 것으로서, 인간성을 해치는 죄책감으로부터 사형수를 해방시켜 줍니다.”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 살인자는 누구든 사형에 처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정언명령이자 사법권의 이념으로서 정의가 선형적으로 근거된 법칙들에 따라 의욕하는 바이다.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형벌의 법칙은 하나의 정언 명령이다. 그래서 형벌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 때문에 가해져야 한다. 형벌의 종류와 정도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평등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범죄자도 형벌을 받아 생이 끝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형벌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형벌을 받아야 할 행위를 범했기 때문에 가해져야 한다. 형벌의 경중은 범죄 행위의 경중에 따라야 한다.

[2015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 형벌은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만 그에게 가해져야 한다. 그 누구도 결코 타인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 베카리아

- 형벌의 목적은 감각적 존재인 인간을 괴롭히고 고문하는 데 있지 않고, 이미 범해진 범죄를 원상태로 되돌려 놓자는 것도 아니다. 형벌의 목적은 오직 범죄자가 시민들에게 새로운 해악을 입힐 가능성을 방지하고, 타인들이 유사한 행위를 할 가능성을 억제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형벌 및 그 집행의 수단은,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인간의 정신에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인상을 만들어 내는 동시에, 수형자의 신체에는 가장 작은 고통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2019 수특 124p에 인용]

- 베카리아는 범죄 예방 효과의 측면에서 볼 때, 사형보다는 종신 노역형이 효과적임을 들어 사형 제도의 폐지를 주장한다.

[2019 수특 124p]

- 범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억제력은 한 악당이 처형되는 장면을 목격하는 데서 생겨나지 않는다. 이는 무시무시하지만 그 효과 면에서는 일시적이다. 그보다는 자유를 박탈당한 채 자신의 노동으로 그가 사회에 끼친 손해를 속죄하는 인간의 모습을 오래 보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인 억제책이다.

[2019 수특 130p]

- 모든 사람들에게 살인범의 끝없는 비참한 상태를 보여 주는 것이 사형보다 범죄 예방에 더 효과적이다. 형벌의 강도보다 지속성이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준다.

[2019 수특 131p]

- 공공 의사의 표현인 법은 살인을 증오하고 그 행위를 처벌한다. 살인범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주는 형벌이 범죄 억제에 가장 확실한 효과를 가져온다.

[2019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 법은 특수 의사의 총합인 일반 의사를 대표합니다. 인간은 자신을 죽일 권리가 없는 이상, 그 권리를 사회에 양도할 수 없습니다. 사형은 한 시민의 존재를 파괴하는 부적절한 전쟁 행위이므로 종신 노역형으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2018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 범죄에 대한 형벌은 오직 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러한 권한은 사회계약으로부터 나온다. 형벌은 강도보다 지속성을 중시해야 한다. 사형은 한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기 때문에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2018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 모든 사람들에게 살인범의 끝없는 비참한 상태를 보여 주는 것이 사형보다 범죄 예방에 더 효과적이다. 형벌의 강도보다 지속성이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준다.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형벌의 선한 결과가 형벌 자체의 악보다 크다면 형벌을 부과해야 합니다. 사형과 같은 형벌의 남용은 인간을 개선시키지 못합니다. 사형보다는 종신 노역형이 범죄 억제력이 큼니다.”

[2017학년도 6월 평가원모의고사]

- 범죄 예방에 무엇보다 큰 효과를 끼치는 것은 형벌의 강도(強度)가 아니라 그 지속성이다. 범죄자의 사형 장면을 보는 것은 종신형과는 달리 범죄 억제에 일시적인 효과만을 갖는다.

[2015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10) 루소-사회계약론

- 시민의 생명 보존이 사회 계약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신체와 모든 능력은 공동의 것이며, 이것은 일반의지의 최고 감독하에 있는 것입니다. 시민 사회에서 타인의 생명을 희생시킨 사람은 자신의 생명도 포기해야 합니다.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타인의 희생으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은 타인을 위해 자신도 희생해야 한다는 데 동의해야 한다. 그는 일반의지로부터 규정된 법을 따라야 한다.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법은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일반 의지를 반영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쓸 권리를 갖습니다. 사회 계약을 파괴한 살인범은 도덕적 인격이 아닌 공중의 적으로 사형에 처해져야 합니다.

[2018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 사회 계약의 목적은 계약자의 생명 보존에 있다. 이를 위해 각자는 모든 것을 공동체에 양도함으로써 일반의지의 감독 하에 둔다. 살인을 저질러 계약을 위반한 자는 공공의 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2016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 모든 인간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자신의 생명을 보전하려고 한다. 그 누구도 살해당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각자는 자신의 생명 보전을 목적으로 삼는 계약에 동의한다. 그래서 각자는 자신을 공동체에 양도하여 일반의지의 감독 아래에 둔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1) 마르크스

- 개인의 타고난 능력이 불평등하다는 점, 따라서 생산 능력도 타고난 특권임을 승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생산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분배는 각자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 분배는 필요에 따라, 노동은 능력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회가 필연적으로 도래할 것이다. 그러면 노동은 더 이상 소외되지 않을 것이다.

[2016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 자본주의의 노동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강제된 것이다.

[2016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13) 개인윤리

- 모든 집단은 사회적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개인의 이기심은 합리성이나 선의지의 성장에 의해 점진적으로 견제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계속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 개인적 차원과 마찬가지로 집단적 차원에서도 합리성과 선의지는 언제나 이기적 충동을 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이기적 충동이 합리성과 선의지의 고양에 의해 견제되어 결국 모든 집단들이 조화를 이룰 것이다.

[2015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 요즘 사회에서 문제되고 있는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이나 폭력 문제는 학생 개개인의 이성과 선한 의지를 통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합리성과 선한 의지를 함양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시행]

11강 인권 존중과 공정한 사회

- 단원 소개 및 학습 가이드

11단원은 시민 불복종이 출제되는 단원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시민 불복종만 어렵게 출제됩니다. 로크의 저항권 개념은 아직 출제는 안 되었지만, 학생들이 생소하게 느낄 수 있으니 간단히 체크해봅시다.

간혹 정약용, 버트넘, 바사크(인권론), 소수자 우대 정책, 저항권(로크) 등이 출제될 수 있으나 그 문제들은 정답률이 매우 높은 문제들이니 사실 대비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 칼럼 자료도 모든 내용을 꼼꼼히 보는 것이 아니라, 로크의 저항권, 소로와 롤스의 시민 불복종 관련 제시문을 꼼꼼히 반복해서 보는 기회로 삼으면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민 불복종 변형 문제로 확인하기

오늘은 EBS 시민 불복종 변형 문제를 통해서 롤스의 시민 불복종을 공부해볼 것입니다. 그리고 원전을 통해서 롤스의 시민 불복종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볼 것입니다.

오늘 같이 풀어볼 두 문항은 제가 만든 자작 문항입니다. 풀어보시고 모르는 부분이 생기신다면 cucuzz.com에 질문을 남겨주세요.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01. 다음 서양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8 수능 3번 변형]

시민 불복종은 흔히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긴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공동 사회의 다수자가 갖는 정의감을 나타내게 되고,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 협동체의 원칙이 존중되지 않고 있음을 선언하게 된다. [EBS 『수능특강』 138p 1번 제시문]

- ① 시민 불복종의 형식은 폭력적 행위와 양립할 수 없는가? [롤스, 『공정으로서의 정의』 210-211p, EBS 『수능특강』 137p 2번 ③]
- ② 시민 불복종의 의도는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호소되어야 하는가? [2018학년도 수능 3번 ②]
- ③ 시민 불복종의 근거는 법이 부정의하다는 양심적인 반응에서 찾아야 하는가? [EBS 『수능특강』 138p 1번 다. 롤스, 『공정으로서의 정의』 210p]
- ④ 시민 불복종의 주체는 체포나 처벌을 예상하며 기꺼이 감수하고자 하는가? [EBS 『수능특강』 140p 1번 가. 137p, 138p 1번 나, 143p 8번 ①]
- ⑤ 시민 불복종의 목적은 자유로운 협동의 조건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정당하게 알리는 것인가? [롤스, 『정의론』 208p, EBS 『수능특강』 143p 8번 제시문 갑]

일반 기출문제 수준

00번. 정답: ③

사상가) 롤스

정말 필요한 해설

③ 시민 불복종은 양심적이고 진지한 행동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양심적 믿음이 시민 불복종의 근거(기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시민 불복종의 근거(기준)는 사회적 다수의 정의관이다.

시민 불복종은 다른 의미에 있어서도 역시 시민적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시민 생활을 규제할 원칙에 바탕을 둔 **진지한 신념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또한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체포나 처벌이 예상되기는 하나 주저없이 감수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행해지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것은 **합법적 절차에 대한 존중**을 나타낸다. 시민 불복종은 **법에 충실한 범위 내에서 법에 대한 불복종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그것은 다수에게 그것이 정말 **양심적이고 진지하며 진정으로 그들의 정의감에 호소하기 위해 의도된 것**임을 증명해 보이는 데 도움이 된다.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 놓고 그 행위의 법적인 결과를 기꺼이 감수한다는 것은 자신의 진지성을 보여주기 위한 증거의 구실을 한다. 왜냐하면 **행위가 양심적임을 타인이나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 증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이 부정의하다는 양심적인 믿음이 불복종에 대한 근거로 받아들여지는 법체제는 사실상 불안정한 것이다. (...) 시민 불복종의 비폭력적인 성격은 그것이 다수자의 정의감에 호소하기 위해 **의도되었다는 사실에서 나타나며**, 따라서 그것은 신념을 표현하기 위한 언어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상해하고 손상할 가능성이 있는 폭력적 행위에 가담한다는 것은 호소 형식으로서의 시민 불복종과는 양립할 수가 없다.**

롤스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02.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민들의 부정의한 법에 대한 불복종은 공유된 정의관에 의해 정당화된다. 이러한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국가에서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들에 의해서만 생긴다. 특히 평등한 기본적 자유 원칙의 침해는 굴종이 아니면 반항을 부른다. [EBS 『수능특강』 137p 기출 플러스, 2017학년도 수능 8번 제시문 을]

- ① 시민 불복종은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EBS 『수능특강』 137p 기출 플러스]
- ② 시민 불복종은 입헌 민주체제를 안정화하는 방도가 된다. [롤스, 『정의론』 498p, EBS 『수능특강』 137p 기출 플러스, 롤스, 『공정으로서의 정의』 214p]
- ③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EBS 『수능특강』 137p 날개]
- ④ 시민 불복종은 사회 다수에 의해 공유된 정의관에 근거해야 한다. [EBS 『수능특강』 137p]
- ⑤ 시민 불복종은 성공 가능성과 무관한 정치적 의무로 성립되어야 한다. [롤스, 『공정으로서의 정의』 216p, EBS 『수능특강』 139p 8번 ④]

일반 기출문제 수준

00번. 정답: ⑤

사상가) 롤스

정말 필요한 해설

⑤ 롤스는 성공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민 불복종을 할 것을 요구한다.

정상적인 저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다소 고의적인 부정의가 행해질 경우 그리고 그 부정의가 평등한 시민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일 경우 그리고 그와 유사한 경우에 유사한 방식으로 저항하려는 성향이 일반화되어도 합당한 결과를 가지게 될 경우이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분하다고 보지는 않으나 몇 가지 사실을 명백히 하기에는 충분할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그러한 조건들이 만족되어 시민 불복종에 가담할 권리를 갖게 될 경우에도 우리가 그러한 권리를 행사해야 할 것인지,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보호해야 할 우리의 권리가 확인된 다음 우리는 자유로이 그러한 전략적 문제를 고려할 수 있다. 우리가 우리의 권리 내에서 행위하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의 행위가 다수의 가혹한 보복을 불러일으키는 것에만 그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는 셈이 된다. 그리고 특히 다수가 정의감을 결여하고 있거나 행위의 시기가 부적절하다거나 정의감에 대한 호소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획이 잘 짜여져 있지 않을 경우 그럴 가능성이 커진다. (...) 권리의 행사는 저항하는 자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끔 합리적이고 합당하게 계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롤스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고난도 적중 특강

②

만일 상당한 기간 동안 정상적인 방식으로 정치적 호소를 해본 후, 사람들이 직접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침해에 대해 시민 불복종이라는 방식으로 항의할 경우 그러한 자유는 보다 더 공고해지리라고 믿는다. 제대로 행해진 합당한 시민 불복종은 입헌 체제를 보다 확고히 정의롭게 만드는 성향을 가지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안정화의 방도가 된다.

롤스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1) 로크

- 어느 누구도 사회에 들어가겠다는 어떤 사람의 명시적인 동의가 그를 그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이자 그 정부의 신민으로 만든다는 점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런데 명시적인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나는 어떤 정부의 영토의 일부분을 소유하거나 향유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럼으로써 묵시적 동의를 한 셈이며, 적어도 그러한 향유를 지속하는 동안, 그 정부 하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정도로 그 정부의 법률에 복종할 의무를 진다고 말하겠다.

[로크, “통치론”, 2019 수특 136p, 139p]

- 로크는 명시적 동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동의를 통해서도 정부에 대한 복종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사람이 어떤 나라의 영토의 일부분을 소유하거나 향유한다는 사실만으로 묵시적 동의를 한 셈이며, 따라서 복종의 의무가 생긴다고 본다.

[2019 수특 136p]

- 모든 사람은 본래 자유로우며, 그 자신의 동의를 제외한 그 어떤 것도 그를 지상의 권력에 복종시킬 수 없다. 사회에 들어가겠다는 사람들의 명시적인 동의가 그들을 그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만든다. 사람들은 사회에 들어갈 때 그들이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평등, 자유 및 집행권을 사회의 선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사회의 수중에 양도한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사람이 그 자신, 그의 자유 및 그의 재산을 더욱 잘 보존하려는 의도해서 행하는 것이다.

- 입법자들이 인민의 재산을 빼앗고자 기도할 경우 또는 인민을 자의적 권력 하에 놓인 노예로 만들고자 할 경우, 그들은 스스로를 인민과의 전쟁 상태에 몰아넣는 것이며, 인민은 그로 인해 더이상의 복종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로크 “통치론”, 2018학년도 수능특강 137p]

- “대지에서 자연적으로 산출되는 모든 열매와 거기에서 자라는 짐승들은 인류에게 공동으로 속한다. 그러나 한 개인이 모두에게 공동으로 주어진 것에 자신의 노동을 투입하면 그것은 그의 소유가 되며 타인의 권리는 배제된다.”라는 재산권 이론은 노동의 형태가 어떤 것이든 간에 인간의 노동을 통해 산출된 모든 산물에 적용될 수 있다.

[2018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2) 소로

- 시민 불복종의 근거: 헌법을 넘어선 개인의 양심이 저항 판단의 최종 근거임

[2019 수특 137p]

-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가 떠맡을 권리가 있는 나의 유일한 책무는, 어떤 때이고 간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는 일이다. 단체에는 양심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참으로 옳은 말이다. 그러나 양심적인 사람들이 모인 단체는 양심을 가진 단체이다. 법이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더 정의로운 인간으로 만든 적이 없다.

[2019 수특 137p]

- 소로는 정의롭지 못한 정부에는 불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로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정의롭지 못한 국가 권력이나 부당한 법률에 불복종하는 것이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본 것이다.

[2019 수특 137p]

-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가 떠맡을 권리가 있는 나의 유일한 책무는, 어떤 때이고 간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는 일이다. 단체에는 양심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참으로 옳은 말이다. 그러나 양심적인 사람들이 모인 단체는 양심을 가진 단체이다. 법이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더 정의로운 인간으로 만든 적이 없다.

[2019 수특 139p]

- 다수의 지배가 오랜 기간 계속되는 실제적인 이유는 다수가 옳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들이 물리적으로 힘이 세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수가 지배하는 정부는 정의에 입각한 정부라고 할 수 없다. 다수가 아니라 양심이 옳고 그름을 실제로 결정하는 그런 정부는 있을 수 없는가?

[2019 수특 141p]

- 시민 불복종은 법적·제도적 측면이든 도덕적 측면이든 그것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모든 사항에 대해 전개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 현재의 법률이나 정책이 지금 당장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래 세대에게 해로운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러한 정책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도덕적으로 부당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에 대한 현재의 시민 불복종도 정당화되어야 한다. 또한 처벌에 저항함으로써 국가 행동의 부당함을 폭로하고, 이를 통해 다수의 동조를 이끌어 내는 것도 허용되어야 한다.

[2019 수특 143p]

-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가 떠맡을 권리가 있는 나의 유일한 책무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다. 법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조차 불의의 하수인이 되고 있다.

[2019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 다수에게 순응하기보다 그들에게 온 힘을 다해 맞설 때 소수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을 갖게 된다. 양심이 아니라 다수가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정부는 정의에 입각한 정부라고 할 수 없다.

[2018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 시민은 한 순간이라도 자신의 양심을 입법자에게 맡겨야 하는가?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 단 한 명의 사람이라도 부당하게 가두는 정부 밑에서 의로운 사람이 진정 있을 곳은 감옥이다.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길러야 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선량한 사람조차도 불의의 하수인이 될 상황이라면 그 법을 어겨라. 양심에 따라 그 법에 저항하라.

[2017학년도 6월 모의고사]

3) 롤스

- 시민 불복종의 근거: 사회적 다수의 정의관이 저항의 기준이 되어야 함

[2019 수특 137p]

□ 롤스의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요건

- ① 시민 불복종 운동은 사회 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삼아야 함
- ② 시민 불복종 운동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③ 시민 불복종 운동은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전개해야 함
- ④ 시민 불복종 운동은 최후의 수단으로 시도되어야 함
- ⑤ 시민 불복종 운동에 참여한 사람은 처벌을 감수해야 함

[2019 수특 137p]

□ 시민들의 부정의한 법에 대한 불복종은 공유된 정의관에 의해 정당화된다. 이러한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국가에서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들에 의해서만 생긴다. 특히 평등한 기본적 자유 원칙의 침해는 굴종이 아니면 반항을 부른다.

[2019 수특 137p]

□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부정의한 법이나 정부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져야 하며, 사회적 다수에 의해 공유된 공공적 정의관에 근거해서 시민 불복종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9 수특 137p]

□ 시민 불복종은 흔히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긴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공동 사회의 다수자가 갖는 정의감을 나타내게 되고,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 협동체의 원칙이 존중되지 않고 있음을 선언하게 된다.

[2019 수특 138p]

□ 시민 불복종의 문제는 거의 정의로운 국가 내에서 그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시민들에 의해 생겨납니다. 시민 불복종의 근거는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에만 기초해서는 안 되며, 정치적인 질서의 바탕에 깔려 있는 공유된 정의관에 의거해야 합니다. 시민 불복종은 그것이 비록 법의 바깥 경계선에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법에 대한 불복종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2019 수특 140p]

- 기본적으로 불복종이란 합의된 정의관에서 벗어난 법이나 제도, 정책에 대하여 다수자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정치적 행위로 받아들여질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시민 불복종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

[2019 수특 141p]

- 시민 불복종은 어느 정도 정의로운 민주 체제에서 법률이나 정책 또는 명령이 정의의 원칙을 어겼을 경우에 사회 협동 체제의 조건들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항거자가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정치적 행위이다. 시민 불복종은 소수자가 다수자의 정의감에 호소하여 정의의 원칙에 따라 법을 바꾸도록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법이나 명령을 바꾸는 혁명적인 행위와는 구별된다. 그리고 정의의 원칙을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처벌을 감수해야 하며 비폭력을 전제로 해야 한다.

[2019 수특 143p]

- 사회의 기본 구조가 합당하게 정의로운 것인 경우, 그 부정의가 지나치지만 않으면 부정의한 법도 구속력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법에 대한 불복종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한다.

[2019학년도 6월 모의고사]

- 거의 정의롭지만 정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 발생하기도 하는 사회에서 시민 불복종이 성립한다. 시민 불복종은 신중하고 양심적인 정치적 신념의 표현인 청원의 한 형태이므로 공개 석상에서 이루어지며, 어떤 개인적 도덕 원칙이나 종교적 교설이 아닌 공유된 정의관에 의거해야 한다. 정당한 시민 불복종이 시민 화합을 해치는 것으로 보이면, 그 책임은 불복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권위와 권력을 남용한 자들에게 있는 것이다.

[2018학년도 수능능력시험]

- 시민 불복종은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긴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공동 사회의 다수자가 갖고 있는 정의감을 드러내고,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 사이에서 정의의 원칙이 존중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 준다.

[2018학년도 9월 모의고사]

-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법에 대한 불복종을 표현한다. 법에 대한 충실성은 양심적이고 진지하며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불복종의 의도를 보여 준다.

[2018학년도 6월 모의고사]

- 시민들의 부정의한 법에 대한 불복종은 공유된 정의관에 의해 정당화된다. 이러한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국가에서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들에 의해서만 생긴다. 특히 평등한 기본적 자유 원칙의 침해는 굴종이 아니면 반항을 부른다.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법이나 정책은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한 정의의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시민 불복종은 제1 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나 제2 원칙 중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에 대한 현저한 위반에 국한되어야 한다.

[2017학년도 6월 모의고사]

12강 직업윤리

- 단원 소개 및 학습 가이드

12강에서 출제되는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서양의 직업관입니다. 실제로 작년 수능 20 문항 中 직업관(12번) 문항이 오답률 TOP 5위로 랭크된 만큼, 주의하여 공부해야 합니다. 직업관을 공부할 때에는 아래에 정리된 제시문을 여러 번 읽어보고, 기출 문제를 통해서 선지를 정리하고 EBS 교재를 통해서 응용 학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상가들이 다양해서 복잡할 수 있으나, 기출 문제와 EBS 교재를 통해 정리하면 충분히 마스터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직업윤리 주요 문항&해설지 분석

오늘은 EBS에 수록된 직업 윤리 문항을 분석할 것입니다. 직업윤리는 처음 공부할 때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사상가들도 많고, 세부적인 주장들도 1~11 강에서 배운 이론 규범 윤리, 응용 윤리학 내용과 겹치는 부분도 거의 없으니까요. 어려울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12강에 있는 직업 윤리 이론들은 딱 12강에 있는 내용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범위가 정해져있으면 여러 번 반복하면 됩니다. 기출 문제와 EBS를 반복해서 보시면 충분히 정복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학교 수업이나 인강을 통해 직업 윤리 내용을 정리하시구요.(보통 직업 윤리만 치면, 2강 내외로 짧음.) 그 후에 기출 3회독 + EBS 3회독 해 보세요. 1회독 당 1주일에 하루 투자해서 보시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6주 동안 기출 3회독& EBS 3회독을 하시게 되실텐데요. 그러면 뭐 직업 윤리 내용을 모두 마스터 하실 수 있겠죠.

오늘은 EBS 제시문 정리와 함께 보시면 좋을 EBS 문제 분석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번에 올려드렸던 pdf랑 이 pdf 를 인쇄해서 보시면 3회독을 편하고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겠죠. 꿀 자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바쁘고 힘들지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애정을 가지고 EBS를 정리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공부하시느라 많이 힘드시겠지만, 분명 좋은 결과 얻으실 것입니다. 모두 화이팅하세요. ^^

1. EBS 개념, 제시문, 선지, 해설에서 중요한 부분 선 요약
시간이 없으면 그냥 이 페이지만 반복해서 보고 외워도 된다.

(1) 동양 직업관

<공자>

①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부모는 부모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 유교(공자, 맹자, 순자) 공통 전제. 정명사상

<맹자>

① 사회적 원활한 흐름을 위해 사회적 분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② 사람을 대인(정신 노동자)과 소인(육체 노동자)으로 나누고 각자에게 맡는 일을 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③ 직업을 통해 백성에게 일정한 생활 근거[항산(恒産)]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2) 서양 직업관

<칼뱅>

① 직업을 ‘신으로부터 부름 받은 자기 몫의 일’이라고 보면서 자신의 직업에 충실히 임하는 것이 바로 신의 명령을 따르는 것임을 강조함

② 근면, 성실, 금욕적 태도 강조

③ ‘금욕적 태도와 자본의 축적이 양립 가능함’ (건전한 노동을 통한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는 수용 가능하다.)

④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않는다. 세속적으로 볼 때 미천한 일이라고 치부되는 일도, 신이 우리에게 부여한 소명이라면 그 자체로 신성한 일이다.

⑤ 직업의 의의를 신의 영광을 실현하고 이웃에 봉사하는 것에서 찾는다.

<마르크스>

①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의 노동은 자아실현을 이루기 위한 노동이 아니라 자본가를 위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노동이라고 주장

②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의 노동이 살아 있는 노동이 아니라 생산 수단에 포함된 죽은 노동에 지배되는, 노동자의 주체성을 잃는 ‘노동 소외’가 발생

③ 노동자는 자기 노동의 가치 즉, 자신이 노동을 판매해서 받는 임금(=자기 노동의 가치)보다 더 많은 노동을 하라고 요구받는다. (=착취)

④ 인간은 건전한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계발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생산 양식에서는 노동 소외, 착취가 발생하여 인간의 본질을 실현할 수 없다.

⑤ 자본가와 노동자는 적대 관계이며,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협력할 경우 노동 소외를 극복할 수 없다.

⑥ 자본주의적 분업을 수행하면서도 노동을 통해 인간의 본질을 실현할 수 없다.

(1) 동양 직업관

동양의 유교 문화권	· 자신이 맡은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는 정명(正名) 정신을 강조함 · 공자 :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부모는 부모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 맹자 : 직업을 통해 백성에게 일정한 생활 근거[항산(恒産)]를 마련해 주어야 함 · 장인(匠人) 정신 : 자신의 일을 천직으로 여기며 긍지를 가지고 전념함
---------------	--

공자와 순자 문제는 기출에서는 나오는데, 올 해 EBS에서는 안 나옵니다. 기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EBS에 나온 맹자 제시문과 선지를 보겠습니다.

맹자:

문항 제시문 모음

농부가 곡식을 주고 솔과 시루 그리고 농기구와 바꾸는 것이 도공과 대장장이에게 손해를 입히는 일이 아니라면, 도공과 대장장이가 자신이 만든 기계와 그릇을 주고 곡식과 바꾸는 것 역시 어떻게 농부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겠는가? . . . (중략) . . . 대인이 할 일이 있고 소인이 할 일이 있다. 또한 사람의 몸에는 백공들이 만드는 것들이 다 필요한데, 만일 반드시 모든 것을 손수 만들어서 사용해야 한다면 그것은 천하의 사람들을 이끌어서 지쳐 떨어지게 하는 것이다.

▶ 여기서 챙겨갈 것은 맹자가 ① 사회적 분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점 ② 사람을 대인과 소인으로 나누고 각자에게 맡는 일을 행해야 한다고 본 점입니다. 그리고 개념 정리에 있는 ③맹자 : 직업을 통해 백성에게 일정한 생활 근거[항산(恒産)]를 마련해 주어야 함도 챙겨가시구요.

cf) 맹자의 입장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라던지, 소인이 수양을 통해 대인이 될 수 있는지 등등은 지금으로서는 별로 관심갖을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수능완성이나 6, 9평에 맹자가 심화되어 나오지 않는 한, EBS 수특이나 교과서 범위에서는 저 두가지와 아래 선지 5가지만 챙겨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공부하실 때 강약 조절하시면서 중요한 것 위주로 하세요.

문항 선지 모음

① 육체노동이 정신노동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닌다.

▶ 우선,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을 구분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두 노동 중 무엇이 더 가치가 있냐 한다면, 논문들을 보면 정신노동을 더 높게 봤다는 주장도 있기는 합니다만, 수능에 그렇게 까지 나오기는 어렵구요.(만약 수능에 그게 나온다면 제시문이나 6, 9평 혹은 수완에서 제시하겠죠.) 내신의 경우 학교 선생님마다 의견이 다르실 수 있으니, 학교 선생님께 여쭙어보시구요.

②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자급자족을 이루어야 한다.

▶ 제시문에서 볼 수 있듯이, 맹자는 자급자족은 천하의 사람을 지치고 불편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회적 분업을 강조하고 있죠.

③ 직업을 통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때 사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

▶ 이걸 체크해야 합니다. 맹자는 각자가 직업을 통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사회의 질서가 잘 유지된다고 봅니다. 이걸 공자나 순자도 동일한 논리구요. EBS에는 없지만, 굳이 따진다면 플라톤도 동의할 것입니다.

④ 국가가 백성들에게 일정한 생업을 보장하려는 시도는 적절하지 않다.

▶ 직업을 통해 백성에게 일정한 생활 근거[恒産(恒産)]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⑤ 사회적 분업을 폐지하고 선호에 따른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 사회적 분업을 강조한다. 그리고 직업 선택의 자유는 현대에 들어와 생긴 개념이다. 맹자는 소인의 일과 대인의 일을 구분했다.

(2)서양 직업관

서양의 그리스도교 문화권	· 근면하고 성실한 자세로 직업에 임해야 한다는 소명 의식을 강조함 · 칼뱅 : 직업을 '신으로부터 부름 받은 자기 몫의 일'이라고 보면서 자신의 직업에 충실히 임하는 것이 바로 신의 명령을 따르는 것임을 강조함
------------------	---

칼뱅(Calvin, J.)의 직업소명설

자료 플러스 칼뱅(Calvin, J.)의 직업소명설

신은 우리 모든 사람이 모든 행동에서 각각 자기의 소명(召命)에 관심을 둘 것을 요구하신다. 그것은 신께서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큰 불안으로 타오르며, 얼마나 경박하고 방탕하며, 여러 가지 것을 한꺼번에 움켜잡으려는 야심이 얼마나 맹렬한가를 아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매하고 경솔한 우리가 만사를 혼란에 빠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은 각 사람에게 독특한 생활양식에 따라 의무를 지정하셨다. 그리고 아무도 자기의 한계를 경솔히 벗어나지 않도록, 그 다양한 생활들을 소명이라고 부르셨다. 그러므로 각 개인에게는 신이 지정하신 생활 방식이 있다.

- 칼뱅, "기독교 강요" -

칼뱅은 신이 각 사람에게 독특한 생활양식을 지정하였다고 본다. 그는 모든 직업이 신의 부름, 즉 소명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므로 각자는 자신의 직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소명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항 제시문 모음

신은 우리 모든 사람이 모든 행동에서 각각 자기의 소명에 관심을 둘 것을 요구하신다. 그것이 신이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큰 불안으로 타오르며, 얼마나 경박하고 방탕하며, 여러 가지 것을 한꺼번에 움켜잡으려는 야심이 얼마나 맹렬한가를 아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매하고 경솔한 우리가 만사를 혼란에 빠뜨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신은 각 사람에게 그 독특한 생활양식에 따라 의무를 지정하셨다. 그리고 아무도 자기의 한계를 경솔히 벗어나지 않도록, 그 다양한 생활들을 소명이라고 부르셨다. 그러므로 각 개인에게는 신이 지정하신 생활 방식이 있다.

▶ '직업을 신이 정해주었다는 소명의식'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칼뱅 : 모든 일에 있어서 신이 우리의 인도자임을 알면, 걱정과 수고와 곤란과 그 밖의 짐이 있더라도, 적지 않은 위안을 받게 될 것이다. 정치하는 사람은 더욱 기꺼이 직무를 수행할 것이요, 일가의 가장은 그 의무에 전심할 것이다. 각자의 생활양식에서 받는 불편과 근심과 권태와 불안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신께서 지워 주신 것이라고 믿을 때에,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참고 견딜 것이다.

▶ 이 지문도 특별한 내용은 없다. 그냥 직업을 신의 소명으로 여겨야 한다는 이야기일 뿐.

만일 신이 다른 사람의 영혼에 해를 주지 않고 합법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너희에게 지시하는데도 이를 마다하고 보다 적은 이익을 얻는 방법을 택한다면, 너희는 자신이 받은 소명의 목적 중 하나를 거부하는 것이며, 신의 대리인이 되는 것을 거부한 것이다. 이는 신의 선물을 받고도 신이 요구할 때에 신을 위해 그 선물을 사용할 기회를 거부한 것이다. 결코 욕신의 욕심과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신을 위해서라면 너희가 부자가 되기 위해 노동하는 것도 괜찮다.

▶ 이 지문에서는 언어갈 내용이 있다. 성경에는 주인의 달란트 비유가 나온다. 하인들에게 몇 달란트(화폐)를 주었는데 어떤 하인은 땅에 묻어 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오니 돌려주었지만, 어떤 하인은 그것을 몇 배로 불려서 돌려주어서 칭찬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칼뱅주의는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않고, 합법적으로’ 신의 소명인 직업 생활에서 성공하고, 물질적 부를 축적해도 된다. 단 그 돈을 낭비하거나 사치를 부려서는 안 된다고 본다. 즉 ‘금욕적 태도와 자본의 축적이 양립 가능함’으로 정리할 수 있다.

문항 선지 모음

ㄱ. 갑 : 신의 소명을 수행하는 것과 현실의 직업에 충실한 것은 별개의 것이다.

▶ 직업을 신의 소명으로 여기고, 직업에 충실해야 한다.

ㄴ. 갑 : 미천하게 보이는 일이라도 신의 소명이라면 최선을 다해 수행해야 한다.

▶ 칼뱅주의에서 주목할만한 점이다. 칼뱅의 직업관에서는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않는다. 세속적으로 볼 때 미천한 일이라고 치부되는 일도, 신이 우리에게 부여한 소명이라면 그 자체로 신성한 일이다.

① 직업의 유일한 기능은 생계유지에 있는가?

▶ 칼뱅은 직업의 의의를 신의 영광을 실현하고 이웃에 봉사하는 것에서 찾는다.

② 세속의 직업에서 신의 뜻을 찾는 것은 불가능한가?

▶ 직업을 신이 부여한 소명이라고 여긴다.

③ 현실의 직업은 소명을 실현하는 데 방해만 될 뿐인가?

▶ 현실의 직업이 소명임.

④ 직업은 오직 인간의 원죄에 대한 속죄의 의미만을 지니는가?

▶ 직업을 인간의 원죄에 대한 속죄로 본 것은 중세 기독교적 사고이다. 칼뱅은 오히려 직업이 신의 명령에 따르는 것, 신의 영광을 실현하는 것으로 본다.

- ⑤ 자신의 직업에 충실히 임하는 것이 신의 명령을 따르는 것인가?
- ▶ 그렇다.
 - ㄹ. 갑: 건전한 노동을 통한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는 수용 가능하다.
 - ▶ 건전한 노동을 통해 얻은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인정한다.
 - ㄱ. 말년의 평안한 삶을 위해 부를 추구해야 한다.
 - ▶ 부를 추구하는 이유는 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임
 - ㄴ. 직업 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신의 뜻에 따라 사는 길이다.
 - ▶ 그렇다.
 - ㄷ. 신의 소명을 다하는 가운데 부가 축적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 ▶ 그렇다. '금욕적 태도와 자본의 축적이 양립 가능함'
 - ㄴ. 직업을 가진 신앙인은 기본적으로 금욕적 생활 태도를 지녀야 한다.
 - ▶ 그렇다. '금욕적 태도와 자본의 축적이 양립 가능함'

<마르크스의 직업, 노동관>

자료 플러스 마르크스(Marx, K.)가 주장한 노동 소외

자본가는 인격화된 자본으로서 자본의 운동을 대변한다. 그래서 자본가는 노동자가 자신의 칙적으로, 또한 매우 높은 강도로 수행하도록 감시한다.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자기 노동보다 더 많은 노동을 하도록 요구한다. 자본주의 생산 양식에서는 생산 수단에 포함된 죽은 노동자의 살아 있는 노동을 지배하는 전도 또는 왜곡이 발생한다.

- 마르크스, “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의 노동은 자아실현을 이루기 위한 노동이 아니라 자본가를 위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노동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의 노동이 살아 있는 노동이 아니라 생산 수단에 포함된 죽은 노동에 지배되는 노동 소외가 발생한다고 본다.

문항 제시문 모음

자본가와 노동자의 이해관계는 융화할 수 없는 적대적 관계이다. 자본가는 더 많은 잉여 가치를 얻기 위해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강화한다. 자본가는 노동자가 자신의 일을 규칙적으로, 또한 매우 높은 강도로 수행하도록 감시한다.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자기 노동력의 가치보다 더 많은 노동을 하도록 요구한다. 자본주의 생산 양식에서는 생산 수단에 포함된 죽은 노동이 노동자의 살아 있는 노동을 지배하는 전도 또는 왜곡이 발생한다.

- ▶ 노동자는 자기 노동의 가치 즉, 자신이 노동을 판매해서 받는 임금(=자기 노동의 가치)보다 더 많은 노동을 하라고 요구받는다. 또한 자본가가 자본주의 생산 수단을 구입할 때 쓰는 자본은 이전에 노동자를 착취해서 번 돈이다.(이미 행해진 노동이라서 죽은 노동이라고 칭함) 이게 바로 마르크스가 말하는 노동 소외와 착취다.

마르크스 : 노동은 인간과 자연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 작용의 과정이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연에 영향을 주고, 또한 자연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노동을 통해 가공된 자연을 보면서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고, 이러한 노동 과정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더욱 개발한다. 그런데 자본주의 생산 양식에서는 생산 수단에 포함된 죽은 노동이 노동자의 살아 있는 노동을 지배하는 전도 또는 왜곡이 발생한다.

▶ 마르크스에 따르면 노동은 인간의 유적 본질(인간 종의 본질)이다. 인간은 건전한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계발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생산 양식에서는 노동자가 단지 생산 요소인 노동력으로 물건처럼 취급되며 팔린다. 그리고 그 노동 과정에서는 자신이 받는 임금보다 더 큰 가치를 생산해야 한다.(인간 소외, 노동 소외, 착취)

선지 모음

① 자본가와 노동자의 협력을 통해 노동 소외를 극복해야 한다.

▶ 자본가는 노동자와 적대 관계다. 자본가와 협력하면 노동 소외를 극복할 수 없다.

② 노동자의 자기 본질 실현을 위해 노동의 분업을 확대해야 한다.

▶ 마르크스가 말하는 노동의 분업이란, 공장에서 생산 과정을 분할하여 행해지는 자본주의적 분업을 말한다. 마르크스는 인간이 생산과정의 일부 부속품으로 작용하는 것을 인간의 사물화라고 비판한다.

③ 노동자가 노동을 통해 자아실현이 가능한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이다.

▶ 공산주의 사회에서 생산수단의 공유화를 이룬다면, 노동자가 노동을 통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하에서는 불가능하다.

④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가 주체성을 잃는 노동 소외가 발생한다.

▶ 그렇다.

⑤ 자본가는 노동자에 대한 인간적인 대우와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마르크스의 직업관에서는 자본가가 '인간적 대우, 복지 향상'으로 노동자를 유혹할 수 있으나, 그것은 착취를 계속하기 위해서라고 보았다.

ㄷ. 을 : 인간은 자발적 노동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

▶ 마르크스주의 직업관의 핵심이다.

1) 서양의 직업윤리

□ 서양의 그리스도교 문화권:

- 근면하고 성실한 자세로 직업에 임해야 한다는 소명 의식을 강조함
- 칼뱅 : 직업을 ‘신으로부터 부름 받은 자기 몫의 일’이라고 보면서 자신의 직업에 충실히 임하는 것이 바로 신의 명령을 따르는 것임을 강조함

[2019 수특 144p]

2) 플라톤의 직업윤리

□ 각자는 타고난 성향에 따라 한 가지 일에 배치되어야 한다. 이는 각자가 폴리스에서 자신의 한 가지 일에 종사함으로써 여럿 아닌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통치자는 사유 재산을 가져서는 안 되며 군인처럼 공동으로 생활해야만 한다. 또한 세상의 금을 탐해서도 호화로운 집에 기거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통치자는 오직 자신과 나라를 정의롭게 하는 데 힘써야하기 때문이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사회를 이루는 세 계층은 각자 타고난 성향에 따라 하나의 일에 배치되어야 한다. 각자 자신이 맡은 일에서 탁월함을 발휘하여 조화를 이룰 때 그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 서로의 일에 참견하는 것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일이다.

[2014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3) 칼뱅의 직업소명설

□ 신은 우리 모든 사람이 모든 행동에서 각각 자기의 소명(召命)에 관심을 둘 것을 요구하신다. 그것은 신께서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큰 불안으로 타오르며, 얼마나 경박하고 방탕하며, 여러 가지 것을 한꺼번에 움켜잡으려는 야심이 얼마나 맹렬한가를 아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매하고 경솔한 우리가 만사를 혼란에 빠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은 각 사람에게서 독특한 생활양식에 따라 의무를 지정하셨다. 그리고 아무도 자기의 한계를 경솔히 벗어나지 않도록, 그 다양한 생활들을 소명이라고 부르셨다. 그러므로 각 개인에게는 신이 지정하신 생활 방식이 있다.

[칼뱅, “기독교 강요” 2019 수특 145p에 인용]

- 칼뱅은 신이 각 사람에게 독특한 생활양식을 지정하였다고 본다. 그는 모든 직업이 신의 부름, 즉 소명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므로 각자는 자신의 직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소명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9 수특 145p]

- 신은 우리 모든 사람이 모든 행동에서 각각 자기의 소명에 관심을 둘 것을 요구하신다. 그것이 신이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큰 불안으로 타오르며, 얼마나 경박하고 방탕하며, 여러 가지 것을 한꺼번에 움켜잡으려는 야심이 얼마나 맹렬한가를 아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매하고 경솔한 우리가 만사를 혼란에 빠뜨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신은 각 사람에게 그 독특한 생활양식에 따라 의무를 지정하셨다. 그리고 아무도 자기의 한계를 경솔히 벗어나지 않도록, 그 다양한 생활들을 소명이라고 부르셨다. 그러므로 각 개인에게는 신이 지정하신 생활 방식이 있다.

[2019 수특 151p]

- 모든 일에 있어서 신이 우리의 인도자임을 알면, 걱정과 수고와 곤란과 그 밖의 짐이 있더라도, 적지 않은 위안을 받게 될 것이다. 정치하는 사람은 더욱 기꺼이 직무를 수행할 것이요, 일가의 가장은 그 의무에 전심할 것이다. 각자의 생활양식에서 받는 불편과 근심과 권태와 불안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신께서 지워 주신 것이라고 믿을 때에,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참고 견딜 것이다.

[2019 수특 152p]

- 만일 신이 다른 사람의 영혼에 해를 주지 않고 합법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너희에게 지시하는데도 이를 마다하고 보다 적은 이익을 얻는 방법을 택한다면, 너희는 자신이 받은 소명의 목적 중 하나를 거부하는 것이며, 신의 대리인이 되는 것을 거부한 것이다. 이는 신의 선물을 받고도 신이 요구할 때에 신을 위해 그 선물을 사용할 기회를 거부한 것이다. 결코 욕신의 욕심과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신을 위해서라면 너희가 부자가 되기 위해 노동하는 것도 괜찮다.

[2019 수특 155p]

- 신(神)은 만사(萬事)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각각의 소명(召命)을 지정하였다. 우리는 신의 축복에 의해 양육되고, 우리의 노동도 신의 축복에 의해 번창한다.

[2016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 인간은 구원을 예정해 놓은 신의 부르심[召命]에 노동을 통해 응답해야 한다. 왜냐하면 신은 여러 가지 삶의 양식 (樣式)들을 구분해 놓음으로써 각 개인이 해야 할 일을 정해 두었기 때문이다. [2015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4) 베버의 직업윤리

- 프로테스탄트는 자신의 구원의 여부가 예정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직업 노동을 신에게 선택받았다는 확신에 이르기 위한 가장 훌륭한 수단이라고 여겼다. 이들의 금욕주의가 세속의 윤리를 지배하게 되면서 근대적 경제 질서를 구축하는 데 일조 하였다. 직업이 정신적 가치와 직접 관련을 맺지 않거나 경제적 강제로 느껴질 경우 인간은 영혼 없는 전문가, 열정 없는 향락주의자로 전락할 것이다. [2019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 노동을 ‘신이 규정한 삶의 최고 목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청교도는 소명을 인식하고 소명에 따라 노동하였다. 이러한 노동이 영리 추구하고 결합하고 금욕적 절약을 통해 자본을 형성하여 자본주의 정신의 토대가 되었다. [2018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 프로테스탄트의 금욕은 향락과 낭비를 막는다. 이러한 금욕으로 인해 재화의 획득이 구원의 증표로 정당화되었다. 금욕을 바탕으로 한 영리 활동이 근대 기업가의 소명이라면, 노동은 근대 노동자의 소명이다.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 자본주의 정신과 문화는 지속적, 체계적, 현세적인 직업 노동을 최고의 금욕 수단으로 여기는 프로테스탄티즘 정신에서 태어났다. 이 정신이 자본주의 윤리의 기초이다.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5) 마르크스

- 자본가는 인격화된 자본으로서 자본의 운동을 대변한다. 그래서 자본가는 노동자가 자신의 일을 규칙적으로, 또한 매우 높은 강도로 수행하도록 감시한다.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자기 노동력의 가치보다 더 많은 노동을 하도록 요구한다. 자본주의 생산 양식에서는 생산 수단에 포함된 죽은 노동이 노동자의 살아 있는 노동을 지배하는 전도 또는 왜곡이 발생한다. [마르크스, “자본론” 2019 수특 145p에 인용]

-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의 노동은 자아실현을 이루기 위한 노동이 아니라 자본가를 위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노동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의 노동이 살아 있는 노동이 아니라 생산 수단에 포함된 죽은 노동에 지배되는 노동 소외가 발생한다고 본다.

[2019 수특 145p]

- 자본가와 노동자의 이해관계는 융화할 수 없는 적대적 관계이다. 자본가는 더 많은 잉여 가치를 얻기 위해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강화한다. 자본가는 노동자가 자신의 일을 규칙적으로, 또한 매우 높은 강도로 수행하도록 감시한다.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자기 노동력의 가치보다 더 많은 노동을 하도록 요구한다. 자본주의 생산 양식에서는 생산 수단에 포함된 죽은 노동이 노동자의 살아 있는 노동을 지배하는 전도 또는 왜곡이 발생한다.

[2019 수특 150p]

- 노동은 인간과 자연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 작용의 과정이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연에 영향을 주고, 또한 자연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노동을 통해 가공된 자연을 보면서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고, 이러한 노동 과정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더욱 개발한다. 그런데 자본주의 생산 양식에서는 생산 수단에 포함된 죽은 노동이 노동자의 살아 있는 노동을 지배하는 전도 또는 왜곡이 발생한다.

[2019 수특 152p]

- 노동이 분업에 의한 방식으로 바뀌면서 고용주는 자본가가 되어 지휘와 감독, 조절 기능을 담당한다. 분업은 특수한 기능에 적합한 부분 노동자를 양산하며, 노동자는 작업장의 부속물로서 자본의 소유물이 된다.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노동은 인간이 자신의 자연적인 힘을 사용하여 자연과 관계를 맺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자가 생산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수단이 노동자를 사용하는 왜곡이 일어난다.

[2018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 자본주의에서 사유 재산은 소외된 인간 생활의 표현이다. 사유 재산을 적극적으로 지양하면 모든 소외가 지양되어 계급이 소멸된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다.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기의 본질을 실현하고자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하에서는 노동의 본질이 왜곡된다. 노동자는 생계유지를 위해 자신의 노동을 자본가에게 팔아야하기 때문에 생산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다.

[2015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 인간의 노동은 본래 자연 세계를 변형하는 주체적, 자율적인 활동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노동은 상품만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시킨다. 결국, 노동자의 노동은 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이 된다.

[2014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

6) 동양의 직업윤리

- 동양의 유교 문화권:

- 자신이 맡은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는 정명(正名) 정신을 강조함
- 공자 :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부모는 부모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 맹자 : 직업을 통해 백성에게 일정한 생활 근거[항산(恒産)]를 마련해 주어야 함
- 장인(匠人) 정신 : 자신의 일을 천직으로 여기며 긍지를 가지고 전념함

[2019 수특 144p]

7) 정약용의 공직 윤리

- 청렴하지 않고서 수령 노릇을 제대로 한 사람은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다. 수령이 청렴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그를 도적이라 욕하며 원성이 드높을 것이니, 부끄러운 일이다. 청렴은 큰 장사이다. 그래서 포부가 큰 사람은 반드시 청렴하고자 한다. 청렴하지 못한 것은 지혜가 모자라기 때문이다. 뇌물을 주고받는 일을 몰래 하지 않겠는가마는 밤에 한 일도 아침이면 드러난다. 선물이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신세지는 정[恩情]이 맺어지면 이미 사사로움이 행해진 것이다.

[2019 수특 149p]

- 정약용은 공직 윤리로서 청렴을 강조하였다. 그는 공직자라면 대탐(大貪)을 지녀야지 조그만 이익에 얽매여 소소한 뇌물을 받거나 작은 이익에 현혹되어 참된 자신의 욕구가 중간에 좌절하고 마는 그러한 불행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2019 수특 149p]

□ 백성이 와서 호소하는 것은 억울함이 있기 때문이다. 군포의 일로 호소하면 나의 군정이 잘못된 것이요, 전세(田稅) 문제로 호소하면 나의 전정이 잘못된 것이요, 부역에 관한 일로 호소하면 내가 부역을 공평하게 처리하지 못한 것이요, 창곡(倉穀)의 일로 호소하면 내가 재산 관리를 잘못된 것이요, 심한 수탈을 당하고 호소하면 내가 토호들을 잘 다루지 못한 것이다. 백성이 호소하는 내용을 보면 다스림의 잘잘못을 알 수 있다. 정치하는 사람이 기강을 바로잡으면 백성들의 억울함은 저절로 없어질 것이니, 무엇 때문에 시끄럽게 고소장을 내려고 하겠는가?

[2019 수특 154p]

□ 청렴하지 않고서 수령 노릇을 제대로 한 사람은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다. 수령이 청렴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그를 도적이라 욕하며 원성이 드높을 것이니, 부끄러운 일이다. 청렴은 큰 장사(賈)이다. 그래서 포부가 큰 사람은 반드시 청렴하고자 한다. 청렴하지 못한 것은 지혜가 모자라기 때문이다. 뇌물을 주고받는 일을 몰래 하지 않겠는가마는 밤에 한 일도 아침이면 드러난다. 선물이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신세지는 정(恩情)이 맺어지면 이미 사사로움(私)이 행해진 것이다.

[2017학년도 수능]

□ 청렴은 목민관이 마땅히 지켜야 할 임무이며 모든 덕(德)의 원천이다. 청렴한 자는 청렴을 편안히 여기고 지혜로운 자도 이를 이롭게 여긴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선비는 청렴을 자신의 몸과 마음의 보배로 삼는다.

[2014학년도 수능]

8) 맹자

□ 농부가 곡식을 주고 술과 시루 그리고 농기구와 바꾸는 것이 도공과 대장장이에게 손해를 입히는 일이 아니라면, 도공과 대장장이가 자신이 만든 기계와 그릇을 주고 곡식과 바꾸는 것 역시 어떻게 농부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겠는가? …(중략)… 대인이 할 일이 있고 소인이 할 일이 있다. 또한 사람의 몸에는 백공들이 만드는 것들이 다 필요한데, 만일 반드시 모든 것을 손수 만들어서 사용해야 한다면 그것은 천하의 사람들을 이끌어서 지쳐 떨어지게 하는 것이다.

[2019 수특 151p]

- 모든 것을 손수 만들어 사용해야 한다면, 그것은 천하의 사람들을 바쁘게 만드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마음을 수고롭게 하고, 어떤 사람은 몸을 수고롭게 한다. 백성은 항산(恒産)이 없다면 항심(恒心)도 없게 된다.

[2018학년도 수능능력시험]

- 만약 백성에게 살아갈 수 있는 일정한 재산이나 생업[恒産]이 없으면 순수하고 변함없는 마음[恒心]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그러한 마음이 없으면 편벽되고 악해질 것이다.
- 사람은 남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不忍人之心]이 있다. 그러한 선한 마음은 직업 활동을 통해 확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옷을 만드는 사람은 날마다 자신이 만든 갑옷으로 사람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니 선한 마음을 지켜 나갈 수 있다. 그러므로 직업을 선택할 때에는 신중하지 아니할 수 없다.

[2018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 인정(仁政)은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는 것에서 시작된다. 경계를 바로 잡으면 토지를 바르게 분배하는 일은 쉽게 할 수 있다. 백성들에게도 토지를 바르게 지급하면 나라가 기름지게 될 것이다. 스스로 농사를 지어 자급자족하면서 천하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 대인(大人)이 하는 일이 있고 소인(小人)이 하는 일이 있는 것이다. 또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만든 물건들을 사용하기 마련이고,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들어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다.

[2016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9) 공자

-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한다. 임금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백성들의 신뢰를 얻어야 하며, 씩씩이를 줄이고 백성들을 사랑해야 한다. 신하는 먼저 맡은 직분을 경건히 수행하고 녹봉은 그 다음에 생각해야 한다.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10) 순자

- 선왕(先王)이 예의(禮義)를 제정한 것은 백성들에게 구별을 알게 하고자 함이다. 농부는 밭을 갈고, 상인은 물건을 팔며, 사대부는 정무(政務)를 담당한다.

[2016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 누구나 본성적으로 이익만 좋아하기에 쉬운 일만을 원하고, 힘든 일을 싫어한다. 그래서 도(道)에 정통한 군자는 사람들마다 가볍고 무거움을 나누어 [別] 서로 어울리게 한다.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왕공의 자손이라도 예에 합하지 않으면 서민에 편입 하고, 서민의 자손이라도 학문을 닦고 품행을 단정히 하여 예에 합하면 재상에 올린다.

[2015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 농부는 밭일에 정통하고 상인은 장사하는 일에 정통하며 공인(工人)은 그릇을 만드는 일에 정통하지만 그 일을 지도하는 관리가 될 수는 없다. 관리는 이 일들을 하나도 못하지만 예(과)에 정통하기에 이 일들을 다스릴 수 있다.

[2014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11) 실학의 직업윤리(홍대용)

- 사농공상(士農工商)에 관계없이 놀고먹는 자는 관에서 벌칙을 내려야한다. 재능과 학식이 있으면 비록 농사꾼의 자식이 벼슬길에 올라도 분수에 넘치는 것이 아니다.

[2015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들어가는 글: 엘리아데는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평가 17번, 2016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평가 20번 문항으로 출제되었다. 따라서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작년과 재작년 9월 평가원 모의평가에 연속으로 출제된 개념이므로 최소한 간단한 배경과 EBS에 나온 제시문과 선지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1. 엘리아데의 성현 심층 해설 및 개념 칼럼

• 엘리아데의 『성과 속』

엘리아데는 『성과 속』에서 근대의 사람들이 종교의 역할과 권위를 무시하며, ‘이성, 세속’적인 것에 몰두하는 경향을 비판한다. 엘리아데는 종교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이 서로 분리되어있지 않다는 견해를 보인다. 그에 따르면 인간과 만물은 ‘성’과 ‘속’이라는 두 세계에 동시에 몸을 담고 있다. 그리고 성과 속이라는 두 세계는 모두 인간에게 본질적인 것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엘리아데의 연구의 핵심은 ‘성현’이라는 개념이다. 그는 성스러움이 단지 추상적인 개념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현실의 세속적 삶에서 더불어 나타난다고 보았다.

•엘리아데의 성현(聖顯): ‘성스러움의 드러남’

엘리아데에 따르면 인간을 포함한 세계를 창조한 것은 신들이다. 따라서 자연과 인간의 삶 속에서 신의 성스러움이 드러난다. 이것이 바로 ‘성현(聖顯) : 성스러움의 드러남’이다. 따라서 인간은 세속적 휴머니즘의 세계와 성스러움의 세계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인간은 세속적 존재이며, 동시에 종교적 존재이다. 비록 근대인들이 스스로를 비종교적이라고 주장할지라도, 근대인의 인식과 행동의 바탕에는 종교적인 의식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그들은 결혼, 출산, 입학, 사회적 진출 등의 중요한 사건을 겪을 때마다 파티(축제)를 여는 등 그 일을 기념한다. 그러한 기념 의식은 종교적인 제의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비종교적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결국 종교적인 제의를 따르므로 종교적 지향성은 인간 존재의 본질이다. 결국 성스러움과 인간의 삶은 단절되어 있지 않다. 인간의 삶과 인간이 나아가고 있는 자연에서는 언제든지 성스러움의 드러남, 즉 성현(聖顯)이 나타날 수 있다. 우리는 그런 경험 속에서 종교적인 삶을 체험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엘리아데는 인간을 절대적 실체(신)의 창조물이며, 절대적 실체를 갈망하는 존재, 즉 종교적 지향성을 지닌 존재로 보았다. 이에 엘리아데는 세속과 성스러움의세계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종교 생활을 강조하였다.

*현현(顯現): 명백하게 나타남, 드러남

2. EBS의 엘리아데 제시문과 선지 정리

(1) 제시문 정리

자료 플러스 엘리아데의 성과 속

모든 것이 성성(聖性)을 부분적으로라도 구현할 수 있다면 성(聖)과 속(俗)의 이분법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모순을 사실상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나 다 성현(聖顯)이 될 수 있고 역사의 어떤 시점과 공간에서 성스러운 가치를 지니지 못한 것은 없으리라는 것도 사실이지만, 역사 속에서 이 모든 성현을 다 가졌던 종교와 인종 또한 없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종교적 구조에는 성스러운 것과 나란히 세속적인 존재와 사물이 항상 있게 마련이다.

- 엘리아데, “종교형태론” -

엘리아데는 종교를 일상 속에서 성스러움과 만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는 성과 속이 분리되어 있거나 단절되어 있지 않으며, 결국 일상적인 삶 자체가 언제든지 성스러움의 드러남, 즉 성현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세속과 성스러움의 세계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종교 생활을 강조하였다.

기본 문항 06번

세상은 온갖 일상적인 것들로 충만해 있다. 그러나 보리수나무가 부처가 득도한 후 지혜의 상징이 되듯이 예기치 않은 장소, 사물, 시간 속에서 비범하고 초월적인 새로운 현상이 나타난다. 성현(聖顯)이야말로 ‘성(聖)’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다. 인간의 삶이 근원적으로 ‘성’과 ‘속(俗)’의 이중 구조를 가진다는 사실의 확인이 성을 이해하는 지름길이다. 균질적인 것과 비균질적인 것, 존재와 비존재, 의미와 무의미의 이중적 구조를 구조 속에서 성은 언제나 자신을 역동적으로 새롭게 나타냄을 깨달아야 한다.

실전 문항 07번

모든 것이 성성(聖性)을 부분적으로라도 구현할 수 있다면 성(聖)과 속(俗)의 이분법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모순은 사실상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나 다 성현(聖顯)이 될 수 있고 역사의 어떤 시점과 공간에서 성스러운 가치를 지니지 못한 것은 없으리라는 것도 사실이지만, 역사 속에서 이 모든 성현을 다 가졌던 종교와 인종 또한 없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종교적 구조에는 성스러운 것과 나란히 세속적인 존재와 사물이 항상 있게 마련이다.

(2) 선지 정리

인간의 삶에서 종교적 요소를 배제해야 한다.

▶ X

과학을 활용해 종교의 불합리성을 밝혀야 한다.

▶ X

종교적 교리를 세속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 X

일상적인 것이 성을 드러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 이것이 바로 엘리아데의 성현 개념이다.

세속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이 무관함을 알아야 한다.

▶ X

현실에 성과 속이 공존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 엘리아데의 성현 개념이다.

과학을 통해 성스러운 자연물을 모두 찾아내야 한다.

▶ X, 과학의 대상이 아니다.

세속적인 것이 성스러움을 드러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 엘리아데의 성현 개념

초자연적인 것은 배제하고 자연적인 것을 추구해야 한다.

▶ X, 초자연적인 것, 신성한 것을 인정해야 한다.

14강 의식주 윤리와 다문화 사회의 윤리

- 단원 소개 및 학습 가이드

14강은 솔직히 쉽습니다.

다만, 음식 윤리에서 피터 싱어의 입장을 낸다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죽음의 밥상 제시문은 챙겨가도록 합시다.

- 2019학년도 EBS 수능특강 14강의 특징

수능 특강 14강. 의식주 윤리와 다문화 사회의 윤리에서는 모든 개념과 문항이 쉽습니다. 그러나 단 한 문항 177P의 5번 문항이 까다로운데요. 이 문항은 ‘피터 싱어의 음식윤리, 『죽음의 밥상』을 근거로 출제된 문항입니다. 수능특강의 14강은 이 피터 싱어의 문항만 잘 공부해도 충분합니다.

<피터 싱어의 육식 비판론 개념 칼럼>

피터 싱어의 음식윤리, 『죽음의 밥상』 텍스트와 선지를 같이 분석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고기를 음식으로 먹는 것이 과연 윤리적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동물은 교육을 받을 권리, 투표권, 언론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가질 수 없다. 대부분의 동물 권리론자가 주장하는 형평성이란 동물에게 인간과 동일한 권리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그들이 비슷하게 갖고 있는 이해관계를 공평하게 존중하자는 것이다. 고통만 있고 그것에 상응하는 혜택이 없다면, 그 어떤 경우라고 해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 고통의 주체가 어떤 종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인간이 아닌 동물의 이익에 대해서도 인간의 이익에 표하는 것과 같은 존중을 표해야 한다. 이제는 이러한 윤리적 원칙에 따라 육식을 하는 것이 윤리적인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2019 수특 177p]

5 (가)의 관점에서 (나) 사례에 대해 제시할 수 있는 적절한 견해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발문에서 볼 수 있듯, 피터 싱어는 육식주의에 따르는 ‘공장식 농장’에 대해서 ‘종차별주의’라고 비판합니다.

(가)	우리는 고기를 음식으로 먹는 것이 과연 윤리적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동물은 교육을 받을 권리, 투표권, 언론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가질 수 없다. 대부분의 동물 권리론자가 주장하는 형평성이란 동물에게 인간과 동일한 권리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그들이 비슷하게 갖고 있는 이해관계를 공평하게 존중하자는 것이다. 고통만 있고 그것에 상응하는 혜택이 없다면, 그 어떤 경우라고 해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 고통의 주체가 어떤 종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인간이 아닌 동물의 이익에 대해서도 인간의 이익에 표하는 것과 같은 존중을 표해야 한다. 이제는 이러한 윤리적 원칙에 따라 육식을 하는 것이 윤리적인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나)	단지 육식을 좋아하는 인간의 밥상을 위해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어미에게서 분리된다. 또 고기 맛을 좀 더 좋게 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송아지는 몸을 한 바퀴 돌릴 수도 없는 좁은 우리에 가둬진 채 공장식 농장에서 일평생을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

▶ (가) 제시문은 피터 싱어의 『죽음의 밥상』에서 따온 것입니다. 같이 피터 싱어의 원전을 읽어볼까요?

인간은 동물보다 우월한가?

서구의 기본적 에토스는 인간의 이익이 언제나 다른 종의 비슷한 이익보다 우선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에 현대 동물권리 운동이 일어난 이래, 그 에토스는 수세로 돌아섰다. 여기서 제기된 주장은 인간과 인간이 아닌 동물 사이의 뚜렷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그것은 그들도 우리처럼 이해관계를 갖는다는 뜻이다. 우리가 그들이 우리 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들의 이익을 무시 또는 폄하한다면, 우리의 입장은 곧 가장 극단적인 인종차별론자나 성차별론자의 입장과 비슷해지는 것이다. 즉 반대편의 특징이나 입장을 도외시하며 백인이나 남성이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일과 같아지는 것이다.

이처럼 **종차별주의(speciesism)**와 인종차별주의 또는 성차별주의를 같은 선상에 두는 데 대해, 흔히 나오는 반론은 백인이 다른 인종보다 우월하다거나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은 분명 잘못이지만 인간은 정말로 인간이 아닌 동물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이다.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고, 자기 인식을 한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도덕적 존재가 갖추어야만 하는 특성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부 인간들, 가령 유아나 심각한 정신지체인의 경우에는 이성의 능력이나 반성 능력이 일부 인간이 아닌 동물들보다 떨어진다. 따라서 우리는 한쪽에 모든 인간을, 다른 쪽에 모든 인간 아닌 동물을 놓는 이런 이분법을 정당화할 수 없다.

18세기에 『걸리버 여행기』의 저자인 조나단 스위프트는 아일랜드의 빈곤 여성이 키우는 아이들의 ‘과잉 현상’을 다룰 ‘온당한 제안’을 했다. “나는 한 살배기의 건강하고 잘 양육된 아기야말로 가장 맛있고, 영양 많고, 건강에 좋은 음식임을 확신한다. 끓이거나, 굽거나, 찌거나, 삶거나 다 좋다.” 이 제안은 물론 영국의 아일랜드 정책을 풍자하기 위한 농담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제안에서 충격을 받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실은 어떤 감각 있는 존재를 고깃덩이로 만드는 일에 그 존재의 높은 이성 능력 같은 점은 문제시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유아가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될 잠재력도 중요한 도덕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 심각하고 치유 불가능한 지능 장애를 타고난 사람을 죽여서 요리한다면, 우리는 똑같이 충격을 받을 테니까. 하지만 우리 종 가운데서 지능, 이성적 능력, 자기 인식 능력 등을 두고 그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쪽을 아서는 쪽이 마음대로 착취할 수 없다고 하면, 어째서 다른 종을 착취하는 일을 같은 이유로 정당화할 수 있겠는가? 인간이 아닌 동물을 착취하는 우리의 의지는 건설한 도덕적 기반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 그것은 ‘종 차별주의’, 힘 있는 쪽에게 편리하기 때문에 살아남게 되는 편견에 근거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 그러한 편견의 주체는 백인이나 남성이 아니라 인간이다.

치유 불가능한 지능 장애가 있는 사람을 포함한 어떤 의식 있는 인간도 타인의 뜻에 따라 박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유지하려면, 우리는 이 원칙의 경계를 우리

종에 한정하지 말고 의식이 있고 박해받을 수 있는 다른 동물에게 확대해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종 주위에만 도덕의 금을 긋고, 우리의 종 중에서 ‘도덕적 존재로서의 능력’이 많은 인간이 아닌 동물들보다 떨어지는 구성원들도 그 도덕을 근거로 보호하면서 다른 동물은 배척하게 될 것이다. 이 경계 넓히기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인종차별주의자나 성차별주의자들이 그런 도덕의 금을 더 좁게, 자기들 주위에 그으려는 시도를 막지 못할 것이며, 그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지 못할 것이다.

동물과 인간을 동등하게?

우리가 지금 동물을 다루는 방식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종종 동물권리운동이 동물에게 인간과 동등한 권리를 주려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것은 전혀 무의미한 말이다. 동물은 교육을 받을 권리, 투표권, 언론의 자유 같은 기본권을 가질 수 없다. 대부분의 동물권리론자가 주장하는 형평성이란 동물에게 (인간과) 똑같은 권리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그들이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를 공평하게 존중하자는 것이다. 어떤 동물이 고통을 느낄 수 있다면, 그 고통은 인간이 느끼는 고통과 다를 것이 없다. 서로 다른 정신 역량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것이나 기억하는 것, 예상하는 것 등도 서로 다를지 모른다는 주장도 있다. 그 점을 인정하더라도, 또한 그러한 차이점이 사실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아기가 느끼는 고통은 악(惡)이다. 설령 그 아기가 가령 돼지보다 자기 인식 능력이 떨어지며 기억력이나 예상 능력 또한 나을 것이 없더라도 말이다. 고통은 위험에 대한 유용한 경고가 되며, 따라서 가치가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고통만 있고 그것에 상응하는 혜택이 없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경우라고 해도 그러한 경험을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그 고통의 주체가 어떤 종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불필요한’ 고통을 피하는 문제를 넘어서 이해관계의 동등한 존중이라는 원칙에 도달했다. 그것은 인간이 아닌 동물의 이해관계에 인간의 이해관계에 표하는 것과 같은 존중을 표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제는 이 원칙이 우리가 육식을 하는 것이 윤리적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ㄱ. 육식은 인간과 동일한 기본권을 지닌 동물의 권리를 침해함을 간과하고 있다.

▶ 위 본문에서는 동물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간과 동물이 동일한 기본권을 지녔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단지 ‘우리와 동물의 이해 관계를 공평하게 존중’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한다.

“우리가 지금 동물을 다루는 방식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종종 동물권리운동이 동물에게 인간과 동등한 권리를 주려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것은 전혀 무의미한 말이다. 동물은 교육을 받을 권리, 투표권, 언론의 자유 같은 기본권을 가질 수 없다.” 피터 싱어, 『죽음의 밥상』

ㄴ. 인간뿐 아니라 동물의 이해관계도 존중해 동물을 대우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 피터 싱어의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동물권리론자가 주장하는 형평성이란 동물에게 (인간과) 똑같은 권리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그들이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를 공평하게 존중하자는 것이다. 어떤 동물이 고통을 느낄 수 있다면, 그 고통은 인간이 느끼는 고통과 다를 것이 없다.” 피터 싱어, 『죽음의 밥상』

ㄷ. 인간과 동물의 이익을 공평하게 고려해 육식을 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 위 제시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된다.

이제 우리는 ‘불필요한’ 고통을 피하는 문제를 넘어서 이해관계의 동등한 존중이라는 원칙에 도달했다. 그것은 인간이 아닌 동물의 이해관계에 인간의 이해관계에 표하는 것과 같은 존중을 표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제는 이 원칙이 우리가 육식을 하는 것이 윤리적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피터 싱어, 『죽음의 밥상』

ㄹ. 인간과 동물이 서로 다른 종이라는 이유로 육식을 정당화하지 말아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 싱어는 종이 다르다고 차별하는 태도를 ‘종 차별주의’라며 비판한다.

따라서 우리는 한쪽에 모든 인간을, 다른 쪽에 모든 인간 아닌 동물을 놓는 이런 이분법을 정당화할 수 없다. (...) 하지만 우리 종 가운데서 지능, 이성적 능력, 자기 인식 능력 등을 두고 그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쪽을 아서는 쪽이 마음대로 착취할 수 없다고 하면, 어째서 다른 종을 착취하는 일을 같은 이유로 정당화할 수 있겠는가? 인간이 아닌 동물을 착취하는 우리의 의지는 견실한 도덕적 기반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 그것은 ‘종 차별주의’, 힘 있는 쪽에게 편리하기 때문에 살아남게 되는 편견에 근거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 그러한 편견의 주체는 백인이나 남성이 아니라 인간이다. 피터 싱어, 『죽음의 밥상』

15강 평화와 윤리

- 단원 소개 및 학습 가이드:

15단원은 통일 정책과 같이 출제되지 않는 내용과 '해외 원조, 전쟁론'과 같이 자주 출제되는 내용으로 나뉩니다. 우선 공부는 자주 출제되는 내용을 위주로 하고, 6평과 9평의 기조를 봐서 출제되지 않았던 내용이 출제될 경우 추가로 공부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15-2. 아퀴나스의 정의전쟁론 마스터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 칼럼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정의 전쟁론으로 출제되었던 내용과 앞으로 출제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설명하였습니다. 제가 직접 원전과 아퀴나스 정의 전쟁론 관련하여 출간된 모든 논문을 읽고 정리한 자료입니다. 시중에서는 구하실 수 없는 귀한 학습 자료입니다.

1~4. 까지는 개념적인 요약이며, 5.는 원전 발췌 인용입니다. 1~4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후에 5.를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1~5. 내용이 아퀴나스의 정의 전쟁론으로 출제 가능한 모든 내용입니다.

이 자료만 마스터하셔도 됩니다.

본 글로 수능특강 분석을 마칩니다.

그동안 저와 같이 생활과 윤리 수능특강을 공부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모든 분들이 6월 모의평가에서 그리고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수민 올림.

1. 4종 교과서에서 아퀴나스의 정의 전쟁론

아퀴나스의 정당한 전쟁의 조건: 적당한 권위, 정당한 원인, 바른 의도 [비상교육, 『생활과 윤리 교과서』 277p]

cf) 그로티우스: 정당한 원인, 상응성, 성공 가능성, 공적 전쟁 선포, 합법적 권위, 최후의 수단

▶ 4종 교과서 中 아퀴나스의 정의 전쟁론을 다룬 것은 비상교육이 유일하며, 관련 내용도 본문이 아닌 날개에 위 전쟁의 조건 3개를 나열한 것이 전부다. 오히려 교과서 본문에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현실 세계에서는 악을 제어하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전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소개되어 있다.

▶ 오히려 교과서 본문의 정의 전쟁론 관련 설명은 근대 자연법 사상가 그로티우스의 정당한 전쟁의 조건에 해당한다. 그런데 그 조건들은 ‘아퀴나스, 왈처’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왈처는 전쟁의 정당화 조건 中 ‘최후의 수단’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취한다.

cf) 왈처의 입장: 최후의 수단이 아닌 전쟁도 정당화 될 수 있다.

나는 군사력이 최후의 수단이라는 주장에 언제나 반대해 왔다. ‘최후’라는 관념은 프랑스인들이 지난 가을과 겨울동안 보여주었던 것처럼 군사력의 사용을 무기한도로 연기하려는 변명으로 종종 활용되기 때문이다. [왈처 「그래, 이것이 정의로운 전쟁인가?」]

걸프전을 시험적 사례로 살펴보자. 몇몇 가톨릭 주교들을 비롯한 종교계 비판가들은 정의로운 전쟁 이론을 이용함과 동시에 비격하려 했다. 그들은 걸프전이 부정의하다고 주장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정의에 대해서 논의했고, 정의로운 전쟁의 기준에 비추어 그 전쟁이 정의로울 수 있다는 점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정의 이론의 대부분을 폐기해 버리고자 했다. 그들 모두는 내가 보기에 위험하고도 잘못된 주장, 즉 현대 세계에서 어떠한 전쟁도 결코 정의로운 전쟁일 수 없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 그들은 이를 위해 정의로운 전쟁 이론의 원칙을 새삼 강조한다. 전쟁은 반드시 “최후의 수단”이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나는 [그 원칙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도덕적 분별에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게다가 걸프전은 그 원칙의 부적절함을 보여주는 유용한 사례이기도 하다. ... 이라크의 침공이 급작스럽고 폭력적이었기 때문에 전쟁은 쿠웨이트인들에게 최초의 수단이 될 수 있었고, 동맹국과 우방국들은 쿠웨이트인들의 방어 전쟁에 정당하게 동참할 수 있었을 것이다. ... 여기서 “최후의 수단”이라는 독트린은 더 이상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봉쇄가 취해졌던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최후의 수단”이라는 독트린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전쟁은 도덕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이 최후의 수단에 도달할 수도, 혹은 우리가 그 순간에 도달했음을 알 수도 없기 때문이다. ... 그러나 전쟁이 최초의 순간, 즉 침략이 행해진 순간에 정당화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 어떠한 시점에도 다른 대안보다 손실의 차원에서 나아보일 때는 전쟁은 정당화될 수 있다. ... 이라크가 항복하지 않자 전쟁은 비록 “최후의” 수단은 아니었지만 분명 정당한 수단이 되었다. [왈처 『걸프전에 있어서의 정의와 부정의』]

2. 수능과 평가원에서 아퀴나스의 정의 전쟁론

<제시문>

아퀴나스: 전쟁은 찬양되어서는 안 되지만, 도덕적 제약을 전제로 **최고의 합법적 권위에 의해 선포되는 경우와 나를 지키기 위해 적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
[2018학년도 6월 모평 17번 제시문]

아퀴나스: 전쟁은 신법(神法)을 지키고 공동선과 평화를 위한 것이다. 전쟁이 정의롭기 위해서는 **적법한 권위를 지닌 군주에 의해서만 수행되어야 하며, 공격의 정당한 이유와 올바른 의도가 있어야 한다.** 전쟁은 **한 국가가 백성들에게 가한 나쁜 짓을 바로잡길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차지한 것을 돌려주길 거부할 경우 그 악을 징벌하는 것**이어야 한다. **처음부터 적을 죽이려는 의도가 아니어야 하고 필요 이상의 폭력을 가해서도 안 되며, 개인의 적개심이 아닌 공공선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교전 중 자기 생명을 지키려는 목적 이상의 많은 희생을 야기하는 행위는 신법을 거스르는 것이다.** [2017학년도 수능 14번 제시문]

<선지>

무력은 평화와 정의를 지키는 정당한 수단이 될 수 없다. [2017학년도 수능 14번]

▶ X,

개별 국가의 폭정은 전쟁 선포의 정당한 명분이 될 수 없다. [2017학년도 수능 14번]

▶ X,

공동선과 평화를 위해서는 일반인도 전쟁을 선포할 수 있다. [2017학년도 수능 14번]

▶ X,

방어 이외에 어떠한 선제공격도 도덕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 [2017학년도 수능 14번]

▶ X,

전쟁 중이라 하더라도 모든 살상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2017학년도 수능 14번]

▶ O,

자국의 방어를 위한 불가피한 전쟁은 도덕적으로 허용된다. [2018학년도 6월 모평 17번]

▶ O,

3. 2019학년도 EBS 『수능특강』에서 아퀴나스의 정의 전쟁론

기출 플러스 아퀴나스의 정의 전쟁론 [2017학년도 수능 14번]	[184p 본문]
<p>전쟁은 신법(神法)을 지키고 공동선과 평화를 위한 것이다. 전쟁이 정의롭기 위해서는 적법한 권위를 지닌 군주에 의해서만 수행되어야 하며, 공격의 정당한 이유와 올바른 의도가 있어야 한다. 전쟁은 한 국가가 백성들에게 가한 나쁜 짓을 바로잡길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차지한 것을 돌려주길 거부할 경우 그 악을 징벌하는 것이어야 한다. 처음부터 적을 죽이려는 의도가 아니어야 하고 필요 이상의 폭력을 가해서도 안 되며, 개인의 적개심이 아닌 공공선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교전 중 자기 생명을 지키려는 목적 이상의 많은 희생을 야기하는 행위는 신법을 거스르는 것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 아퀴나스, “신학대전” -</p>	
<p>아퀴나스는 정당한 전쟁은 세 가지 요건, 즉 적법한 군주의 권한(합법적 권위), 정당한 이유, 전쟁 수행자의 정당한 의도가 요구된다고 보았다.</p>	

2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BS 『수능특강』 187p 2번]

정당한 전쟁을 위해서는 세 가지가 요구된다. 첫째, 군주의 권한인데, 그의 명령에 의하여 전쟁이 수행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전쟁을 벌이는 일은 개인의 사적인 권한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를 돌보는 일이 군주들에게 맡겨져 있으므로, 자기에게 예속된 도시나 왕국을 보호하는 일은 그들에게 속한다. 또한 그는 신의 집행자요, 악행을 하는 자들에 대한 분노의 처벌자이다. 둘째, 정당한 이유가 요구된다. 즉, 공격을 받는 자들은 어떤 잘못 때문에 공격을 마땅히 받는다. 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는 “만약 자신들에 의하여 부당하게 이루어진 일을 바로잡거나 혹은 불법에 의하여 탈취된 것을 반환하는 것을 태만히 하는 민족, 국가가 징벌을 받아야 한다면, 정당한 전쟁은 불법을 응징하는 것으로서 정의되어야 한다.”라고 말한 것이다. 셋째, 전쟁 수행자들의 의도가 올바를 것이 요구된다. 즉, 선이 증진되거나 혹은 악이 회피되도록 의도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의 진정한 숭배자들 사이에서는 탐욕스럽거나 잔인하게가 아니라, 악이 제지되고 선이 위로받도록 하려는 평화의 열망에 의해 행하여지는 전쟁이 평화롭다.”라고 말한 것이다.

- ① 정의로운 전쟁은 신법(神法)을 지키고 공동선과 평화를 위한 것이다.
- ② 처음부터 적을 죽이려는 의도로 시행된 전쟁은 정당한 전쟁이 아니다.
- ③ 방어전뿐만 아니라 선제공격을 하는 경우도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 ④ 전쟁 중 자기 생명을 지키려는 목적 이상의 많은 희생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
- ⑤ 정의를 수호하려는 대의명분을 갖춘 모든 개인에 의해 전쟁이 정당하게 선포될 수 있다.

4. 토마스 아퀴나스의 정의 전쟁론 요약

(1) 정의로운 전쟁이란 무엇인가?

정의로운 전쟁의 의미: ㉠신법을 지키고, ㉡공동선과 ㉢평화를 위한 전쟁.

정의 전쟁의 도덕적 제약 조건:

┌전쟁 개전에서의 정의: 선을 증진 ㉠정당한 권위, ㉡정당한 원인

└전쟁 수행 과정에서의 정의: 악을 회피 ㉢바른 의도

가장 중요한 조건: ㉠정당한 권위

cf) 전쟁 개전에서의 정의와 수행 과정에서의 정의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적법한 권한, 정당한 원인'에 따라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 수행자가 '악한 의도'로 전쟁을 수행한다면 그 전쟁은 정당하지 않다.

<전쟁 개전>에서의 정의: 선을 증진하라!

(2) 전쟁의 정당화 조건 첫째, 정당한 권위: 전쟁을 명령할 군주의 권위가 필요하다.

(3) 전쟁의 정당화 조건 둘째, 정당한 원인: 어떤 잘못을 하여 전쟁을 자초한 상대국이 있어야 한다.

㉠ 악을 징벌: 아퀴나스에게 전쟁은 신법(神法)에 따라서 부정의한 타 국가를 처벌하는 개념이다.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의 백성들에게 나쁜 짓을 가하거나, 우리나라의 백성들의 소유물을 부당하게 차지한 경우, 우리나라의 최고의 합법적 권위를 소유한 사람(왕)이 타국에 '잘못을 바로잡길' 요청할 것이다. 이 때 정당한 배상을 한다면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정당한 보상을 거부할 경우 그 악을 징벌하기 위해서 정의로운 전쟁을 벌일 수 있다.

▶ 이 경우 선제공격도 허용한다.

<전쟁 수행 과정>에서의 정의: 악을 회피하라!

(4) 전쟁의 정당화 조건 셋째, 바른 의도: 탐욕과 무자비함이 아닌, '평화'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

㉠ 방어전, 적군 살해 허용: 자기 보존이라는 자연법에 따름. 나를 지키기 위해 적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에 전쟁을 하고, 적군을 죽이는 것이 정당하다.

▶ 이중 효과의 원리: 처음의 의도는 '나를 지키려는 것' 부수적인 결과가 '적의 죽음',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적을 죽이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교전 중 자기 생명을 지키려는 목적 이상의 많은 희생을 야기하면 안 된다.(비례성의 원칙)

5. 아퀴나스의 정의 전쟁론 원전

(1) 주제: 아퀴나스 정의 전쟁론 일반

“한 전쟁이 정당하려면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전쟁을 명령할 군주의 권위가 필요하고

둘째, 정당한 이유, 즉 상대국이 어떤 죄책에 의해서 마땅히 공격받을 자임이 필요하며

셋째, 전쟁의 의도가 옳아야 한다. 즉 선을 조성하고 악을 저지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아퀴나스

(2) 주제: 정의 전쟁 요건 中 ① 적법한 군주의 권한(합법적 권위)

첫째로 정당한 전쟁은 합법적 권위를 가지고 선포되어야 한다. 이것은 전쟁이 누구의 명령에 의해 수행되는 가하는 주권자의 권위에 관한 문제이다. 전쟁은 어떤 개인이 선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전쟁은 군주의 명령에 의하여 수행되어야만 한다. 그것은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개인의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개인은 자신의 권리를 상급자의 판결 내에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은 전쟁 수행에서 필수적인 다중을 소집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적 질서를 관리하는 것이 군주에게 위임된 사항이므로 그의 통치하에 있는 국가나 왕국이나 지역을 지키는 것 또한 군주의 소관 사항이다. 범죄자들을 징벌함으로써 국가 내에서 평화를 교란시키는 자들에 대하여 검으로 공적 질서를 수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로가 로마서(13.4)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공권력을 가진 자는 이유 없이 검을 지닌 것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며, 악행을 일삼는 자들을 징벌하는 분노의 형 집행자다. -전쟁의 검을 가지고 외부의 적에 대하여 공적 질서를 수호하는 것 역시 군주의 과업이다. 그러므로 시편(82.4)에서는 야훼께서 군주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가난한 자와 약자들을 풀어 주어라. 악인의 손에서 구해 주어라.” 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는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가사적인 자들의 평화에 적합한 자연 질서는 전쟁을 수행하는 권한과 결정이 군주에게 놓여 있음을 요구한다.” - 아퀴나스

▶ 개인은 다중을 소집할 권한을 지니지 아니한다. 개인은 전쟁을 선포하거나 수행할 권한이 없다.

첫째, 군주의 권한인데, 그의 위임에 의하여 전쟁이 수행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전쟁을 벌이는 일은 개인의 私적인 권한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며, 그의 권리는 상급자의 판결 속에서 추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마찬가지로, 전쟁에 있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다수의 소집은 사적 개인에게는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가를 돌보는 일이 군주들에게 맡겨져 있으므로, 자기에게 예속된 도시나 왕국이나 지방을 보호하는 일은 그들에게 속한다. 또한 그들이 범죄자들을 처벌함에 있어서, 그들이 내부의 난동자들에 대하여 有形의 劍으로써 국가를 올바르게 방어하는 것처럼, 로마서 12장에 따르면 그는 이유 없이 검을 차는 것이 아니다. 그는 신의 집행자요, 악행을 하는 자들에 대한 분노의 처벌자이다. 또한 이와 같이 전쟁의 검으로써 국가를 외부의 적들로부터 보호하는 일은 그들에게 속한다. 또한 그리하여 군주들에게는 시편에서 “가난한 자를 구출하고, 또한 곤궁한 자를 죄인의 손으로부터 해방시켜라”라고 말하여졌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Contra Faustum에서, 자연의 질서는, 사멸할 자들의 평화에 적합한 것인데, 전쟁을 책임질 권한과 결정이 군주들에게 달려 있어야 함을 요구한다고 말한다. -아퀴나스

(3) 주제: 정의 전쟁 요건 中 ② 정당한 이유

정의의 전쟁에는 두 번째로 정당한 근거가 요구된다. 전쟁을 자초한 자는 자신의 잘못 때문에 그것을 초래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정의로운 전쟁을 통해 부당함이 처벌을 받는다. 그러므로 한 민족이나 한 국가가 자기 구성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행해진 것을 징벌하는 데 소홀하거나, 부당하게 강탈된 것을 배상하는 데 소홀할 경우, 그런 종족이나 국가는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아퀴나스

둘째로, 정당한 원인이 요구된다. 즉, 공격을 받는 자들은 어떤 잘못 때문에 공격을 마땅히 받는다. 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는 *liber Quaestionum in Heptateuchum*에서, 만약 자신들에 의하여 부당하게 이루어진 일을 반환청구하거나 혹은 불법에 의하여 탈취된 것을 반환하는 것을 태만히 하는 민족 또는 국가가 징벌을 받아야 한다면, 정당한 전쟁은 불법을 응징하는 것으로서 정의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아퀴나스

(4) 주제: 정의 전쟁 요건 中 ③ 전쟁 수행자의 정당한 의도

세 번째로 전쟁 수행자들이 올바른 의도를 가지는 것이 요구된다. 즉, 선을 증진하거나 악을 회피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올바르게 하느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전쟁 역시 평화적 특성을 가진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전쟁은 탐욕이나 무자비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갈망함으로 인해 수행되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악을 제어하고 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쟁은 전도된 의도 때문에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비록 전쟁을 선언하는 권한이 적법하고, 올바른 근거가 있다 할지라도 말이다. 왜냐하면 아우구스티누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 때문이다. “해악을 끼치고자 하는 탐심, 보복하고자 하는 잔인성, 화해되지 않고 화해할 수 없는 정신, 반격하고자 하는 야만성, 권력에의 충동 그리고 이와 유사한 모든 것들은 전쟁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아퀴나스

▶ 전쟁 수행자의 ‘선을 행하고 악을 회피함’이라는 올바른 의도가 정의의 전쟁에 필수적임.

정의의 전쟁을 통해 양국 사이에 존재했던 부당한 관계가 청산되고 정의가 회복된다. 그러므로 정의의 전쟁은 어떤 의미로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쟁은 보통 극단적인 폭력을 수반하게 마련이므로 거기에는 항상 죽음의 위협이 상존하게 된다. 따라서 전쟁 수행자들, 즉 군대의 지휘관이나 일반 병사들이 이 같은 위협에 대한 공포심으로 인해 국가 방위란 중차대한 임무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전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그 같은 공포심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의 덕이 필요하다.

… 전쟁에서의 위협은 어떤 정신적인 선 -예를 들어 정의의 전쟁을 통하여 공공선을 수호하는 행위-을 추구하는 데서 직접적으로 야기된다. 용기의 덕은 따라서 전쟁에서 야기되는 위협에 대항하여 인간 정신의 굳건함을 보증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당한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용기의 덕이 필요한 것이다. -아퀴나스

… 지금까지의 비교적 긴 논의를 통해 왜 전쟁이, 비록 그것을 선포한 권한이 적법하고 정당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된 의도로 인하여 허용될 수 없는지가 밝혀졌다. 전쟁이 평화적 성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전쟁이 완전한 의미에서 정당한 행위, 곧 정의의 완전한 행위여야 한다. 정의의 완전한 행위에는 “선을 행함”이라는 행위뿐 아니라, “악을 회피함”이라는 행위도 요구된다.

전쟁이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의 충족 - “전쟁을 선포하는 자의 권한이 적법할 것”. “정당한 근거가 있을 것”-으로 충분하다. 불의를 행한 국가에 대하여 피해국의 군주의 명령에 의하여 전쟁이 수행될 때 그 전쟁은 선행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양국 사이의 불의를 청산하고 정의를 회복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쟁이 악을 피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두 조건뿐 아니라 또 다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바, 그것이 바로 “전쟁 수행자들의 올바른 의도”인 것이다. 이 의도는 절제의 덕을 연마하고 성령의 은사로서의 경건함을 지님으로써 지켜 나갈 수 있다. 이를 통해 과도하거나 부당한 보복이 방지되고, 확립된 정의가 계속 보존되며, 따라서 진정한 평화가 수립될 수 있는 것이다. -아퀴나스

cf) 정의로운 전쟁은 평화수립에 이바지한다.

셋째, 전쟁 수행자들의 의도가 올바를 것이 요구된다. 즉, 선이 증진되거나 혹은 악이 회피되도록 의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는 liber de Verbis Domini에서, 신의 진정한 숭배자들 사이에서는 탐욕스럽거나 잔인하게가 아니라, 악이 제지되고 선이 위로받도록 하려는 평화의 열망에 의해 행하여지는 그 전쟁들이 평화롭다고 말한다. 그러나 비록 전쟁을 선언하는 권한이 적법하고 원인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악한 의도 때문에 전쟁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아우구스티누스는 Contra Faustum에서, 해치려는 탐욕, 징벌하려는 잔인함, 진정되지 않았고 진정될 수 없는 마음, 화해되지 않고 화해할 수 없는 정신, 반항하려는 야만성, 지배하려는 충동 및 이와 유사한 것들이 전쟁에서 법적으로 비난받는 것들이라고 말한다. -아퀴나스

1) 노직의 해외 원조

□ 노직-자선의 관점

- 자유 지상주의: 정당하게 취득한 개인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오직 개인에게 있으며(배타적 소유권), 처분권 또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 있음
- 개인은 사적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윤리적 의무를 지지는 않음
- 원조를 자율적 선택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빈곤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음 [2019 수특 182p]

- 어떤 사람이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사람은 그 재산에 대해 배타적 소유권을 갖는다. 국가가 복지를 위해 소득 재분배 정책을 펼치는 것은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원조에도 적용된다. [2019 수특 189p]

- 개인이 정당하게 취득한 재산의 배타적 소유권을 타인의 삶과 행복을 명목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원조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영역이다. [2019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 우리를 불가침의 개인들로 간주하는 정의로운 국가는 최소 국가뿐이다. 원조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근거해야 한다.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2) 의무론의 해외 원조

□ 의무론- 의무의 관점

- 타인의 고통에 대한 무관심은 보편적 윤리 기준에 어긋남
- 선(善)의 실천은 곧 도덕적 의무임

[2019 수특 182p]

3) 싱어의 해외 원조

□ 싱어- 의무의 관점

- 공리주의 : 고통을 감소시키고 쾌락을 증진하는 것은 인류의 의무임
- 원조를 통해 얻는 이익이 비용보다 클 경우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인지에 관계없이 도움을 주어야 함 → 친소(親疏)에 관계없이 사람을 돕는 것에는 도덕적 차이가 없음
- 굶주림과 죽음을 방치하는 것은 인류 전체의 고통을 증가시키는 것임
- 세계 시민 주의적 관점: 지구적 차원에서의 원조 강조

[2019 수특 182p]

- 정부를 압박하여 세계의 빈곤한 이들에 대한 원조를 늘리고 그러한 원조가 가능하면 효과적이게 만들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그 책무를 다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의 책무에 따라 행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 원조 단체에 기부함으로써 우리 자신에게 도덕적으로 마찬가지로 중요한 어떤 것을 희생하지 않고서도 아주 나쁜 일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중지시킬 수 있는 한, 그러한 단체에 기부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다. [싱어, “실천 윤리학”, 2019 수특 182p에 인용]
- 싱어는 큰 희생 없이 타국의 빈민을 도울 수 있다면 도와야 하고, 인류 전체의 공리 증진이라는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원조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싱어와 롤스 모두 해외 원조를 의무의 차원에서 이해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2019 수특 182p]
- 1년 소득의 1%를 기부하지 않는 것은 끔찍한 빈곤과 빈곤이 낳은 피할 수 있는 죽음을 무한적 지속시키는 데에 무관심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2019 수특 186p]
- 원조 단체에 기부함으로써 우리 자신에게 도덕적으로 마찬가지로 중요한 어떤 것을 희생하지 않고서도 아주 나쁜 일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중지시킬 수 있는 한, 그러한 단체에 기부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다. [2019 수특 189p]
-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 소득 중 일부는 기부해야 한다. 원조함으로써 우리 자신에게 다른 더 큰 피해가 생기지 않는 한 마땅히 원조해야 한다. [2019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 풍요로운 사회의 부유한 사람들은 빈곤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 소득의 일부를 기부해야 한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여 전 지구적인 의무를 공정하게 분담하는 것이다. [2018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 세계를 지금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기 전에 영양실조와 가난으로 죽어 갈 것이다. 원조의 의무는 인류 전체의 공리 증진을 위해 지속되어야 한다. [2018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 타인은 굶주리고 있는데 우리가 사치품에 돈을 쓰고 있다면, 확실히 우리는 더 많이 기부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하여, 도덕적으로 상응하는 중요한 것의 희생이 없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들을 도와야 한다.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기아의 원인은 인구 과잉이 아니라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이다. 선진국 사람들은 기아로 고통 받는 사람들과 자신들의 이익 관심을 동등하게 고려하여 넘쳐 나는 식량을 원조함으로써 인류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켜야 한다.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 전 세계 사람들의 이익은 그 사람의 국적과 상관없이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세계 시민으로서 전 지구적 차원의 원조에 동참해야 한다.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 원조는 만인이 공정하게 분담해야 할 전 지구적 의무이다.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고 남은 소득이 있으면 소득의 1%를 기부하여 세계의 빈민을 도와야 한다.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우리가 세계화의 시대를 얼마나 잘 겪어 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하나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생각에 어떻게 윤리적으로 대응하는가에 달려 있다. 세계 모든 사람의 이익은 그 사람이 처한 국적과 무관하게 평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부의 분배에 대한 전 지구적 단일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전 지구적 차원의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2016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을 바탕으로 인류의 고통 감소와 이익 증진을 위해 전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 에게 해외 원조를 해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이 어느 국가의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2015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4) 롤스의 해외 원조

□ 롤스- 의무의 관점

- 원조의 목적: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 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것임
- 국제주의적 관점: 해외 원조에서 국가적 경계를 중시하는 관점으로 원조의 목적을 모든 인류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에 두지 않음
- “정의론”의 ‘차등의 원칙’을 국제적 분배 정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음

[2019 수특 182p]

- 질서 정연한 사회들의 장기 목표는 무법적 국가와 마찬가지로 고통 받는 사회들을 질서 정연한 만민들의 사회로 가입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질서 정연한 만민은 고통 받는 사회들을 원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중략)… 사회들 간의 부와 복지의 수준들은 다양할 수 있고, 그렇게 추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수준들을 조정하는 것은 원조 의무의 목표가 아니다. 단지 고통 받는 사회들만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

[롤스, “만민법”, 2019 수특 182p에 인용]

- 롤스는 원조의 목적을 설정함에 있어, 자신의 차등의 원칙을 지구적 차원에서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조의 목적을 부의 불평등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고통 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2019 수특 182p]

- ‘질서 정연한 사회’에 살고 있는 만민은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회’에 대해 원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2019 수특 186p]

- 질서 정연한 사회들의 장기 목표는 고통 받는 사회들을 질서 정연한 만민들의 사회로 가입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질서 정연한 사회의 만민은 고통 받는 사회들을 원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2019 수특 189p]

- 공정으로서의 정의와 달리 만민법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모든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될 때까지 만민법에 따라 원조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019 수특 191p]

- 인권이 보장되고 민주적 의사 결정이 제도화된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해외 원조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원조는 고통받는 사회의 자유와 평등 확립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2019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 자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될 수 없는 경우는 거의 없다. 어떤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는 결정적 요인은 자원의 수준보다는 정치 문화이다.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가 정치 문화를 바꾸도록 원조해야 한다.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질서 정연한 만민은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을 겪는 사회를 원조해야 한다. 이것은 고통을 겪는 사회가 자신의 문제를 합당하게 관리할 수 있게 도와서 그 사회가 질서 정연한 만민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2018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 공정으로서의 정의와 달리 만민법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모든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될 때까지 만민법에 따라 원조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018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 정치 문화는 한 사회의 부와 복지 수준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기 때문에 자원과 부가 빈약한 사회라 할지라도 그 사회는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이를 유념하여 만민은 고통을 겪는 사회들을 원조해야 한다.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만민들의 사회의 기본 구조에서 일단 원조의 의무가 충족 되고 모든 만민이 자유주의적 정부나 적정 수준의 정부가 작동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상이한 만민 간의 평균적 부의 차이를 다시 좁혀야 할 이유는 없다.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 만민은 정의롭거나 적정 수준의 사회 체제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사회의 국민들을 도와야 한다.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4) 롤스의 해외 원조

□ 원조는 차등의 원칙을 국제 사회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원조의 의무는 고통 받는 사회들이 만민의 사회의 충분한 구성원이 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고통 받는 사회의 정치 체제를 ‘질서 정연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해외 원조를 해야 한다. 빈곤의 문제는 주로 정치 체제의 결함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각사회의 고유한 문화나 역사에 따라 필요한 부의 수준은 다르다.

[2015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5) 갈통

□

소극적 평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러, 전쟁, 범죄, 폭행 같은 직접적이고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 •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폭력이나 위협이 없는 상태 • 한계 : 빈곤, 인권 침해 같은 낮은 삶의 질에 의한 고통을 설명하기 어려움
적극적 평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이 사라진 상태 • 빈곤, 기아, 정치적 억압, 종교와 사상의 차별에 의한 폭력이 제거된 상태 • 갈통 : 인간다운 위해 적극적 평화 개념 강조 • 갈통 평화 개념의 의의 : 평화를 ‘국가 안보’차원으로 이해했던 이전과 달리 정의, 인간 존엄성, 삶의 질을 중시하는 ‘인간 안보’차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p style="text-align: right;">[2019 수특 183p]</p>

□ 외적으로 일어나는 구조적 폭력의 두 가지 주요한 형태는 정치와 경제에서 잘 알려진 억압과 착취이다. 이 두 가지 형태의 폭력은 몸과 마음에 작용하지만, 반드시 의도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희생자들에게 의도된 것이 아니라는 게 큰 위안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모든 것의 이면에는 문화적 폭력이 존재한다. 모두 상징적인 것으로 종교와 사상, 언어와 예술, 과학과 법, 대중 매체와 교육의 내부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폭력의 기능은 매우 간단한데,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 (중략)… 처방 또는 치료의 두 가지 형태는 앞에서 지적한 대로 소극적 평화를 목표로 하는 치료적 처방과 적극적 평화를 지향하는 예방적 처방이다.

[갈통,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2019 수특 183p에 인용]

- 갈통은 평화를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구분하였다. 그는 전쟁, 테러 등 신체에 직접 해를 가하는 직접적·물리적 폭력이 제거된 소극적 평화뿐만 아니라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이 사라진 적극적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19 수특 183p]

- 구조적이고 적극적 평화는 억압을 자유로, 착취를 평등으로 대신하며, 그리고 강요 대신 대화를, 분리 대신 통합을, 소외 대신 참여를 강조한다. [2019 수특 186p]

-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를 비교하면, 소극적 평화는 전쟁, 테러, 폭행과 같은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며, 빈곤이나 인권 침해와 같은 다양한 차원의 고통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지닌다. 반면에 적극적 평화는 문화적·구조적 폭력이 사라진 상태를 말하며, 차별에서 벗어나 인권을 보장받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닌다. [2019 수특 186p]

- 간접적 폭력은 사회 구조 자체에서 일어난다. 즉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의 집단인 사회 간에, 사회들의 집단인 동맹이나 지역 간에 발생하는, 그리고 인간의 내면에 성격 구조로부터 생기는 간접적이고 정신적인 또는 의도되지 않은 폭력이 존재한다. 외적으로 일어나는 구조적 폭력의 두 가지 주요한 형태는 정치와 경제에서 잘 알려진 억압과 착취이다. 이 두 가지 형태의 폭력은 몸과 마음에 작용하지만 반드시 의도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희생자들에게는 의도된 것이 아니라는 게 큰 위안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모든 것의 이면에는 문화적 폭력이 존재한다. 모두 상징적인 것으로 종교와 사상, 언어와 예술, 과학과 법, 대중 매체와 교육의 내부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폭력의 기능은 매우 간단한데,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 . . (중략) . . . 처방 또는 치료의 두 가지 형태는 앞에서 지적한 대로 소극적 평화를 목표로 하는 치료적 처방과 적극적 평화를 지향하는 예방적 처방이다. [2019 수특 190p]

- 전쟁 종식만으로 평화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직접적, 구조적, 문화적 폭력을 예방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억압과 착취의 구조를 시급히 개선해야 합니다.

[2019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 모든 종류의 폭력이 없거나 감소한 상태가 평화이다. 이러한 평화를 저해하는 직접적이고 구조적인 폭력과 이를 정당화하는 문화적 폭력은 평화적 수단으로 해소해야 한다.

[2018학년도 수학능력시험]

6) 왈처

- 정의로운 전쟁 이론은 무엇보다도 인간 행위로서의 전쟁이 가지는 도덕적 위상에 관한 논의이다. 그 논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전쟁이 때로는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전쟁의 수행은 언제나 도덕적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앞의 명제는 전쟁이 범죄 행위라고 믿는 평화주의자들이 거부하고, 뒤의 명제는 “사랑과 전쟁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현실주의자들이 반대한다. 현실주의자들은 “전시에는 법률이 침묵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왈처, “전쟁과 정의”, 2019 수특 184p에 인용]

- 왈처는 평화주의자들과 현실주의자들의 입장에 대항하여 전쟁이 때로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19 수특 184p]

- 정의로운 전쟁 이론은 무엇보다도 인간 행위로서의 전쟁이 가지는 도덕적 위상에 관한 논의이다. 그 논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전쟁이 때로는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전쟁의 수행은 언제나 도덕적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앞의 명제는 전쟁이 범죄 행위라고 믿는 평화주의자들이 거부하고, 뒤의 명제는 “사랑과 전쟁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현실주의자들이 반대한다. 현실주의자들은 “전시에는 법률이 침묵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의로운 전쟁 이론가들은, 비록 일부 평화주의자들이 전쟁 반대에 있어 선택적인 태도를 보이기도하고 일부 현실주의자들이 전투의 열기 속에서도 도덕적 감정을 표출하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평화주의자들과 현실주의자들에 반 대해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게 된다.

[2019 수특 191p]

- 정의로운 전쟁을 옹호하는 저의주장은 두 가지입니다. 전쟁은 때로는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과 전쟁은 언제나 도덕 판단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덕 판단의 근거는 효용 계산의 결과가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자유에 대한 권리입니다. 또한 전쟁에 대한 도덕 판단의 영역은 개시, 수행, 종결의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어떤 전쟁이 정의로운지를 판단할 때는 전쟁 개시의 영역이 전쟁 수행의 영역보다 우선합니다. 전쟁 개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한 명분입니다.

[2018학년도 수학능력시험]

- 전쟁이 정의롭기 위해서는 전쟁 개시, 전쟁 수행 과정, 전쟁 종식과 평화 정착에서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비록 개전(開戰)의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없는 전쟁일지라도 그 수행 과정과 전후 처리는 정의로워야 한다.

[2018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 A국에 대한 무장 해제는 도덕적, 정치적으로 정당한 목표이지만, A국의 대외적 위협은 전쟁보다 낮은 수준의 조치로 제어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전한 이상, A국과의 전쟁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정당하다. 첫째,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혹은 민간인 사상자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둘째, A국에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수립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7) 아퀴나스

- 전쟁은 신법(神法)을 지키고 공동선과 평화를 위한 것이다. 전쟁이 정의롭기 위해서는 적법한 권위를 지닌 군주에 의해서만 수행되어야 하며, 공격의 정당한 이유와 올바른 의도가 있어야 한다. 전쟁은 한 국가가 백성들에게 가한 나쁜 짓을 바로잡길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차지한 것을 돌려주길 거부할 경우 그 악을 징벌하는 것이어야 한다. 처음부터 적을 죽이려는 의도가 아니어야 하고 필요 이상의 폭력을 가해서도 안 되며, 개인의 적개심이 아닌 공공선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교전 중 자기 생명을 지키려는 목적 이상의 많은 희생을 야기하는 행위는 신법을 거스르는 것이다.

[아퀴나스, “신학대전”, 2019 수특 184p에 인용]

□ 아퀴나스는 정당한 전쟁은 세 가지 요건, 즉 적법한 군주의 권한(합법적 권위), 정당한 이유, 전쟁 수행자의 정당한 의도가 요구된다고 보았다.

[2019 수특 184p]

□ 정당한 전쟁을 위해서는 세 가지가 요구된다. 첫째, 군주의 권한인데, 그의 명령에 의하여 전쟁이 수행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전쟁을 벌이는 일은 개인의 사적인 권한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를 돌보는 일이 군주들에게 맡겨져 있으므로, 자기에게 예속된 도시나 왕국을 보호하는 일은 그들에게 속한다. 또한 그는 신의 집행자요, 악행을 하는 자들에 대한 분노의 처벌자이다. 둘째, 정당한 이유가 요구된다. 즉, 공격을 받는 자들은 어떤 잘못 때문에 공격을 마땅히 받는다. 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는 “만약 자신들에 의하여 부당하게 이루어진 일을 바로잡거나 혹은 불법에 의하여 탈취된 것을 반환하는 것을 태만히 하는 민족, 국가가 징벌을 받아야 한다면, 정당한 전쟁은 불법을 응징하는 것으로서 정의되어야 한다.”라고 말한 것이다. 셋째, 전쟁 수행자들의 의도가 올바를 것이 요구된다. 즉, 선이 증진되거나 혹은 악이 회피되도록 의도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의 진정한 숭배자들 사이에서는 탐욕스럽거나 잔인하게가 아니라, 악이 제지되고 선이 위로받도록 하려는 평화의 열망에 의해 행하여지는 전쟁이 평화롭다.”라고 말한 것이다.

[2019 수특 187p]

□ 전쟁은 찬양되어서는 안 되지만, 도덕적 제약을 전제로 최고의 합법적 권위에 의해 선포되는 경우와 나라 지키기 위해 적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

[2018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 전쟁은 신법(神法)을 지키고 공동선과 평화를 위한 것이다. 전쟁이 정의롭기 위해서는 적법한 권위를 지닌 군주에 의해서만 수행되어야 하며, 공격의 정당한 이유와 올바른 의도가 있어야 한다. 전쟁은 한 국가가 백성들에게 가한 나쁜 짓을 바로잡길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차지한 것을 돌려주길 거부할 경우 그 악을 징벌하는 것이어야 한다. 처음부터 적을 죽이려는 의도가 아니어야 하고 필요 이상의 폭력을 가해서도 안 되며, 개인의 적개심이 아닌 공공선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교전 중자기 생명을 지키려는 목적 이상의 많은 희생을 야기하는 행위는 신법을 거스르는 것이다.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8) 칸트

- “평화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 “영구 평화론” : 국내적으로 내정 간섭을 받지 않는 공화제를 도입하고, 국제적으로 보편적 우호 관계에 따라 국제법을 적용하는 국제적 연맹 창설 구상

[2019 수특 184p]

◎ 예비 조항

1. 장차 전쟁의 화근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암암리에 유보한 채 맺은 어떤 평화 조약도 결코 평화 조약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2. 어떠한 독립 국가도 상속, 교환, 매매 혹은 증여에 의해 다른 국가의 소유로 전락할 수 없다.
3. 상비군은 조만간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4. 국가 간의 대외적 분쟁과 관련하여 어떠한 국채도 발행되어서는 안 된다.
5.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체제와 통치에 폭력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6. 어떠한 국가도 다른 나라와의 전쟁 동안에 장래의 평화 시기에 상호 신뢰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 틀림없는 다음과 같은 적대 행위, 예컨대 암살자나 독살자의 고용, 항복 조약의 파기, 적국에서의 반역 선동을 해서는 안 된다.

◎ 확정 조항

1.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 정체인어야 한다.
2.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해야 한다.
3.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한다.

[2019 수특 184p]

- 장차 전쟁의 화근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암암리에 유보한 채로 맺은 어떠한 평화 조약도 결코 평화 조약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다면 조약이란 모든 적대 행위의 종식을 뜻하는 평화가 아닌 적재 행위의 한낱 일시적 중지인 휴전에 불과한 것이 되며, 따라서 ‘영구적’이란 단어를 덧붙이는 것조차 기만적인 수식어에 지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2019 수특 186p]

□ 영구 평화를 위한 제3의 확정 조항은,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한다.”이다. 앞 조항에서처럼 이곳에서의 문제도 박애에 관한 것이 아니라 권리에 관한 것이다. 우호란 한 이방인이 낯선 땅에 도착했을 때 적으로 간주되지 않은 권리를 뜻한다. 이방인이 평화적으로 처신하는 한, 그를 적대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2019 수특 188p]

□ 전쟁의 완전 종식과 영구 평화는 도덕적 입법의 최고 자리에 위치한 이성이 명령하는 의무입니다. 영구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전쟁 수단의 금지와 국가간 연맹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2019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 전쟁의 완전 종식과 영구 평화는 도덕적 입법의 최고 자리에 위치한 이성이 명령하는 의무입니다. 영구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전쟁 수단의 금지와 국가간 연맹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2019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 전쟁이 끝난 후 잠시 평화가 찾아와도 국가들은 더욱 강화된 재무장과 적대 정책을 세운다.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 국가 간의 항구적인 평화 조약이 요구된다.

[2018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 세계 평화는 받는 것이 아니라 성취해야 하는 것이다. 평화란 모든 전쟁의 종결을 의미하므로 그 앞에 ‘영원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은 용어의 중복일 따름이다. 평화는 도덕적 입법의 최고 자리에 위치한 이성이 명령하는 보편적 의무이다. 국가들은 서로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고, 무력과 기만을 근절해 평화를 예비해야 한다. 공화국으로 전환한 계몽된 자유 국가들이 연방을 결성하고, 호혜적인 질서를 수립함으로써 평화를 확정해야 한다.

[2016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 제2장. 국가 간의 영구 평화를 위한 확정 조항

- 제1항.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 정체이어야 한다. 이 시민적 체제는 원초적 계약의 이념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고, 모든 법률상의 입법이 근거해야만 하는 공화제이다.

- 제2항.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해야 한다.

- 제3항.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추구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우호란 한 이방인이 낯선 땅에 도착했을 때 그를 적으로 간주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2014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